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高麗俗謠와 宋詞의 主題意識 比較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張 維 維

2016年 8月

高麗俗謠와 宋詞의 主題意識 比較研究

指導教授 許 南 春

張 維 維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6月

張維維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6月

The Comparative study of Theme Consciousness
about Koryeosokyo and Song ci poetry

Chang Yu-Yu

(Supervised by professor Heo Nam-Ch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16. 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eo Nam-Choon, Prof. of Korean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 | |
|---------------------------------|-----|
| I. 序論 | 1 |
| 1. 연구목적 | 1 |
| 2. 연구사 | 2 |
| II. 사회적 배경과 형성과정 | 5 |
| 1. 고려시대의 사회적 배경 | 6 |
| 2. 송나라의 사회적 배경 | 8 |
| 3. 형성과정 | 12 |
| III. 고려속요와 송사의 주제의식 내용 비교 | 16 |
| 1. 高麗俗謠에서 나온 주제의식 | 16 |
| 1) 남녀상열과 이별·그리움 | 17 |
| 2) 인생고뇌의 感傷 | 39 |
| 3) 憂民忠君의 현실적 문제 | 42 |
| 2. 宋詞에서 나온 주제의식 | 51 |
| 1) 남녀상열과 이별·그리움 | 51 |
| 2) 인생무상의 感傷 | 73 |
| 3) 타향살이·고향의 그리움·不遇 | 79 |
| 4) 愛國憂民의 현실적 문제 | 86 |
| 3. 총괄적 논의 | 97 |
| IV. 結論 | 113 |
| ※ 參考文獻 | 119 |
| 中文提要 | 123 |

I. 서론

1. 연구목적

지금까지 고려속요의 명칭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 ‘고려가사’ ‘고려가요’ ‘속가’ ‘속요’ 등으로 불려왔다. 속요는 고려의 시가 문학 가운데 민간에서 전승되다가 궁중속악으로 수용되었다. 속요는 조선의 문헌 기록으로 남은 일련의 한국말 노래가사이며 이는 속요의 범주와 개념으로 매듭지어진다.

속요의 개념을 다룬 김학성의 논급¹⁾ 내용을 보면 속요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속요는 고려 시대 민중들이 풍미했던 시대상을 진솔하게 대변해준다. 당대 민중들의 사회적 현상과 변화를 가장 감각적인 언어로 담아냈다. 그 만큼 고려속요는 인위적으로 개작된 역사의 어느 기록보다도 당대의 모습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려속요는 고려의 시대상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속요가 궁중악으로 사용된 가요였다 할지라도 그 사설의 원천은 민요에 있으므로 본래의 작자 층은 민중으로 볼 수 있다. 속요는 애초부터 일반 민중들의 삶을 바탕으로 생겨난 작품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들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고 과거 시대의 민중들의 삶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속요는 그 시대 민중의 진솔한 정서를 질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속요를 통해서 고려시대의 하층민에서부터 상류층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서기 918년부터 서기 1392년까지 474년간王氏가 34대에 걸쳐 집권했다. 이 474년 동안 중국의 역사는 봉건 왕조가 오대부터 명나라 초기까지 거쳐진다. 이 시기 중 서기 960년에 중국 5대 10국을 통일한 宋王朝가 일어났다. 이

1) ‘속요’는 민속가요를 줄인 말이다. 민속가요란 민간의 속된 가요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때문에 잡스럽거나 속된 하층 문화권의 노래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였으며... 이들 가요군의 기원이거나 성격이 민속가요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수정해서 사용한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명칭이라 아닐 수 없다 것이다. 윤성현, 『속요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7, p.23.

때 고려는 대외정책으로 親宋을 표방한 북진정책을 썼으므로 송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었다. 왕래 교류 중 고려에는 송나라의 문물 유입과 같이 송사가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고려와 송사의 첫 만남이다.

사는 송나라 최고문학의 체제로 《全宋詞》 기록에 따르며 송의 시인들이 1330여명이 되고, 작품 및 훼손된 잔편까지 포함하면 20400 수가 된다.²⁾ 송사는 송대 문학의 영광이자 자랑이다.

王國維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초나라의 소, 한나라의 부, 육대의 변려문, 당나라의 시, 송나라의 사, 원나라의 곡은 모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당대의 문학이라고 하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를 제대로 계승하는 이가 없었다.”³⁾ 송사는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고려속요와 송사는 애초부터 음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상호 역사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고대문학은 중국의 고대문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비교문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따라서 송사가 고려에 유입되어 고려속요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각각 주제의식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양국의 시대적 민중의식을 찾아내고, 고려속요와 송사의 주제를 분류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고려속요는 특정 작품에 대하여는 상당한 연구의 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고려속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고려시가가 한국 문학사에서 그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2) 唐圭璋, 『全宋詞』, 中華書局出版社, 2013, p.10.

3) “楚之騷、漢之賦、六代之駢語、唐之詩、宋之詞、元之曲, 皆所謂一代之文學, 而後世, 莫能繼焉者也.” 王國維, 《宋元戲曲史》, 自序. 《20世紀國學叢書》本,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p.1.

김쾌덕, 『고려속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5)에서 속가에 미친 송사의 영향과 속가의 애정 편향성과 그 배경을 연구했다.

김쾌덕,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 연구』 (국학자료원, 2001)에서 속요에 나타나는 한의 양상과 형성배경을 연구하였다.

허남춘, 『황조가에서 창산별곡 너머』 (보고사,2010)에서 한 부분은 청산별곡에 대해 새롭게 해석 하였다.

李東喆, 『白雲 李奎報 詩의 研究』 (國學資料院, 1994)에서 주제별에 따라 이 규모의 한시를 연구하였다.

이승재는 「향가와 속요의 기원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에서 향가와 속요의 기원을 각각 분류해 기원성을 통해 그 차이점 및 공통점을 비교했다. 향가와 속요 속 한탄, 원망을 통한 기원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탄식하는 정서와 대상을 원망하는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동동>과 <이상곡> · <만전춘별곡>이다. 또 호소, 다짐을 통한 기원은 화자가 청자나 청자를 대신한 매개체를 향해 호소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나 목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다짐의 정서가 나타난 것으로, <정과정>과 <가시리> · <정읍사> · <정석가> 등에서 볼 수 있다.

조수현,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연구: 표현 방법과 정서 표출방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에서는 고려속요의 여성화자를 연구하였다. 여성화자의 정서의 표현 부분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 표현 방식과 이별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을 나눠서 연구하였다.

이연, 「고려가요에 나타난 宋詞와 元曲의 영향」 (고전문학 석사학위논문, 2011)에서는 고려가요 형성배경 중의 외래적 요소를 고찰하고자 당대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송(宋)과의 문화적 교류와 금(金)·원(元)과의 문화적 교류, 고려가요에 나타난 사와 곡의 영향을 형식·표현·주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유일하게 속요와 송사 원곡을 연결해서 연구한 논문이다.

정자중, 「고려속요에서 나타난 화자 인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에서는 임과 기다림에 대한, 시·공간에 대한, 성에 대한, 삶에 대한 화자인식으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다.

김미영, 「소악보의 국문학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이제현과 민사평의 작품을 대상으로」(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에서 益齋와 及庵의 「小樂府」 작품을 분석하여 小樂府가 국문학사상 갖고 있는 가치와 그 의의를 연구하였다.

다음에 송사의 주제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주제별을 기초로 분석하여 詞에 대한 각종 논문과 책자를 보며 그 중에서 송사와 관련하여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 소개된 송사의 여러 작품과 문인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각의 작품 내용과 작자별 성향에 따라 작품 분석을 위주로 한 논문은 분량 면에서 상당하지만, 통합적이고 세밀하게 다루어 발표된 논문과 책자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다.

河娃延의 『이청조 사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에서 이청조의 사에 대한 연구하였다

李宥林의 「柳永의 艷情詞 研究」(東國大學校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석사학위논문, 2008)에서 柳永 艷情詞의 세계를 聲色詞, 離別詞, 懷人詞, 閨怨詞, 悼亡詞의 다섯 가지 주제를 기준으로 나누어 柳永 艷情詞의 예술적 특징과 表現技巧 및 詞語의 活用을 연구하였다.

金寶羅의 「柳永의 愛情詞研究」, (全北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7)에서 柳永 愛情詞의 세계를 女人의 姿態 贊美, 女人과의 歡樂, 女人에 대한 그리움, 女人과의 離別, 女人의 怨望과 恨으로 분류하고 愛情詞의 表現技巧를 연구하였다.

王慧剛의 「朝落暮開空自許竟無人解知心苦—晏幾道苦情詞研究」(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에서 안기도의 인생과 苦情詞(감상적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賴曉君, 「“閑話覺忘憂”——北宋前期詞中“閑”的藝術探析」(南昌大學碩士學位論文, 2008)에서 중국 역대 “閑”과 관련된 작품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백거이의 “閑”시가 북송전기 문단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안수, 구양수, 유영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방지영의 〈周邦彥愛情詞研究〉(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에서 周邦彥 애정사를 내용적으로 농염한 艷情, 눈물 속의 이별, 무한한 그리움, 추억에 대한 회상으로 크게 분류하여 대표적인 작품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남녀 간의 그리움을 나타낸 작품들 또한 여인이 떠

난 입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작품들과 작자인 周邦彦이 헤어진 여인을 그리워하는 작품들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다.

문관수의 「南宋四大家의 애국우민사상 비교: 전원시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31집 2005)에서 남송시대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민중의 삶이 극도로 곤경에 처하자 南宋四大家인 陸遊、楊萬裏、範成大、尤袤의 시에서 이런 상황과 관련된 애국우민사상을 연구하였다.

김현주, 서진영, 「유영 기려주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에서 기려의 주제로 입과 이별, 입에 대한 그리움, 나그네의 고초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려사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동향의 「신기질의 용전」에서 신기질 사의 用典의 규모, 用典의 기법과 특성을 연구하였다.

池姓妍의 「《宋詞三百首今譯》의 北宋 初·中期詞 譯註」, (江陵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에서 《송사삼백수금역(宋詞三百首今譯)》에 수록된 작품 중 절반 가까이 되는 北宋詞 148수를 채택하여 번역하였다.

작가와 작품의 선정은 唐圭璋의 『全宋詞』와 양해명(송용준, 류종목 공역)의 『당송사사』, 周篤文(鄭惠璟, 河炅心 옮긴)의 『宋代의 詞』, 鄒德金, 『名家評注全宋詞』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송사의 작가와 작품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주제별 兩宋詞人들의 대표 작품을 골고루 감상,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사를 볼 때 고려속요와 송사를 비교 분석한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도 매우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송사와 고려속요의 주제의식을 비교 연구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선도적 연구로 생각된다. 이상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해보았다.

II. 사회적 배경 및 형성과정

文化란 그 시대의 사회생활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배

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학을 통해 당시의 사회와 삶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시대의 사회 배경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문학 형성에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대적 상황은 작가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작가의 문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1. 고려시기의 사회적 배경

대부분의 고려속요는 작자와 창작시대를 알 수 없지만 속요는 주로 고려 중기와 후기의 소산이다. 이때의 사회적 상황은 내우외환의 연속이었다.

당시 백성들이 처했던 사회적 상황을 보면 고려 후기는 무신의 반란, 몽골의 침입, 원의 간섭, 내우외환의 왕조로 암흑시대를 맞이했다. 무신의 난 이후 무신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자금과 물량은 모두 농민들의 토지 수탈과 노동착취로 이루어졌다.

대륙정세가 불안정해 그 여파가 고려에 파급되면서 원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원의 침입 이후 착취와 수탈이 더욱 심해져 마침내 농민과 천민들은 살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많은 농민들이 유민화와 노비화 되었고, 그들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나라의 체제가 붕괴되었으며 국가는 그 밑바탕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고려는 건국 이후 오대(五代)로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왕조와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송나라와 문화적·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대를 맺었다. 송과 고려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안 일반 문물은 물론 많은 서적류를 비롯한 송의 문물들이 고려에 꾸준히 들어오게 됐다. 이와 더불어 송의 사문학도 자연스레 많이 유입되었다.

반면 북방민족인 거란이나 여진, 그리고 몽골에 대해서는 야만시하며 대립정책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거란·여진·몽골 등 북방민족이 일어나 쇠약해진 송왕조를 압박하고 중원에 진출했다. 이로써 고려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은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고려가 계속해서 이들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고려가 40여 년의 대몽항쟁을 거치는 동안 강화도 천도를 감행하면서 내륙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고려의 행정력이 공백을 맞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몽고군의 침탈을 그대로 감내해야만 했고,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고려사회가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렸던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과 현실에 당면한 문제에 집중한 임기응변의 당연한 결과였다. 고려속요의 내용을 보면 참담한 삶에서 비롯된 아픔을 노래하거나 사랑하는 임과 이별에서 오는 고통을 노래하며 비극적인 아픔을 표현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는 고려 백성들이 버텨온 삶이 암울하고 비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려속요의 미적 범주의 측면에서 볼 때, 고려가요의 대부분은 우아미를 바탕에 깔면서 비극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고려가요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당시 사회 현실이 투영됐기 때문이다. 극도로 불안정했던 시대에 따른 삶의 파탄과 비극적인 현실은 결코 현실을 우아하게만 바라볼 수 없게 하였다. 신라시대처럼 비참한 삶을 의탁하고, 고통을 이겨낼 만한 뚜렷한 신앙이나 이념도 확고하게 설정되지 못하였다.

고려 후기 궁중의 도덕적 윤리는 귀족정치로 인한 인습적 부패와 원나라와의 주종관계에서 발생했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퇴폐적 경향으로 흘렀다. 고려시대의 많은 시가들은 임의 부재로 인한 여인들의 그리움을 반영하고 있다. 고려의 여인들이 임과의 헤어짐을 겪으며 가슴 아파하고, 원치 않는 이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내우외환 및 元에 바치는 공녀제 때문⁴⁾이라는 해설도 있다.

고려 후기는 정치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혼란의 와중에서 허덕였고, 사회·경제적으로 토지제도의 문란, 농장의 확대, 지방 관리의 횡포와 가렴주구, 고려사회의 내부적 동요와 타락이 있었다. 이는 사회의 불안을 가져와 적지 않은 민란과, 무신의 난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몽고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만과 불신과

4) 1225년(고종 12)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가 피살된 저고여 피살사건 이후, 몽골은 이를 구실로 고려에 침입하여, 항복 조건으로 고려의 동남동녀(童男童女) 각 500명씩을 바치라고 하였다. 몽골은 국호(國號)를 원(元)이라 고치고, 계속해서 고려에 공녀를 요구하였다. 원의 공녀 요구 이유는 복속정책(服屬政策), 또는 원과 고려의 친근정책(親近政策) 때문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원나라 왕실에 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정자중, 「고려가요에 나타난 화자 인식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9.

무질서가 난무한 혼돈의 사회가 계속되었다. 또 사상적으로 불교와 유학의 이념적 대립에 의해 사상의 일치를 보이지 못한 결과 두 사상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반목과 대립을 거듭하였으며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이 퇴색되었다. 고려속요는 이처럼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사회 속에서 잉태된 노래로서 고려시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투영된 결과물로 여겨진다.

고려가요 형성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김쾌덕은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당대의 고려는 국난이 빈번하여 백성들이 한계 상황에 처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만한 새로운 이념이나 장치가 부재했다는 점. 둘째, 고려의 여성들은 수난을 당했으며 그에 따라 비극적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점. 셋째, 고려의 승려나 지배계층이 타락했다는 점이 그것이다.⁵⁾ 이렇듯 속요에서 승려와 지배계층인 귀족과 왕의 타락을 엿볼 수 있다.

2. 송나라의 사회적 배경

서기 960년에 後周에서 戰功으로 殿前都點檢으로 승진, 금군을 통솔한 조광윤(趙匡胤)은 ‘陳橋兵變’⁶⁾을 통해 후주의 정권을 빼앗아 송을 건국하고 수도를 汴京(동경, 현 개봉)으로 하였다.

송나라는 북송(960~1127)과 남송(1127~1279)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송은 휘종(徽宗) 선화(宣和) 7년 금나라의 침입으로 다음해 흠종(欽宗), 휘종과 함께 금나라 군대에 잡혀가기까지의 168년 동안을 말하며, 남송은 휘종의 아홉째 아들인 고종(高宗)이 남쪽으로 도망쳐 와서 즉위한 뒤 1279년 원나라에 멸망하기까지의 153년 동안을 말한다.

5) 김쾌덕,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PP.15~21.

6) 959년에 후주(後周) 세종(世宗) 시영(柴榮)은 임종 전에 조광윤을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으로 임명하고, 전전금군(殿前禁軍)을 관장하게 하였다. 다음 해에 북한(北漢) 및 거란(契丹)의 연합군이 변경을 침략하자, 조광윤은 대군을 이끌고 경성(京城) 변량(汴梁) 동북쪽 20리에 위치한 진교역(陳橋驛)에 주둔했는데, 장졸들의 추대로 황제가 되었다. 이를 역사서에는 진교병변(陳橋兵變)으로 일컫는다.

北宋의 전기는 중앙집권에 의해 사회가 안정되고 산업과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경제는 번영하였다.⁷⁾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수도 汴京을 시작으로 국내외 무역의 중심지인 도시가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상공업의 발달로 도시의 상류 시민계층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로써 宋代 문학·음악·예술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貴族風에서 庶民風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배계층의 사치와 시민계층의 향락으로 민간연예가 발달할 수 있었으며,⁸⁾ 사는 이런 경제 문화적인 성숙된 배경 속에 번영하는 도시의 오락물로 환영받게 되었다.

사의 발달은 북송 초기 경제적 번영과 시민들의 향락적인 생활 때문에 士大夫文人 및 귀족 관료의 사문학 창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사는 많은 艷情的인 사랑과 이별, 그리움 등 인생무상의 閑愁의 주제의식이 나온다.

또한 송 태조 조광윤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봉건전제주의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황제가 직접 장악한 거대한 군대와 관료기구를 설치하였다.

조광윤은 무신의 난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삼아 무인을 억압하고 문인을 숭상함을 나라의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나라의 재상뿐만 아니라 군의 樞密使 또한 문신으로 중용했을 만큼 무신을 배척하였다. 문인들은 과거시험을 통해 등용이 되었고, 송대의 관리들의 주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송태조 趙匡胤은 ‘杯酒釋兵權’⁹⁾ 후에 ‘사대부가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유가에 이르러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를 외쳤다. 이것은 인생 중 가장 고도로 이상적이고 생명가치가 높은 것이다. 이것이 사대부의 사회적 책임감과 정치에 참여하는 열정을 전례 없이 급상승하도록 하였다. 역사상 유례없는 문인 지위의 긍정과 진급, 양호한 정치 분위기에 따라서 송나라 문화의 발전 또한 크게 흥성할 수 있었다.

안정된 정치 분위기와 변화한 사회발전은 북송 전 시기의 사인들에게 비교적 넉넉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5대의 전란이 가져온 각종 우환과 공포에

7) 袁行霈主編, 中國文學史(三), 北京高等教育出版社, 1999, p.11. “宋朝生產持續發展, 經濟高度繁榮”

8) 金學主, 《中國文學史》, 新雅社, 1989, pp.389~390.

9) 《宋史·石守信傳》記載“杯酒釋兵權”, 宋太祖曾言: “人生如白駒過隙, 所以好富貴者, 不過欲多積金錢, 厚自娛樂, 使子孫無貧乏爾。卿等何不釋去兵權, 出守大藩, 擇便好田宅市之, 爲子孫立永遠不可動之業。多置歌兒舞女, 朝夕飲酒相歡, 以終天年。朕且與卿等約爲婚姻, 君臣之間, 兩無猜疑, 上下相安, 不亦善乎?” 脫脫. 宋史: 下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987.

서 벗어나고자 점점 멀리 떠났다. 그로 인해 더 편해진 마음이 문학창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개국 후 100여년 가량은 사회가 안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송나라는 당나라 멸망의 과정을 교훈삼아 중앙집권을 확대하였고, 토후세력을 약화시켰다. 이민족에게 위협과 수탈을 당할 때 물러났으며, 군사력의 약화로 소수민족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하였다.

국외적으로는 이민족 침입과 국토함락으로 외환에 시달렸고 국내적으로는 계층 간에 모순이 심해졌다. 송나라는 내우외환으로 위태로워지고, 급기야 북송이 금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남송은 원나라에게 멸망당한 후 이민족의 통치시대가 되었다. 일련의 상황은 민족의 치욕, 계층 간 모순의 심화, 사회 위기, 조정의 위기, 국민들의 불만과 한을 불러왔고, 이는 송나라의 사에 뚜렷하고 깊은 정치문화를 내포하게 했다.

특히 나라의 생사존망의 고비에서 쇠퇴한 사회현실은 문인사대부의 민감한 정신을 투영하였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슬픈 감정이 있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의 영향으로 사대부들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이는 현실적인 사를 많이 쓰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남송 애국사의 대표작자 신기질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宋詞는 당시 사회생활의 각종 비극현상을 반영하였다. 전체 宋詞의 주요한 부분은 ‘슬픈 사람(傷心人)’의 각종 ‘슬픈 일상(傷心事)’을 서술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문학의 자연, 사회, 인생의 각종 슬픈 정서에 대한 표현이었다. 결국, 宋詞는 송대의 특정한 사회역사 조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서기 1127년, 금나라군은 太上皇 휘종과 황제 흠종, 황족 및 관리 2000~3000명을 포로로 잡아 갔으며, 약탈한 재물들을 가득 싣고 북방으로 돌아갔다. 역사에서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정강(靖康)의 변(變)’이라고 한다. 북송이 멸망하자, 5월 趙構가 즉위하여 응천부(應天府, 즉 河南, 尙丘)에서 송 왕조를 다시 세우고 임안(臨安, 지금의 浙江, 杭州)에 수도를 두어, ‘南宋’을 재건하였다.

‘정강의 변’은 국가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면모도 변화시켰다.

사인은 왕실을 따라서 남송으로 함께 갔다. 주로 이 시기 즉, 정강의 변 이후

에 애국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나라에 대항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남송 문단의 기조이다. 충군과 민족의 기개가 함께 어우러져, 금나라에 대항하고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감정적 동기가 되었다

북송이 멸망할 때, 조그만 영토에 안거함에도 만족하던 남송정권은 일시적인 안일만을 원했고 국가의 재건은 바라지 않았다. 山河는 금군에게蹂躪하고 백성들의 주거가 불안정하였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사인들의 대부분이 나라를 잃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강산의 주인이 바뀌었고, 국가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세상의 풍파의 변화가 그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사는, 그들은 집과 나라를 잃었을 때 불행한 신세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였을 뿐 아니라, 나라의 망함에 대한 비통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感傷에 더 깊게 빠져들게 했다.

북송의 멸망 때문에, 사의 작가의 感傷은 특별히 이청조의 사에서 南渡 전과 후에 나타난 작가들 사의 풍격 변화를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다. 南渡 전에, 이청조 또한 ‘감상’을 적었다. 그러나 그의 한적한 생활 배경을 보면 거의 <一剪梅>의 “花自飄零水自流. 一種相思, 兩處閑愁(꽃잎은 여기저기 흩날리고 물은 자유로이 흘러가네. 서로에 대한 하나의 그리움은 두 곳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를 근심스럽게 하네)” 라는 閑愁가 많다. 그러나, ‘정강의 변’은 그녀로 하여금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화를 입게 하였다. 귀중한 소장품을 도둑맞고, 재가하여 이혼하고, 감옥에 갇혔다. 심한 공격과 재난을 당했다. 국가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된 후의 빈곤, 집 떠나서의 고생을 실컷 맛보도록 하였다. 유랑하는 신세, 과부의 외로움, 노년의 처량함, 나라를 잃은 한과 그녀 개인의 비애를 구성하였다. 이때는 이청조의 愁心이 <蝶戀花>의 “猶抱濃愁無好夢, 夜闌猶剪燈弄花(깊은 시름에 겨워 좋은 꿈을 못 꾸네. 야심한 밤에 등불의 심지 자르며 희롱하노라.)” 라는 濃愁로 바뀌었다.

송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송대 초기에는 만당의 感傷의이고 유미주의적인 시풍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인들로 晏殊, 範仲淹, 歐陽

修, 晏幾道 등을 들 수 있다. 송대 초기에 유행하였던 사는 거의 길이가 짧고 간단한 소령(小令)이며, 이때만 해도 만당, 오대 사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더군다나 여인들의 아름다운 자태, 애정, 유감을 표현하였던, 여리고 농염한 화간파의 여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정강의 변란은 북송의 멸망을 초래하고 문학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금은 汴京을 공격하여 휘종, 흠종을 포로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았다. 그리하여 송의 문무 관원들은 조구를 응립하여 남송 왕조를 건립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받는 환난 속에서 애국의 울분을 참을 수 없어 금에 대항하는 한편, 投降派와 투쟁을 벌였다. 이와 같은 비장한 시대적인 상황은 자연히 작품에 반영되었다. 강개, 격양의 애국 열정은 애국 문학의 특색으로 나타나 李清照, 張元幹, 張孝祥, 陸遊, 辛棄疾 등의 작품 속에 잘 반영되어 있고, 이른바 豪放詞의 풍격을 이루게 되었다.

3. 형성과정

기존문학은 한문에 의존한 관념적인 언어의 유희에 빠진 귀족들만의 문학이었다. 그러나 고려속요는 민요에서 형성되어 운율이 아름답고 아무런 허식이나 과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속요에는 평민들의 애환과 심혼이 솔직담백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 비록 문헌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남녀상열지사’, ‘음사’, ‘사리부재(노랫말이 저속한 것은 문헌에 신지 못한다)’라 하여 많은 작품들이 누락되거나 소멸되었다. 하지만 고려가요의 향유층은 민중에서부터 왕실과 그 주변인물인 권문세족까지 다양하여, 수용된 고려가요는 궁중악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설의 원천은 민요에 있으므로 본래의 작자 층은 민중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재창작하여 향유한 왕실과 그 주변인물인 권문세족은 수용자인 셈이다. 따라서 단편적이지만 고려속요를 통해서 고려시대의 민중에서부터 상류층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흐름을 보면 속요의 시작인 민요는 고려조로부터 시작되어 조선조에는 궁중 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게

처음에는 민요를 가져다 악곡에 맞춰 전사하기도 하고 궁중의 의례에 맞게 분석하거나 가사를 바꾸어 합성·편사하는 단계를 거친다. 전사란 악곡의 길이에 맞게 가사를 메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는 시와 비슷한 운문으로, 사의 전체 명칭은 ‘곡자사(曲子詞)’이고 이를 간략하게 줄여 사라고 한다. 당 중엽에 민간에서 발생하여 송대에 가장 번성했던 문학 양식이다. 곡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때문에 ‘의성(依聲)(소리를 따른다는 뜻)’이라고도 하고 악부라고도 한다. 민간가요의 가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장단 길이가 일정치 않아 ‘장단구(長短句)’라고도 하며, 초기에는 가창할 수 있었던 근체시의 변형이라고 여겨 ‘시여(詩餘)’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는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를 창작할 때 일정하게 정해진 악보인 사조(詞調)에 가사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지어져서, 사를 짓는 것을 두고 가사를 소리에 맞추어 메운다는 뜻의 ‘전사(填詞)’라고도 하였다.

사는 시와는 달리 민요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음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유희적 성격이 매우 강했고, 따라서 그 내용도 술, 여색, 애정, 희롱 등 일상에 대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특성이 강해 깊고 섬세한 내면을 완곡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어, 처음에는 문사들에게 그리 환영받지 못한 장르였다. 하지만 당나라 말엽에 이르러는 문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송대에는 공전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사가 대량으로 창작됨에 따라 艷情적이고 개인적인 신세타령에서 벗어나 시국에 대한 개탄이나 국가의 흥망성세 등까지도 읊게 되어 점차 시와 비슷한 성격으로 발전하게 된다.

중국문학사에서 문학 장르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발생한 후 문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쳤고¹³⁾, 그들에 의해 정통 문학 장르로 정착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唐代 시인 劉禹錫은 민가를 모방하여 <죽지사>를 배워 쓰게 된 경과가 문인에 대한 민가 창작의 계시 작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악부>해설에 나온 듯 고려말 이제현이 元京에 장기간 체류하였기 때문에 그곳의 음률을 解得하여

13) 새로운 문체는 대개 민간에 의해 먼저 창제되고 그 다음에 문인들이 호기심으로 손을 대거나 모방하거나 하여 차츰 ‘문학의 큰집’ 속으로 들어왔다 이에 대해 노신은“歌·詩·詞·曲은 원래 민간의 것 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양해명저, (송용준,류종목 공역), 《唐宋詞史》, 신아사, 2005, p.61.

유우석을 모방하여 소악보 11수를 지었다.

지금의 『고려사』 악지는 당악조에 실려 있는 사들의 경우, 유명 등 사를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사람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다. 이것은 내용이 밀집적이며 도시적인 성향을 보여 주고 있어서 일반 민간에서 창작되어 불리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송사는 원래 마을이나 저작거리 악곡에서 기원했으며, 현존하는 돈황곡자사도 변방의 농촌과 산골마을 및 강촌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것 들이다. 그 뒤에 이것이 도시 등지로 옮겨져 문인들의 손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하였다.¹⁴⁾

楊蔭瀏도 『중국고대음악사』에서 사창작과 번성에 대하여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송대에 이르러 민간곡자사는 더욱 많은 문인들의 주위를 끌었다. 민간곡자사의 형식을 모방하여 가사를 지은 유명 사인만 보아도 200명이 넘는다. 그들에 의거한 사패는 870 종 이상이다. 문인들이 모의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한 사실은 이전과 당시의 민간가곡이 얼마나 활발하게 창작되었는가를 설명한다. 민간에서 끊임없이 가곡을 창작하여 문인들이 의거할 수 있는 가사의 형식도 갈수록 다양해졌다. 그러므로 문학사에서 볼 수 있는 사 창작의 번영은 음악사에서 민간가곡 창작이 가져온 결과로 보아야 한다.”¹⁵⁾

사는 민간에서 유행하자마자 문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이로부터 모방이 시작되었다. 中唐의 張志和, 韋應物, 劉禹錫, 白居易 등이 사의 초기 작가이다. 민간에서 문인의 사로 넘어오면서 만당 오대사 창작의 번영기가 시작되었다. 사는 발생 초기에 농촌이나 산촌 등 지방적인 특색을 갖고 지방의 여러 곳에서 유행하였다. 이는 속가가 대개 여러 지방의 유행 민요였다는 점과 상당히 통한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민간 곡자사에 의거하여 유명 등 많은 전문 사인들이 사를 창작했다고 했는데, 이런 점도 민요가 악장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김원상·오잠 등 행인들이 내용과 형식 등의 변조에 깊이 관여한 일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¹⁶⁾

14) 양해명, (송용준, 류종목 공역), 『당송사사』, 신아사, 2005, p.69.

15) 楊蔭瀏, 『중국고대음악사』, 숲, 1999, p.443.

16) 김쾌덕, 『고려속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6, p.50.

Ⅲ. 고려속요와 송사의 주제의식 내용 비교

1. 高麗俗謠에서 나온 주제

고려속요 중에서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국문으로 채록되어 정착된 노래는 21수이다.¹⁷⁾ 이들 국문정착가요 21수 중 일반적으로 고려속요로 불리는 작품은 <정과정>·<정읍사>·<동동>·<처용가>·<쌍화점>·<서경별곡>·<청산별곡>·<정석가>·<이상곡>·<사모곡>·<가시리>·<만전춘별사>·<상저가>·<유구곡> 등 14수이다.¹⁸⁾ 고려속요의 범주에 드는 구체적 작품을 관계문헌에서 찾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악학궤범: 정읍사, 동동, 처용가, 정과정.

악장가사: 정석가, 청산별곡, 서경별곡, 사모곡, 가시리, 쌍화점, 이상곡, 만전춘별사.

시용향악보: 유구곡, 상저가.

고려속요의 주제는 다양하다. 효를 주제로 한 작품은 <사모곡>과 <상저가> 등이 있고, 충을 노래한 작품은 <정과정곡>이 있다. 또 곳 현장에서 불린 무가로 <처용가>가 있고, 인생의 고뇌를 노래한 <청산별곡>도 있다.

그러나 속요의 보편적 주제는 사랑과 이별, 기다림과 그리움이다. 사랑의 모습도 다양하여, 돌아올 리 없는 입을 기다리며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는 노래 <동동>·<이상곡>·<가시리>·<정읍사>나 불가능의 역설적 수법을 이용해 간절한 염원을 노래한 <정석가>가 있다. 이밖에도 입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과 원망을 동시에 드러내는 노래 <서경별곡>,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결합하여 대담하게 표현하는 노래 <만전춘별사>, 성애 장면을 통해 당시 지배층을 풍자하는 노래 <쌍화점>도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류해 볼 때, ‘사랑’이 주

17) 박병재,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국학자료원, 1994, p.7. 국문정착가요 일람표참조.

18) 이승재, 「향가와 속요 기원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35.

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려속요가 임에 대한 사랑이나 기다림의 정서로 일관하고 있으며, 당대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뼈아픈 한의 정서, 계급 모순을 현실적으로 노래한 주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후기 이규보의 한시와 이재현의 소악보 한역 시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사실적으로 그들의 애환이 드러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당대 서민들에게 그때의 삶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엿볼 수 있다.

각 주제의식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자.

1) 남녀상열과 이별 · 그리움

먼저 그리움에 대한 주제 <동동>을 보자.

<동동>은 임을 찬양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른 세시 풍속 별로 임을 떠올리고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福으란 립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으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온

<동동>의 1연에서 여성화자는 임에 대한 송축을 노래하며, 2연에서는 정월에 열었던 물과 홀로 있는 자신의 처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노래하고 있다. 열었던 강물도 녹는데 화자는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고독감을 토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정월이지만 화자는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자신만 고독하고 변하지 않는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현 燈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2월령에서는 연등제 행사가 연상되며, 임은 2월 연등제에서 세상을 환히 밝혀 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모든 사람이 비취질 모습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러 볼 수밖에 없는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런 훌륭한 존재인 임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여성의 모습은 낮고 초라하다. 여성은 사랑을 통해, 즉 남성을 통해 세계를 얻고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⁹⁾ 이를 통해, 화자의 고독함은 더욱 깊어진다.

三月八 나며 開軒
아으 滿春돌윗고지여
늑미 브를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3월령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다. 봄 산에 가득한 아름다운 꽃의 모습에서 임을 떠올리는데 임을 진달래꽃에 비유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다고 하며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낸다. 2월의 등불에서처럼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1월령에서 자신의 처지를 슬프게 여기는 것과 반대로 2월령과 3월령에서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四月 아나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緣事니몬
넛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4월령에서는 꾀꼬리 새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다. 그리고 임에 대한 구체적인

19) 한국여성연구회편, 『여성학 강의』, 동녘출판사, 1993, p.106.

명칭이 등장하는데, ‘녹사(綠事)’가 그것이다. 녹사는 고려 목종 이래 칠품관의 벼슬인 문하녹사나 사헌부를 비롯한 각 사에 있던 하급 관리의 명칭²⁰⁾을 뜻한다. 그러나 앞서 2월령의 등불이나 3월령의 꽃에 비유된 임의 모습으로 인해 오히려 낮은 직급은 화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화자에게 절대적이고 위대한 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찌꼬리 새에 자신을 비유하여 새가 돌아오는데 임은 돌아오지 않음을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다. 자연의 순환에 따라 시간은 흘러가는데 과거의 행복하던 임과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현재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외로움은 커져간다.

五月 五일에
 아으 소릿날 아춤 樂은
 즘물힐 長存호살
 樂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5월령에는 단오의 세시풍속이 드러난다. 화자는 임에게 바치는 약을 준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베푸는 여인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의 부재로 임의 건강을 바라며 준비한 약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현재 임과 화자는 이별한 상태이며 다른 이들이 약을 바치는 모습은 화자에게 괴로운 모습일 뿐이다. 여기서 임과의 거리감이 더욱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화자의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마음과 그리움의 정서를 담은 마음이 더욱 드러난다.

六月 八 불매
 아으 별해 ㅂ문빗 다호라
 도라 보실 니물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 八 보로매
 아으 百種排호야 두고

20) 최철,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출판부, 1996, p.135.

니물 혼더 녀가져
願을 비읍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八 보로몬
아으 嘉俳로 나리마룬
니물 피셔 녀곤
오늘낫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6월령에서는 보름 벼랑에 버린 빗에 자신을 비유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돌아보실 입을 따라가겠다’는 표현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7월령의 백중에는 각 가정에서 과일을 따서 조상에게 바치고 음복을 하였다. 나라 전체적인 축제의 날인 것이다. 이런 흥겨운 날에 홀로 있는 화자는 고독감에 다시 휩싸인다. 남들은 농사를 끝내고 축제를 벌이는데 임의 부재에서 오는 고독감이 더 심해진다. 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기원을 조상에게 올리고 싶어 한다. 8월령 한가위는 년 중에 가장 즐겁게 지내는 큰 명절이다. 그러나 임과 함께 하지 않기에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감만 짙게 느껴지는 것이다.

九月 九日애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서 가만호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ㅂ룻 다호라
것거 ㅂ리신 후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日月八 봉당자리에

아으 汗衫 두퍼 누워
슬홀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음 널서
아으 動動다리

9월령에는 중구일에 국화꽃으로 화전을 만들었으나 먹어줄 임이 없으니 이제는 허탈한 마음이 가득하다. 혼자서 입을 기다리는 초가집의 적막함이 크게 느껴지는 심정을 알 수 있다. 10월령은 자신의 처지를 꺾어져버린 쓸모없는 것에 대입시켜 그것을 가지고 다닐 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에 스스로가 더욱 가여워짐을 나타냈다. 자신이 쓸모가 없고 가지고 다닐 임이 없다는 대입을 통해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비하하고 고독함과 외로움에 절망스러워 하는 태도가 보인다.

11월령이 되면 겨울이다. 이미 밤은 깊어지는데 추운 날 한삼을 덮고 누운 듯 홀로 누운 자리가 더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진다. 임과 함께 했던 겨우내 밤을 기억하며 누운 자신의 처지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져 절정으로 치닫는다.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고 한스럽다고 느끼는 절망감이 보인다.

十二月八 분디남자로 갓곤
아으 나술盤잇 저 다호라
니떡 알피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12월령에는 자신을 젓가락에 비유하는데, 입을 위해 가지런히 모아둔 젓가락을 다른 손이 가져가 문다는 데에서 임과 화자 사이에 제 3자의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입을 잊지 못하고 있지만 입을 위해 올려놓은 젓가락이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 버렸음을 탄식함과 임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마음을 드러낸다.²¹⁾

<동동>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고 나서 월마다의 세시풍속과 구체적인 물건들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비유를 통한 형상화는 화자의 정서를 심

21) 조수현,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연구: 표현 방법과 정서 표출방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28.

화시키며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여성화자의 섬세한 감성을 보다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변함없이 홀로 사는 외로움, 찌꼬리 새가 우는데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화자,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 한탄(빛), 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소망, 임 없이 보내는 8월 한가위의 쓸쓸함과 그리움, 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슬픔과 상사의 괴로움, 임과 맺어질 수 없는 운명에 대한 한탄 등을 세시풍속과 연결하여 풀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리움에 사무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동동에서 떠난 임을 향한 그리움에 사무쳐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깊은 한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 이별의 감상적 주제이다.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聖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

<가시리>의 정서에는 기다림의 여성 화자의 정서를 담고 있다. 1연은 화자가 임에게 ‘정말 버리고 가시겠습니까?’라고 하며 떠나는 임에게 되물어보며 재확인하고 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을 화자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하소연에 찬 슬픔의 의미가 서려 있다.

2연과 3연의 내용은 암담한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날리는 엇디살라 흐고’라 하며 임이 없으면 살아갈 앞날이 암담함을 걱정하고 있다. 2연과 3연은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는 여성의 삶은 남성에 의해 의존적이고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단면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잡지 않는다. ‘괜시리 잡았다가 서운하게 생각하여 돌아올 것도 안 돌아오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수용은 3연에서 드러난다. 4연에서는 돌아올 것에 대한 간절함이다. 화자는 비록 지금은 보내드리지만 곧바로 돌아올 것을 빌고 있다. <가시리>의 화자는 이별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이별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가시리의²²⁾ 작품을 보면 전체적 상황은 ‘임’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데도 나는 순종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이는 화자의 이별에 대한 대응방식이 능동적이지 않고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임을 붙잡기 보다는 원망을 스스로 삭히고, 오직 정성된 마음으로 떠나는 임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비장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화자의 사랑은 조건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이고, 상대방의 행동 여부로부터 초월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사랑이다. 그것은 임의 존재가 화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임과 이별을 하는 상황 속에서 임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理想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기다림으로 승화하며 자기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은 임을 보내 드려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난 뒤의 노래지만 영원한 이별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러우나 그 고통을 미래의 환희로 바꿀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기대하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고통은 고통인 동시에 희망이며 미래를 긍정하기 위해 현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비장한 결단이 되는 것이다.²³⁾

22) 황영미,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연구- 임의 부재에 대한 반응 양상을 중심으로」, 부산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17.

23) 이창환, 「고려속요에 나타난 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37.

<가시리>는 한 여성의 시어를 통해 이별과 아쉬움을 슬프게 호소하여 잘 형상화하고 있다.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며 진실에 호소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 아주 간결하면서 소박하지만 가슴속 깊이 잔잔한 감동이 느껴진다. 또한 이별에 있어서 자기희생과 감정을 절제하며 임에 대한 재회를 기약하고 있다. 여성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며 사랑하지만 임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 슬픔을 참고 이겨 내면서 임을 떠나보내는 당시 여인의 이별의 정한은 한국의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여인의 정조이면서 굳센 마음을 표현한 노래로 볼 수 있다.

<정석가>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先王聖代에 노니아와지이다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난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난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有德하신 님물 여해아와지이다

玉으로 蓮고즐 사교이다
 玉으로 蓮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회 接柱하요이다
 그 고지 三同이 꿩거시아
 그 고지 三同이 꿩거시아
 有德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말아 나난
 므쇠로 털릭을 말아 나난
 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有德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무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무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쇼 | 鐵草를 머거아

그 쇼 | 鐵草를 머거아

有德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달

구스리 바회에 디신달

긴헛단 그츠리잇가

즈른 해랄 외오곰 녀신달

즈른 해랄 외오곰 녀신달

信잇단 그츠리잇가

<정석가>는 임과의 사랑을 굳게 다짐하는 노래이다.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그리고 있다. 2연에서는 바삭바삭 부서지는 모래 벼랑에 구운밤에서 싹이 날 때에 임과 이별하겠다. 3연에서는 다짐하고 옥으로 연꽃을 새겨 바위에 접하여 활짝 피면 임과 이별하겠다고 한다. 4연에서는 무쇠로 관복을 만들고 쇠로 된 실로 꿰매 놓고 그 옷이 다 떨어지면, 5연에서는 또 무쇠로 만든 황소가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서 쇠로 된 풀을 다 먹어야 임과 이별하겠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결국 도래할 수 없는 초월적 시간을 상정하여 현실에서 불가능한 시간이 되어야 임과 헤어지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영원성을 나타내려는 정석가만의 ‘역설적 과장’²⁴⁾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임과 함께 영원하고 싶다는 결심으로 보여진다. 이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의지를 다진다고 볼 수 있다. 임과 합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강렬한 염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6연 ‘信잇단 그츠리잇가’에서 강조한 ‘믿음’이 바로 ‘기다림’으로 만약에 이별의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임’을 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구스리~’ 부분은

24) 이규호, 『정석가식 표현과 시간의식』, 국어국문학 92호, 국어국문학회, 1984, p.111.

25) 조연숙, 『고려속요 연구』, 국학자료원, 2004, p.54.

익재 소악보에 한시로 번역되어 있고, 서경별곡 제 2연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관용구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²⁶⁾

이로써 입을 헤어지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삼아 남녀 간 변함없는 사랑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방식은 漢樂府民歌로 樂府詩集에 실려 있는 上邪에서도 느낄 수 있다. 또는 송사 전기의 돈황곡자사<菩薩蠻>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다.

<서경별곡>

西京이 아즐가
西京이 서울히 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버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피시란디 아즐가
피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서경별곡>의 여성 화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랑하는 입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 끝내는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뱃사공에게 닦을 돌리며 그를 원망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여성 화자에 의해서 여성 화자의 순종적 이미지는 반감된다.

1연은 당시 고려의 여인의 생계 수단인 ‘질삼뵈’를 버리고 사랑하는 입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입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질삼뵈’가 등장하는데 견우와 직녀의 전설 때부터 여성의 생활을 상징하므로 당시 고려 여인의 생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질삼뵈’마저 버리고 ‘입’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기반을 모두 버리겠다는 것과 상통한다. 사랑하는 입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별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

26) 권수정, 「고려가요 화자 연구」, 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36.

기한 채 입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보인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함도 느낄 수 있다. 고려시대의 여성의 모습은 남편과 더불어 여성에게 경제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하였다. <서경별곡>의 여성은 임과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질삼뵈’까지 버리고 울면서 따라가고 싶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비극적인 이별에 상황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는 표면적으로 소망으로 제시되어 있다.²⁷⁾ 이는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도 임과의 합일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즘흔히를 아즐가
 즘흔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신(信)잇둔 아즐가
 신(信)잇둔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서경별곡>의 여성 화자의 기다림과 입에 대한 사랑은 위의 부분에 와서 훨씬 더 구체화된다. ‘구슬’ ‘끈’ ‘바위’에 비겨서 자신의 사랑이 영원히 不變할 것임을 떠나려는 입에게 확인시키면서 자신에게도 굳게 다짐하는 戀慕의 정이 관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의 구슬 단락에 대해 신은경은 소망의 주체를 쌍방으로 이 노래의 의도를 사랑의 확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²⁸⁾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입이 자신을 떠난다 해도, 입에 대한 사랑만은 끝까지 간직하겠다는 여성 화자의 의지 속에는 자신의 기다림을 굳건히 하겠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그 기다림의 승고함이 입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주는 ‘끈’이 되는 것이다. 헤어질 상황이

27) 안상렬, 『고려속요의 지향공간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49.

28) 신은경, 『서경별곡과 정석가의 공통 삼입가요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1986, p.96.

된다고 해도 나는 사랑하는 임과의 인연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그즈리잇가’라는 표현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즈른히’는 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현재에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서에서 보듯 믿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럽난디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넬 비예 아즐가 넬 비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빅 타들면 아즐가 빅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이 부분은 이별의 고통과 헤어짐의 아픔을 드러낸다. 대동강이 넓은 것을 임과의 거리로 표현하였고 이별의 상황에서는 화자의 단절감이 드러난다. 화자가 대동강이 한없이 넓다고 하고는 임에 대한 원망을 나타낸다. 임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건너편 꽃을 꺾는 것’으로 더욱 심화되고 ‘꽃’은 다른 여자를 비유하는 것으로 화자에게 비참한 상황이 일어날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표출한다. ‘사공’이라는 인물의 설정은 이별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소재이다. 힐가드는 “장애를 주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때, 그 공격은 덜 위협을 주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대상에게 전위된다.”²⁹⁾라고 했다. 즉 임을 향한 화자의 분노와 원망이라는 정서는 사공에게로 직접 향하게 된다. 그 결과 현실 속 임과의 단절감, 절망감은 사공에 대한 원망의 감정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29) E R 힐가드, 『고려가요의 정서』, 개문사, 1993, p.60.

<서경별곡>의 화자는 임이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 속에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별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는 여성 화자의 적극성을 통해 잘 드러난다.

<정읍사>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쑤)저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즌디롤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디 점그롤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정읍사>는 樂學便考에 노래 말이 실려 전하고 있으며, 高麗史 樂志에 이 노래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³⁰⁾ 행상을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기다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읍사>는 망부석 설화를 수반하고 있다. 여자에게 맺혀 있는 이별의 한이 여자로 하여금 돌이 되게 한 것이다³¹⁾. 망부석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는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흔하게 전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秦皇島, 江門無邑上川島, 河南省葉縣, 沙田紅梅穀, 桂林漓江, 青海, 香港沙田의 西南 등의 지방에서도 망부석이 있으며 그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망부석 모양이 마치 남편을 바

30)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이곳의 한 사람이 행상 나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산에 올라가 바위에 앉아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혹시 밤에 다니다 해를 당할까 걱정하면서, 흙탕물의 더러움에 비유하여 노래를 불렀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올라가서 기다리던 돌은 望夫石이라 부르고 있다. 高麗史 樂志二 三國俗樂 百濟 <井邑>.

31) 망부석 설화는 2 3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세계 도처에서 많이 형성되었다.<정읍사>의 경우, 『고려사』에 있는 기록과 유사하게 『동국여지승람』권34 정읍현 고적조에 망부석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望夫石 在縣北十裏…… 世傳登岫望夫石 足跡猶在. 김쾌덕, 『고려속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6, p.132.

라보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망부석이라 부르고 있다. 각 지방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설화 속 주인공은 사랑하는 임이 떠나간 후 그 임을 밤낮으로 그리움과 걱정으로 떠나간 방향을 바라보다가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고려사에 나오는 배경설화에 대해 살펴보면 행상나간 남편을 걱정하며 부른 망부의 노래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 여성화자의 정서를 살펴보자.

제1연에서 화자는 어둠을 비추는 ‘달’에 소원을 빌며 행상나간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네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달’은 ‘소원으로서의 달’이며, ‘기원으로서의 달’이다. ‘달’은 화자의 임을 지켜주고 있으며, 화자의 소원과 기원을 이뤄주는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달’ 역시 호소와 기원의 대상으로³²⁾ 화자는 남편의 긴 기다림을 달을 보며 참고 희망을 찾으려 한다. ‘썰재를 다니는’ 에서 볼 수 있는 힘들고 위험한 상황은, ‘달’에 투영된 화자의 간절하고 애절한 여인의 마음 속 희망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다녀올 것처럼 보인다. ‘달’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김명수도 이 달에 대하여, 달은 종종 현실 조건의 초월의식으로서 존재하게 되며, 절대자를 상실한 공간에서 인간과 맞닿는 마지막 기항지로 나타난다고 말한 바 있다.³³⁾ ‘달’이 그만큼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화자가 남편을 기다리는 애뜻함과 간절함의 소망이 무겁게 느껴져서일 것이다. 달의 능력으로 인해 화자는 기다리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것으로 믿게 되고, 그 기다림의 태도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연에서 여성 화자는 임의 귀가가 늦어지자 초조한 마음에 사로잡혀, 혹시 남편이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지극한 정성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임의 안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 화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그저 임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것 뿐이다. ‘즌더’에서는 나쁜 곳에 디딜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나타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썰’의 표기상의 문제와 ‘즌더’의 해석상의 문제로 논의가 있어왔다. 먼저 ‘썰’의 표기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³⁴⁾ 일반적인 해석으론 소망과 기원의 대상인 ‘달’을 보며 혹시

32) 김수희, 「고전시가에 나타난 달의 의미」,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51~52.

33) 김명수, 「한국시와 달의 이미지」, 『현대문학』, 1979, pp.324~325.

남편이 어떤 문제나 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애처로운 마음과, 임의 안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 화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로 그저 임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달’이 지켜주기만을 바라는 것으로 보며, 이는 ‘즌디를 드디올 세라’의 해석이다. 또는 ‘즌디’를 ‘다른 여자’를 상징하는 말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남편을 유혹하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재물을 노리는 강도가 될 수도 있지만, 배경설화를 결합하면 남편이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관점에 찬동한다.

제3연에 ‘어느이다 노코시라’는 당부와 우려의 마음이 표현된 구절이 있다. 어느 여자에게 임의 마음을 놓고 있느냐는 의구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건이 많아서 힘이 들면, 아무 데나 그 짐을 놓고 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임이 혹시 ‘즌디’를 디딜까봐 불안해하던 여성 화자의 심리가, 역시 남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나타나 있다. 비록 그런 우려와 의구심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잃지 않는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정읍사>에서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캄캄한 어둠과 불확실한 세계는 여인네의 암담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 속에 ‘달’의 모습은 긍정적인 ‘밝음’의 세계로 가는 통로인 것이다. 어둠을 밝혀주고 임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기다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곡>

비오다가 개야 아 눈하 디신 나래
 서린 석석사리 조빈 곱도신 길헤
 다롱디우셔 마득사리 마두너즈세 너우지
 잠짜간 내 니를 너겨
 깃든 열명길헤 자라오리잇가
 종종 霹靂 아 生 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모미
 종霹靂 아 生 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모미

34) 차주원, 「고려속요의 정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36.

내님 두옴고 년 피롤 거로리
이러쳐 더러쳐
어러쳐 더러쳐 期約이잇가
아소 님하 혼디 녀젓 期約이이다

<이상곡>의 선행연구를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최철의 “임을 잊지 못하는 여인의 恨과 이에 따르는 고독한 정황이 노래 전반에 담겨 있다”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분석하겠다.³⁵⁾ 작품 속에 임의 부재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송사에서 獨守空房의 여인이 짓는 閨怨詞와 비슷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1행~5행은 임의 부재로 인해 외롭게 살아가는 수절하는 여인의 고독을 드러낸다. 비와 눈, 서리, 굽이진 길로 외부에 왕래할 수 없는 험한 날씨를 표현한다. 서리를 밟으며 오는 좁고 구부러진 길을 마다하고 찾아올 이가 없다는 것을 화자가 인식하는 것이다. 밤이 새는 것도 모르고 밤을 홀로 보냈고 아무 소식도 없는 야속한 임이지만 자연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는 임이 오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결국 자기 곁에 자러 올 사람이 없다고 한탄한다. 외로운 여인의 처절한 고독감을 표현한 부분이다.

6행~10행에서는 방황과 갈등이 여인의 마음속에 드러나 있다. 화자가 좌절에 빠진다. ‘년 피’는 임이 아닌 다른 남성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내 잠깐 동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한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러면서 죄의식을 갖게 된다. 10행에서는 ‘임’에게 용서를 구한다. 임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화자는 “내가 당신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겠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제가 당신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³⁶⁾ 그리고 자신 스스로 ‘곧 지옥에 떨어져 죽을 이 몸(종종 霹靂벽력 生陷墮無間성함타무간)’이라고 반복해서 여성의 정절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곧 죽어질 내 몸이니 다른 사람을 절대로 모시지 않고 저승에 가서 내 임을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떠난 임을 기다리다가 다른 임을 생각했으니 벼락치는 무간

35) 최철, 앞의 책, p.259.

36) 정태성, 「고려속요에 나타난 여성화자의 의식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3, p.73.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다. 방황, 갈등, 고독한 삶에서 자신의 결단을 얻었다. 입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입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식어가는 자신의 사랑과 기다림을 내세를 통해서라도 극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³⁷⁾

11행~13행에서는 입과 함께 하고자 합일을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자신의 의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자 신념에 대한 재인식이다. 입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음을 주장하고, 화자 자신의 삶에서 얻은 진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갈등의 상황을 유연하게 극복하고자 한다.³⁸⁾ 이는 화자가 입에게 결백을 주장하며 입과 함께 하고자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표현이다.

<이상곡>은 속요 작품 중에서 여성 화자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입’의 부재를 통감하고 재회의 길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性を 죄악시하여 여성에게 성적 억압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상곡>의 여인은 순종적으로 ‘입’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성 화자는 ‘입’의 부재 상황에서 또 다른 입을 향한 애정의 갈등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입’을 따르기로 한다.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고단했던 삶을 버텨 나가고자 했던 여인의 마음과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정서를 억압해야 했던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³⁹⁾ 현실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만전춘별사>

어름우희 땃넙자리보와 님과나와 어러주글만녕
어름우희 땃넙자리보와 님과나와 어러주글만녕
情(땃)둔 오늬밤 더되새오시라 더되새오시라

耿耿孤枕上에 어느즈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흐니 桃花 | 發호두다
桃花는 시름업서 笑春風호는다 笑春風호는다

37) 조수현,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연구: 표현 방법과 정서 표출방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54.

38) 김상우, 「고려속요 화자 연구 : 화자 태도 유형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78.

39) 조수현, 위의 논문, p.55.

넋시라도 님을 혼디 녀넋뵈너기다니
넋시라도 님을 혼디 녀넋뵈너기다니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디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곳얼면 여흘도 뎡흐니 여흘도 뎡흐니

南山에 자리보와 玉山을 베티어
錦繡山니블안해 麝香각시를 아나누어
南山에 자리보와 玉山을 베티어
錦繡山니블안해 麝香각시를 아나누어
藥든 가슴을 맛초읍사이다 맛초읍사이다
아소님하 遠代平生에 여힐솔 모락읍새

<만전춘별사>에서 주목할 것은 고려속요에서는 드문 자연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갈등은 임과의 이별에서 시작한다. 작품 속의 화자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로 임과의 사랑을 내세우고 있다.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남녀 간 적극적인 애육의 표현도 드러낸다.

1연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표출하고 있다. 얼음 위의 뗏자리와 같은 혹독한 조건이라도 임과 함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정과 임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하길 바람이 그려진다. 화자는 솔직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2연은 임이 없는 외로운 밤을 노래한 것으로 1연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별로 인해 고통과 그리움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한다.

화자의 불안감과 절박함이 사랑하는 '임'과의 헤어짐이라는 현실로 다가온다. 돌아와야 할 임이 오지 않자 화자는 전전반측 잠 못 이루며 외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서창을 여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 기다림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반면, 창밖에 핀 도화의 소춘풍은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화자는 눈앞에 핀 桃花를 보며 임의 부재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애처로운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풍경과 대조를 이루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버림받

은 화자의 외로움이 더욱 심화된다. 같은 표현방식으로 ‘桃花笑春風’의 구절은 중국 시나 사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시나 사에서 桃花는 여성을 비유한다. 항상 ‘人面과 桃花’가 같이 나타난다.

人面桃花은 원래 唐代의 시인 崔護의名句 “그리운 님 어디로 가셨을꼬? 복사꽃만 봄바람 속에 웃고 있네.(人面不知何處去, 桃花依舊笑春風)⁴⁰⁾”에서 유래하였다.

기존 연구 중에는 도화와 춘풍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도화는 에로티시즘을 표상하는 꽃으로 춘풍은 남자, 도화는 요염한 여자, 도화꽃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이 접촉은 남녀 간의 정사를 상징하는 것으로⁴¹⁾ 풀이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桃花笑春風’라는 구절은 임의부재와 ‘耿耿孤枕上’에 대비하여 외로움과 시름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3연은 헤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죽어 혼백이라도 입과 함께 하겠다는 합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다. ‘뉘이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자고 맹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라는 것은 화자의 절규이다. 생과 사를 초월하여 합일을 약속했던 과거였다. 그 약속의 주체는 입이었으나 스스로의 맹세를 어기고 현실은 生과 死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다.

4연은 입의 여성편력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고 있다. ‘비오리’는 바람둥이의 속성을 지닌 입이다. ‘沼’는 화자며 ‘여홀’은 다른 여인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홀란 어디두고 소해 자라 온다.”라고 묻는 것은 입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보다 오히려 다시 떠날 것 같다는 불안의 정조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⁴²⁾ 그리고 입의 자유분방한 태도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심정을 드러낸다.

5연은 1~4연까지 보였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며 가상 속에서 입과 나와와의 합일을 기원하고 있다. 입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화합을 원한다. 이는 화자가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안정을 구하려는 보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실제 자연이 아니라 화자의 상상 속에서 창작된 자연(남산, 옥산, 금수산)이 등장한다. 이는 화자의 상사병 때문임은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南山’과 ‘玉山’ ‘錦繡山’은 각각 ‘따뜻한 아랫목’과 ‘옥 베개’, ‘금수비단 이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편안하

40) 去年今日此門中, 人面桃花相映紅. 人面不知何處去, 桃花依舊笑春風. - 《題都城南莊》崔護.

41) 나정순, 『고려가요에 나타난 성과 사회적성격』, 박노준 외, 『고전시가 읽어읽기』, 태학사, 2003, pp.307~308.

42) 김쾌택, 『고려속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6, p.375.

고 안정된 입과 함께 하는 상상 속에서 미화된 공간이다.

6연에서는 “아소 님하 원대평생애 여힐솔 모르옵새”와 같이 입과의 영원한 삶을 회구하며 끝맺음하는 결사로서 1~4연에 보이는 대립과 갈등을 부정하고 해소하며 이별 없는 사랑을 다짐한다. 그리고 5연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다. ‘遠代平生’이라는 어휘를 통해 입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이별해 있지만 기다림의 정서 속에 입과의 합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화합을 갈망하는 고려 여인의 끈질긴 생명력을 볼 수 있다.

<만전춘별사>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입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도 갈등과 고뇌를 극복하려는 긍정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⁴³⁾ 입과의 이별이 없는 영원한 화합을 바라며 고독과 좌절을 견디고 입과 함께 하는 이상향을 꿈꾸며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솔직한 태도를 보여준다. 자신을 버렸던 입에 대한 원망도 솔직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첫째 연 ‘맺님자리보와’ 넷째 연의 ‘소해 자라 온다.’라는 구절, 5연 ‘麝香각시를 아나누어 藥든 가슴을 맞초옵사이다’ 등 남녀상열의 노골적인 애육을 드러낸 내용도 등장하였다.

이런 남녀상열의 적극적 애정행위는 <쌍화점>에서도 드러난다.

<쌍화점>

雙花店쌍화덤에 雙花쌍화 사라 가고신던

回回회회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슴미 이 店덤 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샷기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둥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 더ㄴ터 땃거츠니 업다

三藏寺삼장스에 물 혀라 가고신던

43) 이승재, 「향가와 속요 기원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47.

그 덜 社主샤쥬 |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물스미 이 덜 밧끼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샷기上座상좌 |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등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끼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끼 잔 덕ᄃ티 뵈거츠니 업다

드레우므레 므를 길라 가고신던
우똥 龍룡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우믈 밧끼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드레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등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끼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끼 잔 덕ᄃ티 뵈거츠니 업다

술 풀 지뵈 수를 사라 가고신던
그 깃 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집 밧끼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식구비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등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끼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끼 잔 덕ᄃ티 뵈거츠니 업다

<쌍화점>은 고려 시대의 타락상을 노골적인 표현을 통해 풍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이 많이 있지만 그 관점을 보는 동시에 그 시대 향락적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노래이고 남녀 간의 애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자유분방한 여인의 사랑도 드러낸다.

각 연에서 상점, 절, 우물, 술집의 배경으로 4명의 남자가 등장하고 여인의 손목을 잡았다. 손목을 잡았다는 행위는 문자 그대로 손목을 잡았다는 행위 이상의 것으로 즉, 잠자리를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4연에서는 회회아비(고려에 와 있던 몽고인)와의 밀애, 절의 사주(승려)와의 밀애, 우물의 용(임금)과의 밀애, 술집 아비(술집 주인을 비롯한 장사꾼)와의 밀애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등장하는 ‘회회아비, 사주, 용, 술집주인’ 등은 당시의 사회계층을 비유하는 요소이다.

우물의 용의 정체를 군왕을 상징한다는 견해로 보면 왕의 타락, 승려의 타락을 표현하는 것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노골적인 표현을 통해 풍자한 작품이라는 점과 여성화자의 적극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견해도 있다.

후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고려 사회의 성 풍속이 자유분방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보수성과 달리 자유분방하였다.

각 연에서 반복되는 후렴부분에서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라는 구절, 또 다른 화자2를 등장하고 화자1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갈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나치게 대담한 발언이다. 마치 여성 1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들린다. 굳이 손목을 잡는다는 완곡한 표현을 쓴 여성 1과 또 다르게 이제는 내놓고 자러 가겠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향락적 잠자리에 자신도 가서 자고 싶다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남성과의 동침을 원하는 적극성을 보여준다. 호기심에 끌려서가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욕망으로 표출되고 있다. 당시 여성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일정한 수위를 넘어 자유스럽고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후렴구로 ‘그 잔 더기 더거츠니 업다’에서 ‘더거츠니’를 ‘지저분한가’라고 보지 않고 이기문은 ‘茂’를 ‘울창하다’, ‘무성하다’로 규정한 바 있고, 서재극 또한 『百聯抄解』의 해석을 들어 ‘더거츨 茂’로 밝혀낸 바 있다. 그것은 곧 ‘그 잔 데 같이 무성한 곳이 없다’의 의미가 되는데, 작품의 정황을 살려서 재해석하면 ‘무성하고 아늑하게 둘러 쌓인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없다’와 같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淫事의) 열기로 인해 덥고 (호흡이) 거친 곳도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 화자는 자신이 겪었던 그 性的현장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44) 정자중, 「고려속요에서 나타난 화자 인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54. 재인용.

또는 다른 화자 2와 화자 1의 대화를 보면 화자 1의 행위는 손목을 잡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왜냐하면 거부나 뚜렷한 반항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 나아가 화자 2는 그러한 화자 1의 행위를 동경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작품에 드러난 남녀상열적 내용은 그 시대 민중들의 자유로운 성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민중들 또한 이 노래를 부르며 남녀상열적 내용을 즐겼을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민요로 불리어지던 쌍화점이 궁중 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고려시대에 국제성과 개방적 포용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회적분위기가 조선시대보다 개방적이다. 여성의 지위도 조선시대보다 높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문화도 자유분방한 편이다. 성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개방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서의 면모를 지닐 것이다.

<쌍화점>은 고려속요 작품 중에서 시대상황과 고려시대 성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표현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생고뇌의 感傷

<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
밀위랑 득래랑 먹고
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렁공 더렁공 호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예 올라서
힉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취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잡스와니 내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청산별곡>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승명은 외척, 권신의 발호, 외척의 침입 등 겹치는 내우외환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고려인들이 언젠가 훗날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청산과 바다로 피하며 부른 노래가 <청산별곡>이라고 하였다.⁴⁵⁾

신동욱은 농토를 잃었거나 농사일을 할 수 없는 불행한 농민,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배계급의 가혹한 수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빼앗긴 유민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심정에 실어 토로한 노래가 바로 <청산별곡>이라고

45) 이승명, 『靑山別曲研究』,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1, p.134.

하였다.⁴⁶⁾

박노준은 고종 때의 산과 바다로 난리를 피하며 헤매던 힘없는 평민 피난민이 지은 노래이라고 보았고⁴⁷⁾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인생의 고뇌와 관련한 주제로 본다.

<청산별곡>의 화자는 속세를 떠나 청산에 머물고자 한다. 그러나 청산에서도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화자는 다시 새로운 도피처인 바다로 떠나지만, 자신의 제약된 운명을 확인하고는 결국 현실 세계로 회귀한다.

<청산별곡>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은 고려 말 민중들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 당시 오랜 기간 이어진 몽고의 침입과 무신의 난과 탐관오리 등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백성들은 내란 또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니며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했다. 고종41년 12월 기록에 ‘굶어죽은 자가 이미 여항(閭巷)에 찻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국가정책에 의해 강제로 거처를 옮기는 일도 있었다. ‘고려사’를 보면 고종 19년 몽고의 2차 침입 때 강화로 천도하면서 “又遣使諸道徙民山城海島” (『고려사』, 卷129, 列傳第42, 叛逆3, 崔忠獻條.)라 하여 이주를 명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괴로운 현실을 떠나 청산에 왔지만 청산은 화자의 시름을 해결해주지 못했다. 새가 울 듯 자신도 우는 모습, 돌에 맞아 아파하는 모습 등에서 화자가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화자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 새롭게 지향해야 할 곳이 떠오르지 않은 화자는 몸은 청산에 머물며 마음 먼저 새에 실어 떠나보낸다.⁴⁸⁾

화자는 두 번째 도피처로 바다를 선택하지만, 이곳 또한 화자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깎대에 올라서

46) 신동욱, 「청산별곡과 평민적 삶의식」, 『고려가요연구』, 1982, pp.1~35.

47) 박노준, 「청산별곡의 재조명」,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pp.93~102.

48) 허남춘, 『황조가에서 창산별곡 너머』, 보고서, 2010, p.150.

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청산별곡’ 속 ‘에정지’와 ‘물아래’는 도피처와 현실을 연결하는 갈래 길로 볼 수 있다. ‘에정지’를 에둘러 가는 갈래 길이라고 한다면 당시 이런 갈림길에서 놀이패나 악사와 같은 유랑예인들이 터를 잡고 공연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갈림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공연을 보고 해금의 선율에 마음이 움직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⁴⁹⁾

화자는 바다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작품 속에서 현실, 도피, 다시 현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갈래 길들은 화자의 고뇌와도 맞닿아 있다. 인생에 대한 괴로움은 곧 도피로 이어졌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운명의 시름은 다른 세계로 도망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는 결국 현실로 돌아와 술로 마음을 달래며 인생에 순응한다. 마지막 연에서 술의 누룩이 매워 자신을 붙잡으니 어찌하겠냐는 구절에서 화자의 소극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현실의 번민을 더 이상 이상세계가 아닌 술 등으로 달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3) 憂民忠君의 현실적 문제

고려시대는 대·내외적으로 시련의 시기였다. 중앙집권적 봉건제도가 강화되어 백성들은 가중되는 수세와 잦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전란과 군역에 시달렸으며, 이런 상황은 무신의란을 전후로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민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모순과 억압이 팽배한 사회 안에서 내적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갈등양상은 문학, 특히 민요와 개인창작의 시를 통해서 드러난다. 고려속요에서 현실적 봉건사회의 기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과 지주 계급 사이의 갈등의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규보의 한시와 이재현의 속요의 변역인 ‘소악보’에서 엿볼 수 있다. 아래는 이규보가 농민을 동정하는 시이다.

<代農夫吟二首(농부를 대신하여 읊는다)>

49) 허남춘, 앞의 책, p.143.

帶雨鋤禾伏畝中 비 맞고 김을 매며 밭이랑에 엎드리니
 形容醜黑豈人容 검고 추악한 물골이 어찌 사람의 모양인가.
 王孫公子休輕侮 왕손공자들이여, 우리를 업신여기지 마소
 富貴豪奢出自儂 그대들의 부귀호사, 우리들로부터 나온단다.

新穀青青猶在畝 시퍼런 새 곡식 아직도 채 밭에 있는데
 縣胥官吏已徵租 현의 서리들은 벌써 조세를 징수하는구나.
 力耕富國關吾輩 힘껏 일한 부자 나라 우리들에게 달렸는데
 何苦相侵剝及膚 어찌 이다지도 빼앗으며 살마저 벗겨 가는가.

농부를 화자로 하여 농민의 정서를 대변한 시이다. 생산으로 인한 노동에 찌든 농민의 검고 추악한 물골과 왕손공자의 부귀호사를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농민의 분노 서린 육성을 들려주고 있다. 직설적인 표현이 농민의 투박한 형상과 어울려서 심금을 울려주는 작품이다.

‘팔자 좋게 부를 누리는’ 지배층과 달리 ‘누더기로 겨우 살을 가리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농사를 지었지만’ ‘남김없이 뭇땅 빼앗기고 말아 풀뿌리를 캐어 부지하다가 굶주려 쓰러지고 마는’ 농민의 아픔을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첫 聯에서 작가는 ‘농부의 땀에 찌든 물골’과 ‘왕손공자의 부귀호사’ 이 두 가지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대립적인 현실의 관계를 매우 현명하게 형상화시키고 있다. 국부의 원천인 농부를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酷吏에게 시달리는 농부들을 동정하고 있다.

또는 오랑캐에 대한 憎惡의 시는 오랑캐의 침입을 당한 그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잘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적극적으로 오랑캐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낸 시편을 보자.

<聞達旦入江南>

北俗不習南 북쪽 풍속이 남쪽에 익숙하지 못한네
 胡爲入炎洲 어째서 남쪽으로 들어 왔다
 忍令萬民食 차마 만백성의 밥으로
 肥澤一邦舊 한 나라의 원수를 살찌게 하라
 嬰城雖首策 성을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이지만

| | |
|-------|----------------------|
| 清野亦良籌 | 들을 비우는 것도 좋은 계책이리라 |
| 安得天上劍 | 어떻게 하늘의 칼을 얻어다가 |
| 一時墮胡頭 | 일시에 오랑캐들 머리를 자를까 |
| 今隨白刃落 | 날카로운 칼날로 모조리 떨어뜨려 |
| 跳轉如圓毬 | 둥근 공을 차듯이 굴러 버릴까 |
| 不然大海水 | 아니면 대해의 물을 |
| 傾注使漂流 | 갓다 대어 떠내려 가게 하고 |
| 化爲魚與鼈 | 고기와 자라가 되게 하여 |
| 化膾我民喉 | 회 만들어 우리 백성들 먹게나 할까? |
| 此言亦迂闊 | 이 말이 또한 엉뚱하기는 하나 |
| 天意非人謀 |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꾀는 아닐까 |
| 但願皇上帝 | 다만 원하옵건대, 옥황상제께서는 |
| 悔禍無盡劉 | 화난을 깨우치어 다 죽이지는 마옵소서 |
| 嗚呼何更陳 | 아아, 무엇을 더 말하리 |
| 淚流紛難收 | 흐르는 눈물 그칠 줄 모르네 |

오랑캐가 강남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쓴 이 한편의 시는 오랑캐에 대한 강한 敵愾心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하늘의 칼을 얻어다가 단번에 오랑캐의 목을 자르고 싶은’이라는 내용의 표현이나 ‘모조리 회로 만들어, 백성에게 먹이고 싶은’이라는 표현의 한스러움은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드러나 있다. 현실적으로는 나약한 文人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약소국의 지식인으로서, 당장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한 편의 시로 승화한 것이다.

또는 그가 70세 때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노장’(老將)에서

| | |
|---------|-------------------------|
| 報國壯心長凜凜 | 국가에 보답하려는 장한 마음 길이 늠름하여 |
| 夢中鳴鏑射戍王 | 꿈에서도 활 쏘아 오랑캐 두목 맞춘다네 |

라고 하는 애국심도 찾아볼 수 있다. 송나라에서 나온 애국 사나 애국 시와 비슷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익재소악보는 당시 민간에서 널리 불러 함께 공유되던 노래의 한역이므로 민간 생활과 백성들의 사상과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樂志」에 해제된 小樂府 작품을 『益齋亂稿(卷第四)』에 전하는 순서에 따라 살펴본 李齊賢은 주로

민생고(長岩, 沙裏花, 北風船)와 불교의 부패(水精寺)에서 온 승려들의 과거행위를 풍자한 수정사를 살펴본다.

<長岩>

拘拘有雀爾何爲 조그만 참새야 너는 어이해,
觸著網羅黃口兒 그물에 걸려 울부짖느냐?
眼孔元來在何許 멀쩡한 눈은 어디 두고서,
可憐觸網雀兒癡 어리석게도 그물에 걸려들었느냐?

노래는 『高麗史』「樂志」⁵⁰⁾에 <장암>이라 제목하고 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참새 새끼가 헛눈을 팔다가 그물에 걸리는 것으로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표면적인 정서는 그물에 걸린 어린 새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지만, 고려사 악지의 기록을 보면 평장사 杜英哲이 일찍 장암으로 귀양을 갔는데 그 곳에서 한 노인과 친하게 지냈다. 노인은 그에게 관직에 나아감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두영철은 그후 다시 관직에 올랐다가 또 다시 귀양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노인이 그의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풍자하여 노래를 불렀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당시의 민중들의 생활모습을 더 폭넓게 해석해 볼 수 있다. 벼슬에 눈이 어두워 한 치의 앞을 못 보는 인간사회를 새가 그물에 걸리는 어리석음에 비유하여 벼슬길에 대한 경계심을 주제로 풍자 한 것이다.

<沙裏花>

黃雀何方來去飛 참새야, 어디서 날아와서는
一年農事不曾知 일년 고된 농사 알지 못하고
鰥翁獨自耕耘了 늙은 홀아비 홀로 지은 농사인데.
耗盡田中禾黍爲 쌀, 기장 모조리 먹어치우느냐?

이 노래는 <沙裏花>라 제목하고 『高麗史』「樂志」에 부과되는 조세는 많고 무거워 官의 수탈이 심해서 백성들은 이로 인하여 빈곤해졌다. 세금 징수에 대해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그것을 원망하는 노래를 지었다. 李

50) 平章事杜英哲嘗流長嚴與一老人相善及召還老人戒其苟進 英哲諾之後位至平章事果又陷罪貶過之老人送之作是歌 以譏之 ... 『高麗史』七一, 樂二, 俗樂, 長嚴.

齊賢의 한시로 飜解하였다고……51) 해석하였다. 세금이 무겁고 관의 수탈이 심하여 백성이 가난해지는 것을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데 비유하여 읊은 노래다. 표면적으로 보면 늙은 노인의 한탄이다. 애써 지어놓은 일 년 분의 농사를 무심한 참새가 날아와 전부 먹어치우려 한다.

이 한역시에서 작가는 백성을 수탈하는 통치자들에 대해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에 비유하였으며, 일 년 내내 힘들게 고생해서 농사지은 곡식을 한 톨도 수확하지 못하는 鰥翁의 입을 빌어 하층농민들의 중앙통치자에 대한 불만스러운 정서를 표현했다.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백성들에게는 무관심한 통치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시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문장마다 내포된 깊은 뜻이 있다. 진실하게 당시 상황과 농민의 삶을 반영하였으며,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백성들의 심정과 정서를 표현하였다. 작가는 백성의 입장에서 당시 사회 현실에 만연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반영하고 사유하였다.

다음 두 곡 노래는 『益齋亂稿』에 전하는 후 2수의 한 작품으로 제목이나 작자를 밝히지 않은 채 기록하고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내용 중에 나온 단어를 취해 이 후 2수 가운데 첫 번째 것을 <水精寺>, 다음 것을 <北風船>으로 불러둔다.

<水精寺>

都近川顔制水坊 도근천의 제방이 무너져,
 水精寺裏亦滄浪 수정사까지 물이 넘실넘실,
 上房此夜藏仙子 상방엔 오늘밤 선녀를 숨겨놓고,
 社主還爲黃帽郎 절 주인이 황모 쓴 신랑이 되었네.

이 작품은 절 주인이 절간 상방에 아리따운 여인을 숨겨 놓고 몰래 사랑을 나누는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읊은 것이다. 이 노래에 나오는 도근천⁵²⁾은 제주도 근처에 있는 내 이름이며 수정사는 도근천 서쪽에 있다. 당시 승려가 파계하고

51) 『高麗史』, 卷七一張36 志第二五樂二, 俗樂條- 賦繁重 豪強奪 攘民困 財傷 作此歌托黃鳥啄粟以怨之李齊賢作詩解之曰
 52)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 濟州牧, 山川- 都近川: 在州西十八裏 一名水精川 一名朝貢川 州人語澁 都近字即朝貢字之誤 岸壁高險瀑布飛流數十尺 其下潛入之中 至七八裏湧出石間 遂成大川 末流稱都近浦有深淵 有物狀如狗 潛伏變化 視人寶物 攪入淵中, 서수생,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79, p.245. 재인용.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에 기생들은 일반 사대부들보다 승려를 따르는 이가 많았다. 당시 세태를 반영한 제주민요를 한역한 노래다.

수정사는 젊은 여자가 富沙門, 즉 재산 많은 절 주인에게 시집을 감으로써 절 주인은 황모 쓴 신랑이 되어 상방으로 신부를 맞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젊은 여자는 단순한 탕녀가 아니고 몰락과 빈궁에서 생계를 찾아 부득이 몸을 파는 것이다.⁵³⁾ 李齊賢은 이것으로 당시 백성들의 삶의 고단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國家精神의 바탕이었던 고려에서 매우 신랄한 풍자의 노래다.

이 노래는 제주민요를 한역한 것으로 불교의 부패에서 온 사원 승려들의 파계 행위를 풍자하였고, 일반 서민들이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려 탕녀가 아닌 여인들이 빈궁에 못 이겨 생계를 찾아 부득이 몸을 파는 가파른 세파를 고발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北風船>

從教壟麥倒離披 밭두둑의 보리 이삭 엎어진 채 두고,
亦任丘麻生兩岐 언덕의 삼도 제멋대로 자라게 두었네.
滿載靑瓷兼白米 도자기와 흰쌀을 가득 싣고서
北風船子望來時 북풍에 배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네.

北風船은 지어진 연대나 原歌가 미상인 노래다. 고려말 益齋 생존 당시에 유행했던 제주민요인 것으로 추측된다. 李齊賢은 <北風船>에 대한 “탐라의 이 곡은 매우 鄙陋하나 가히 민풍을 바라보고 시변을 알 수 있게 해 준다”⁵⁴⁾ 라고 했다. 이 민요의 해설을 보면 “탐라는 땅이 좁고 백성들이 가난하다. 이전에는 전라도에서 도자기와 쌀을 팔러 오는 상인들이 가끔 올 뿐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었으나, 지금은 관사(官私)가 들을 덮어, 경작하고 개간할 땅이 없는데다가 오가는 벼슬아치들의 행렬이 빈번하여 그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데 시달리니 이는 그 백성들의 불행이다. 이 때문에 탐라에서 자주 변란이 일어난다.”⁵⁵⁾

53) 김미영, 「소악보의 국문학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이제현과 민사평의 작품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62.

54) “耽羅此曲，極爲鄙陋，然可以觀民風知時變也。”『益齋亂藁』卷四，小樂府。

55) 耽羅地狹民貧，住時全羅之賣，販甕器白米者，時至而稀矣，今則官私牛馬，蔽野而靡所耕墾，往來冠蓋，如而困於將迎，其民之不幸也，所以屢生變也。

탐라인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반영한 민요이며 해석에 의해 당시 백성들 가난의 원인이 제시되었다. 관청에서나 부호들이 풀어 놓은 마소가 들을 뒤덮어 농사지를 땅조차 없는데, 그래도 심어놓은 보리를 다 쓰러뜨려 낱알 구경하기 어렵고 옷감을 짤 유일한 재료인 삼은 가지가 벌어졌으니 실을 만들기 어렵다. 衣食이 낭패다. 生必需品을 물의 장사치에게서 얻어야 하는데 北風이 부니 그들마저 올 리 없다. 그런데도 이제나저제나 배가 오나 물을 향해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동자에는 흰빛만 더할 것이다.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아랑 곳 없이 마소를 놓아기르는 官人和 豪富, 지친데 더 지치게 영접토록 하는 물에서 들락이는 높은 벼슬아치들, 이들의 대조는 백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 때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변을 일으키게도 하였던 모양이다.⁵⁶⁾

제주도 주민들이 종래 物産이 별로 없어 물에서 특히 전라도 쪽에서 장수들이 용기와 백미를 팔러 오면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 그나마 자주 올 수 없었으므로 북풍이 불어 보내는 이 배를 항상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몽고의 목장이 설치된 뒤로 官私의 우마가 논과 밭을 덮어 현지 백성들은 경작할 땅조차 없게 되고 드나드는 관리들은 복채를 이루어 더욱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여러 차례 變故가 일어났다⁵⁷⁾는 내용이다.

앞의 주(注)를 통해 우리는 시의 제1, 2행이 원나라의 일본정벌 계획과 관련하여 탐라의 산야가 목장화되는 바람에 백성들의 경작지가 황폐해진 현상을 노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3, 4행은 탐라 백성들의 열악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水精寺> <北風船>에서 당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드러낸다.

宋詞에는 현실비판 주제의 노래가 드물다. 그런 주제의식을 시로 해소하였다. 송사가 상층의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랑, 그리움, 임금에 대한 忠, 亡國의恨 등을 담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속요도 상층의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랑, 그리움, 忠君의 주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漢譯詩에는 현실비판의식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하층의 노래인 민요에는 현실비판

56) 尹榮玉, 『고려시가의 연구』, 嶺南大學出版部, 1991, p.63.

57) 李佑成, 『高麗末期의 小樂府 -高麗俗謠와 士大夫文學-』, 韓國漢文學研究 第1輯, 1976, p.12.

의 주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민요를 저본으로 한 경우 특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익재소악부에는 속요를 번역한 것과 민요를 번역한 것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水精寺> <北風船>도 민요를 한역한 것이다.

다음은 충군을 주제로 한 <정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과정>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山楸동새 난 이숫호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아으
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도 허물도 千萬 업소이다
물헛 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호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

<정과정>은 고려조 정서가 지은 노래로서, 고려 속요 중 작자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 노래이다. 정서는 호가 과정으로 고려 제17대 인종과는 동서 사이로 궁중에서 막강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 蔭仕로 환로에 나아가 벼슬이 정 5품 현직인 내시랑중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의종 5년 정함과 김존중 등 폐신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동래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가 귀양 갈 적에 의종은 정서에게 “조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대를 귀양 보내나 곧 소환하겠다.”⁵⁸⁾는 언약을 했다. 그러나 정서와 반대의 입장에 있던 정함 등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으나 그들은 곧 소환된 반면, 정서는 소환되기는 커녕 같은 왕 11년 거제로 다시 유배 되었으며, 결국 의종이 정중부 등 무신 일파에 의하여 피축된 후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야 소환될 수 있었다.⁵⁹⁾

<정과정>의 시적 화자는 여성이므로 이 노래의 작자와 노래가 생성된 시대적

58) 『고려사』 권71 악2 속악조. (.... 今日之行 迫於朝議也 不久當召還....)

59) 김쾌택, 앞의 『고려속가의 연구』, p.134.

상황과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노래는 한을 간직한 일반적인 사랑노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⁶⁰⁾ 생각할 수 있다.

여성화자는 애상적 목소리로 자신의 정서를 ‘내님을 그리워해서 울고 있더니’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심정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접동새’에 비유하고, 접동새의 비극적인 전설을 자신의 처지와 일치시키며, 피를 토하면서 밤새도록 서럽게 우는 모습에서 화자는 접동새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비극적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였을 것이다.

3행에서는 화자는 결백함을 호소하며, 죄를 짓고 임의 사랑과 신의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해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잔월효성만이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으리라’는 표현과 ‘자신의 결백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며 결백을 주장하며 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다. 결국 모두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징표로 작용한다. 표현이 애원의 말투와 가녀린 목소리는 여성의 특성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⁶¹⁾ 작품에서는 여성화자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임을 그리워하고 열렬히 원하는지를 ‘넋시라도 임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자신을 헐뜯고 모함하는 존재가 있음을 임에게 알리면서도 ‘過님도 허물로 千萬업소이다’에서는 화자의 결백함을 보여주며, 임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원을 하기도 한다. ‘슬웃븐더’는 ‘사라지고 싶구나’의 의미의 뜻 또는 ‘슬픔을 사른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모두 여성화자 자신의 비통함과 애절함을 표현하고 있다.⁶²⁾ 이러한 감정은 마지막 행에서 더욱 고조된다.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셔셔’에서는 원망과 기원으로 또는 애원의 목소리로 ‘마음이 변해버린 임이 마음을 돌이키시어 다시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화자의 설정이라고 본다.

<정과정>은 임에게 다시 사랑해 줄 것을 간청하는 여성화자의 애절한 목소리를 사용하여 연군지정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작품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야 등장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에 와서야 문학적 관습상 여성 화자를 설정한 연군가가 가능하게 된 사정을 반영한다. 이는 한시에 있어서 남성 작가의 여성

60) 김쾌덕, 앞의 책, p.135.

61) 강명혜, 『고려속요·사설시조의 새로운 이해』, 북스힐, 2002, p.236.

62) 강명혜, 위의 논문, p.237.

화자 시가 麗末 鮮初에 나타나기 시작한 점과도 연관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⁶³⁾ 한시의 전통에서 볼 때 여성화자 시는 대체로 樂府의 전통에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詩는 오래 전부터 연주시의 한 묘사형태로서 규정되었다.⁶⁴⁾ 민간의 노래부터 궁중악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남녀의 연정은 연군가로 승화시키고 남녀의 연정은 쉽게 충신연군지사로 寓喩될 수 있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남성 작가는 여성의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심정과 요구를 대입시켜 입에게 호소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2. 宋詞에서 나온 주제의식

사는 송나라 문학을 대표하는 체제이다. 《全宋詞》 기록에 따르면 송의 사인들은 1338명이고, 훼손된 잔편을 포함해서 작품의 총 편수는 20400여 수나 된다.

이 많은 사 중에서 내용을 보면 주로 사랑, 이별의 감상이나 세상살이의 험난함,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개탄이나 나그네의 심경,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상이나 애국 우국의 현실적 주제이다. 대부분은 사인의 개인적 슬픔으로 인해 형성된 감정들이 송사의 특정한 주제를 구성한다.

1) 남녀상열과 이별·그리움

사는 송대에 가장 훌륭한 문학적 성과를 이루었고, 중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全宋詞》에 현재까지 전해지는 이만 여수의 사 가운데에서 나온 주제의식은 현실적인 애국사 이외에도 인생무상의 비애나 벼슬길의 不遇, 타향살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고려속요의 내용주제보다 더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사랑이나 이별, 그리움의 감상적 주제이다. 이는 중국 고전시가 중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예를 들면 이미 <시경>에서의 규원(남편이나 사

63) 임소영,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목소리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68.

64) 임소영, 위의 논문, p.34.

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의 원한), 그리움, 이별, 회고, 가을철을 쓸쓸하게 여겨 슬퍼함, 봄날의 경치에 끌려 마음속에 일어나는 情恨 등 기본적인 주제들이 예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달이 차면 이지러지기 마련이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나 이별의 아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담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역시 이별을 한 뒤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도 시와 사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특히 염정을 위주로 하는 송사에 있어서 이러한 소재는 작품창작에 있어서 가장 각광 받았던 소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이러한 유형의 사는 만당·송대 화간과 작가들에 의해 많이 창작되어졌고, 화간사는 만당오대사과의 한 종류이며, 화간사라 불리는 이유는 화간집에서 유래한다. 화간집은 중국 최초의 사집이다. 화간집 작자인 조숭작(趙崇祚)은 溫庭筠, 魏莊, 皇甫松 등 18명 작가의 사를 수록하였다.

보통 “사위염과” 혹은 “염사” 라고 하는데 이는 화간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화간사는 여성의 아름다운 자태나 염정을 묘사하는데 중심을 두고 향락과 感官의 자극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화간사의 영향을 받은 이유로는 화간사가 주로 화려한 언어와 婉約한 정서로써 여성의 아름다움과 의복, 정과 한을 묘사하고 향락과 보고 느끼는 자극을 추구한다. 사의 품격이 염정적이다.

화간사의 염정은 여성이 사랑을 잃고 슬퍼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로운 여성의 심정을 묘사했다고 할 수 있다.⁶⁵⁾ 이러한 특성은 송대에 이르러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앞에 이야기 한 것처럼 북송 초기 안정된 정치와 경제 환경은 북송 전기의 사인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문학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宋代 前期의 사단은 唐五代와 화간사의 詞風을 이어 發展하였는데,⁶⁶⁾ 청신하고 맑고 아름다우면서 완곡하고 뒤엀킨 감정을 싣고 있다. 풍격은 비교적 典雅하고 淸麗하며 含蓄적이었다.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반영하고 있고 유희적이다.⁶⁷⁾

65) 村上哲見, 『唐五代北宋詞研究』, 陝西人民出版社, 1987, p.105. (花間詞의 豔情을 說는 一種 被 規範 化了的 女性의 愛情 失落之情, 或者 說 描寫 的 都是 “孤獨 的 女性 的 心情”)

66) 張福洲, 『“花間”對宋詞的影響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p.18.

67) 張福洲, 위의 논문, p.18.

우선 중국 문학역사상 북송의 유명한父子 사인인 안수와 안기도의 작품을 살펴보자.

안수(991-1055)의 자는 同叔, 撫州 臨川(지금의 江西省 무주)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는데 7세 때 벌써 문장을 짓는데 능하여 신동(神童)⁶⁸이라 불렸다. 과거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황제로부터 진사를 직접 하사 받았다. 벼슬길이 평탄하여 재상과 동일한 직급의 고관을 지냈다. 정치상의 업적은 적지만, 혜안(慧眼)을 지니고서 인재를 알아봄으로써 範仲淹, 歐陽修 등 유명한 인물이 모두 그의 門下에서 나왔다. 북송의 유명한 사인으로, 작품은 참신하면서도 고상하고 정취가 풍부하다. 저서로는 사 작품을 모아 만든 《珠玉集》이 있다.

안기도(1038?-1110?)는 자가 叔原, 호는 小山으로, 임천(지금의 강서성 무주) 사람이다. 유명한 사인 晏殊의 일곱 번째 아들로, 정치적으로는 아버지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더불어 “二晏”이라 불린다. 일찍이 영창부(潁昌府) 허전진감(許田鎮監)과 개봉부(開封府) 추관(推官) 등 작은 벼슬을 지냈다. 그의 사풍은 침울하고 슬프며, 세밀하고 섬세하다. 대부분 상사와 이별을 묘사하고 임을 그리는 슬픈 감정을 쓴 작품이 많다. 문집으로는 《小山集》이 있다.

<踏莎行>(답사행)-晏殊

碧海無波, 瑤臺有路. 思量便合雙飛去. 當時輕別意中人, 山長水遠知何處.
綺席凝塵, 香闥掩霧. 紅牋小字憑誰附. 高樓目盡欲黃昏, 梧桐葉上蕭蕭雨.

벽해에 파도 없고 요대에도 길은 있네.
마음만 간절하면 쌍을 이루어 날아가네.
어이하야 그때에 쉽게 그이를 보냈던가.
산수 長遠하니 찾을 길이 없구나.

그대 앉던 자리엔 먼지가 쌓이고
규방 안에는 안개가 자욱하니
깨알같은 사연을 누구에게 전할까.
高樓에 높이 올라 황혼을 바라보니
오동나무 잎새 위에 빗방울만 소소하네.

68)“晏殊, 字同叔, 撫州臨川人。七歲能屬文, 景德初, 張知白安撫江南, 以神童薦之。”(脫脫《宋史》卷三一一, 北京中華書局, 1977.)

이 사에서 예나 지금이나 이별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움으로 채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떠나보내는 순간은 쉬울지라도 떠난 후의 막연한 그리움과 아쉬움은 너무나 애절하고 슬프기만 하니 말이다. 이 작품은 이별 후에 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할 줄 알았다면 애초에 쉽게 이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시작하고 있다. 너무나 그림고 보고 싶어 입을 찾고 싶지만 산수가 너무나 멀어서 그럴 수 없다는 절망감도 느껴진다. 그리움이 너무나 깊어 임이 머물던 방으로 가 떠난 입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쉬운 이별 후에 남은 길은 아쉬움은 당사자 이외에는 모를 것이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화자의 외로움에 빗소리가 더해져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지고 있다. 안수의 운운둔후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蝶戀花>(접연화)-안기도

醉別西樓醒不記，春夢秋雲，聚散眞容易。斜月半窗還少睡，畫屏閑展吳山翠。

衣上酒痕詩裏字，點點行行，總是淒涼意。紅燭自憐無好計，夜寒空替人垂淚。

취하여 서루에서 이별하고 깨어나니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봄날의 꿈과 가을날의 구름처럼, 만남과 헤어짐은 너무도 쉽다.

창 반 쪽으로 기운 달 비치는데 여전히 잠기운은 적고, 그림 병풍에 한가로이 펼쳐진 오산이 푸르구나.

옷 위의 술 자국과 시 속의 글자는, 점마다 줄마다, 늘 처량한 기운이 담겨 있다.

붉은 초는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만 도와줄 좋은 계책 없어, 차가운 밤 헛되이 나를 위해 눈물 흘리네.

이 사는 그리움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사로, 먼저 취한 정경은 창 가운데 달이 기운 추운 밤이다. 상편은 작가가 꿈에서 깨어난 후에 인생이 꿈처럼 구름처럼 덧없는 것임을 탄식한다. '春夢秋雲'는白居易의 사 "來時春夢不多時，去似朝雲無覓處"⁶⁹⁾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이 너무 잦은 것을 탄식한다.

하편은 즐거운 만남 이후에 남은 술자리의 흔적과 시문 '衣上酒痕詩裏字'에

69) 花非花，霧非霧。夜半來，天明去。來如春夢不多時？去似朝雲無覓處。 - 白居易，〈花非花〉。

대한 것으로 옷 위에 남은 술 자국과 시 속의 글자는 본래 서루에서의 즐거운 만남을 상징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點點行行，總是淒涼意’에서는 사물을 통해 정을 느끼고 처량함을 느낄 수 있다.⁷⁰⁾

작자는 술이 깨어 문득 깊이 취한 가운데 예전에 그 사람을 쉽게 보냈던 것을 기억해 내고, 억제하기 힘든 그리움의 정서로 후회 한다. 사 속에는 아쉬워하는 석별의 정경이 전혀 없고, 다른 일면의 언급도 없으며, 그저 작자 스스로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신을 한탄하는 작자의 모습만이 있다. ‘紅燭自憐無好計，夜寒空替人垂淚’의 구절은 바로 붉은 초가 헛되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 비유가 처량하고 비참하다.

<臨江仙>(임강선) -안기도

夢後樓台高鎖，酒醒簾幕低垂。

去年春恨卻來時，落花人獨立，微雨燕雙飛。

記得小蘋初見，兩重心字羅衣。

琵琶弦上說相思，當時明月在，曾照彩雲歸。

꿈꾸고 나니 누대는 높이 닫혀 있고, 술에서 깨니 주렴은 낮게 드리웠네.

작년 봄의 한스러움이 도리어 다시 찾아온 때에, 꽃은 지고 나 홀로 섰는데, 가랑비 속에 제비 쌍쌍이 날아가네.

소빈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니, 마음 십자 아로새겨 향기 쏘인 두 겹의 비단옷을 입었었지.

비파줄 위에서 그리움을 노래하니, 당시에 밝은 달은 떠서, 일찍이 돌아가는 채색 구름을 비추었지.

이 사는 안기도의 대표작으로 임에 대한 그림을 노래한 상춘의 사이다. 《小山詞自序》⁷¹⁾에서 記載에 따라 안기도의 벗인 심염숙(沈廉叔), 진군룡(陳君龍) 집안의 연(蓮)、홍(鴻)、빈(蘋)、운(雲)라는 이름을 가진 네 명 가기에 대해 사랑을 알 수 있다. 이 사는 특히 4명의 가기 중 빈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봄날 밤, 밝은 달은 높이 걸려있고 낙화는 분분한 시절, 작자는 임이 떠나고

70) 上疆村民, 『宋詞三百首』, 雲南出版社集團, 2014, p.83.

71) “始時，沈十二廉叔、陳十君龍家，有蓮、鴻、蘋、雲，品清謳娛客。每得一解，卽以草授諸兒。吾三人持酒听之，爲一笑樂。” 宋，晏幾道：小山詞自序，旌塾存，『詞籍序跋萃編』，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4年，p.52.

텅 빈 누각에 주렴이 낮게 드리워진 쓸쓸한 정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절로 밀려오는 슬픔과 상춘의 정서는 억제하기 힘들다.

상편은 빈과 이별한 후에 그리운 마음이 가슴에 사무침을 표현한 것이다. 당나라의 옹굉(翁宏)이 지은 《춘잔(春殘)》의 “落花人獨立，微雨燕雙飛.(낙화에 나 홀로 섰는데, 가랑비 사이로 제비 쌍쌍이 날아가네.)”라는 시구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전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생생하게 그려내어 사람을 고요하고 쓸쓸하게 한다.

하편은 빈과의 처음 만남과 이별의 장면을 회상하는 것이다. 헤어져 다시 만날 기약 없는 빈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작자는 빈과의 최초 만남을 자태가 수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표현하였다. 헤어져 다시 만날 기약 없는 빈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심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전체적으로 ‘夢後’, ‘酒醒’, ‘人獨立’, ‘燕雙飛’ 라는 4가지의 독립적 장면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장면은 작자의 무한한 그리움을 포함하고 있다

<蝶戀花>(접연화) -안기도

夢入江南煙水路，行盡江南，不與離人遇。睡裏銷魂無說處，覺來惆悵銷魂誤。
欲盡此情書尺素，浮雁沈魚，終了無憑據。卻倚緩弦歌別緒，斷腸移破秦箏柱。

꿈속에 강남에 들어가니 물길은 안개 쌓여 있는데, 강남을 다 다녀보았지만, 이별한 임과는 만날 수 없구나.

잠결에 녀를 잃고 하소연할 곳 없었더니, 깨어보니 그저 슬픔만 남았을 뿐 닢 나간 것은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의 일이었네.

이 심사를 편지에 모두 적어내고 싶지만, 편지 전달자인 기러기는 높이 날고 물고기는 깊이 잠겨 있으니, 결국 부탁하지 못하누나.

천천히 거문고 타며 이별의 정을 노래하자니 슬픔이 극에 달하자 거문고 받침대가 부러져버렸네.

작자는 꿈속에서 강남으로 가서 사모하는 연인을 찾지만 그가 도달한 곳에서도 여전히 그녀와 만나기는 어렵다. 이는 다분히 사람을 상심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작자는 오히려 유달리 이 꿈속의 근심과 슬픔을 소중히 여겨 깨어나서 가슴 가득한 쓸쓸한 마음이 되길 원하지 않고 있으니, 그리움

의 깊이와 상사의 고통이 이미 억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잘 알 수 있다. 하편은 편지를 써서 부쳐도 편지 도착 여부도 알 수 없으며 도착했더라도 답장이 없음을 표현하였다. 그리운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음악으로 풀었다.

위에 있는 사처럼 《소산사》는 이백 여 수의 사 중 꿈에 대한 이야기가 오십 여 수 있다. 《소산사》의 현재 존재하는 258수 중 55수 안에 59개의 ‘夢’이라는 글자가 있고, 평균 5수 사 중에서 1수가 꿈에 대한 이야기다.⁷²⁾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많은 수량의 사집 중 매우 드문 것이다. 이렇듯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마음 속 사랑에 대한 갈망과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을 꿈을 통해서 묘사하고, 달콤한 사랑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호화로웠던 옛정을 되새겼다. 즉 작자는 꿈속에서 현실에서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표현을 자유롭게 무한하게 표현하며 현실에서의 삶에 대한 실망과 감상을 위로받고 있다.

이 사는 그리움과 이별의 아픔을 그린 작품이다. 상편은 꿈속에서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편은 현실에서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馮煦는 《宋六十一家詞選·例言》에서 안기도에 대해서 “古之傷心人(옛날의 상심한 인물이다.)”⁷³⁾라고 평가했으며 안기도의 사를 “淡語皆有味, 淺語皆有致”라고 했다⁷⁴⁾. 아래의 사에서 안기도의 傷心을 살펴 볼 수 있다.

<思遠人>(사원인) -안기도

紅葉黃花秋意曉。千裏念行客，飛雲過盡，歸雞天信，何處寄書得。
淚彈不盡臨窗滴，就硯旋研墨。浙寫到別來，此情深處，紅箋爲無色。

붉은 잎 노란 꽃에 가을 기운 저물어 가는데, 천리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
흐르는 구름은 지나가 버렸고, 돌아갔던 기러기는 아직 소식이 없네. 어디로 편지를 부칠 수 있을까?
창가에서 눈물방울 끝없이 똑똑 떨어지며, 그저 벼루에 먹을 간다.
차츰 차츰 이별한 뒤 지내온 시간을 써내려가니, 그 정이 깊은 곳에 이르러, 붉은 편지지가 눈물로 색이 바래진다.

72) 文珍, 「小山詞夢意象淺說」, 《瓊州學院學報》, 2002, p.71.

73) “淮海·小山, 眞古之傷心人也, 其淡語皆有味, 淺語皆有致。求之兩宋詞人, 實罕其匹”- 馮煦《宋六十一家詞選》例言. 양해명의, 앞의 책, p.409.

74) 鄒德金, 『名家評注全宋詞』, 天津古籍出版社, 2009, p.83.

이는 안기도의 유명한 작품으로, 이 사는 멀리 있는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 사의 내용과 사패가 마침 잘 맞아 떨어진다.

상편은 숲의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고 국화가 두루 피는 늦가을 시기에 규방 안의 여인은 가을을 타서 멀리 있는 입을 그리워한다. 천리 밖의 입을 그리워하지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편지를 부칠 곳도 없어 깊은 정을 전하기 어렵게 되자 크게 실망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벼루에 먹을 갈아 편지를 쓴다. 편지를 부칠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거듭 쓰고 있다는 것에서 그녀의 마음 속에 공존하는 치정과 厚意를 알 수 있다.

상편을 이어서 하편은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 작가들은 먹물에 고인 눈물로서 편지를 쓰고, 이별 후의 심정까지 표현하며 붉은 편지지가 눈물로 색이 바래진다. 깊은 그리움의 정을 편지에 드러냈다. 마지막 한 구절은 과장된 말투이지만 너무나도 진솔하고 슬픈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머금도록 하였다.

『고려사』악지 당악조에 나오는 가사 현전의 노래 중에 작자를 알 수 있는 것은 14수 중 유영의 작품이 8수임은 그 당시 고려의 왕실을 중심으로 귀족 계층이 얼마나 유영의 작품을 선호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영과 장선은 함께 사풍을 변화시킨 작가로, 사가 小令에서 慢詞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가로서 중요성을 가진다.⁷⁵⁾ 사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영의 작품에는 사랑하는 女人과 이별하고 이별한 후 그리움의 감정을 유영만의 독특하고 주옥같은 언어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다음에서 작자 자신이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 [妓女] 를 그리워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자.

<雨林鈴>(우림령)-유영

寒蟬淒切、對長亭晚。驟雨初歇。都門帳飲無緒、留戀處、蘭舟催發。執手相看淚眼、竟無語凝噎。念去去、千裏煙波、暮靄沉沉楚天闊。

多情自古傷離別。更那堪、冷落清秋節。今宵酒醒何處、楊柳岸、曉風殘月。此去經年、應是良辰、好景虛設。便縱有、千種風情、更與何人說。

75) 李宥林, 「柳永의 艷情詞 研究」, 東國大學校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석사학위논문, 2008, p.19.

늦매미 처절하게 우는 속에
 長亭에 날이 저물고
 소나기는 막 멎었다.
 都門에 장막 치고 술 마시니 산란하여
 떠나기 아쉬워하던 터에
 목란 배는 떠나기를 재촉한다.
 손잡고 마주보니 눈물이 흐르네.
 끝내 말없이 목이 메이네.
 생각하니 가도 가도
 끝없을 안개 어린 천리물결
 광활한 남녘 하늘 아득하구나.

다정한 사람은 예부터 이별을 슬퍼하는 법인데
 더욱이 쓸쓸한 가을을 어찌 견디리오.
 오늘 밤 술 깨면 어디에 거하리오.
 수양버들 늘어선 물가에 새벽바람 불고 조각달 걸려있는
 이번에 떠나 세월이 흐르면
 틀림없이 좋은 시절
 좋은 경치도 헛된 것이 되리.
 설령 온갖 애정이 우러난다 해도
 또 누구와 이야기하리.

유영(987?-1058?)은 자가 耆卿이고 初名은 三變이었으며, 崇安(福建省) 사람이다. 1034년 진사에 급제하고 관직이 屯田員外郎에 이르렀다. 慢詞體를 운용하여 濃艷하고 通俗적인 慢詞를 많이 창작하여 북송 詞의 風調를 일변시켰다. 저서에 《악장집(樂章集)》(9권)이 있다.

<雨林鈴>은 유영 작품 속에 離別詞 중 婉弱詞의 대표작으로 推仰되어 왔다.⁷⁶⁾ 宋金 十大 명곡 중의 하나이다. 배를 타고 떠나면서 이별의 서글픔을 그린 작품으로, 흔히 離別의 감정을 훌륭하게 묘사한 작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상편은 이별하는 정경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는데 매우 자세하다. 송별의 분위기와 헤어지는 장소, 그리고 이별의 과정 등이 순서대로 묘사되고 있다. ‘對長亭晚’의 句

76) 李宥林, 앞의 논문, 「柳永의 艷情詞 研究」, p.56.

에서는 이별의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都門’의 두 글자는 都門 안 화려한 기루의 변화한 모습을 연상시켜 長亭의 송별과 대조가 되어, 더욱 농후한 이별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汴河에서 청춘남녀가 이별하는 장면을 펼쳐 보였고, 변화한 도시의 長亭에서 수양버들 늘어서 있고, 저녁 무렵 매미가 우는 속에 한 쌍의 청춘남녀가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는 차에 배는 떠나기를 재촉한다. 이에 두 남녀는 손을 잡고 놓지 못한 채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린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슬픔에 목이 매여 말 한 마디 못하고 헤어진다. 이 句는 읽는 이로 하여금 그야말로 이별하는 고통의 心情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작가가 현재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픈 감정임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예정된 이별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執手相看淚眼’ 이하의 詞句에서는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한층 더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음 ‘念去去, 千裏煙波, 暮靄沉沉楚天闊.’ 句에 대해 후대에 평한 기록을 보면 ‘이상의 文字는 모두 가슴에 멎히고 감도는 데, 이에 이르러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춤춘다.’⁷⁷⁾ 라고 하였다.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뒤의 상심을 표현하였는데, 과거에 여인과의 즐거웠던 때를 그리워하며, 낯선 곳에서 외로이 머무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떠나가는 남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맞이할 旅路와 이별 후에 겪게 될 고독의 상심과 그리움의 비감에 젖는 상상을 묘사하고 있다.⁷⁸⁾ 특히 ‘今宵酒醒何處, 楊柳岸, 曉風殘月.’의 詞句는 한층 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蝶戀花>(접연화) -歐陽修(구양수)

| | |
|----------|---------------------------|
| 庭院深深深幾許? | 정원은 깊고 깊으니 얼 만큼일까? |
| 楊柳堆煙, | 버드나무에 쌓인 안개, |
| 簾幕無重數。 | 겹겹이 무수한 발을 드리운 듯. |
| 玉勒雕鞍遊冶處, | 조각한 말안장 위에서 여기저기 노니는데, |
| 樓高不見章臺路。 | 누각은 높아도 그 장대로는 보이지 않네. |
| 雨橫風狂三月暮。 | 비바람 사나운 삼월 저물녘 |
| 門掩黃昏, | 문 닫아 황혼 막은들 |
| 無計留春住。 | 봄을 붙잡아 둘 길 없네. |
| 淚眼問花花不語, | 눈물 어린 눈으로 꽃에게 물어도 꽃은 말 없고 |

77) “以上文字, 皆鬱結蟠屈, 至此乃凌空飛舞.” 唐圭璋, 《唐宋詞簡釋》 中華書局, 1987, p.71.

78) 宋龍準, 《柳永詞選》, 민음사. 2007, p.60.

亂紅飛過秋千去。

어지러이 지는 붉은 꽃잎 그네 저편으로 날아가네.

구양수(1007-1072)는 자가 永叔, 호가 醉翁이며 만년에는 六一居士라고도 칭하였는데 廬陵(지금의 江西吉安) 사람이다. 그는 진사 출신으로 일찍이 參知政事에 올랐다. 시사문(詩詞文)이 훌륭하여 北宋 詩文革新의 지도자였으며, 散文으로는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영향이 지대한 文宗이었다. 만년에는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하여 보수로 기울었다. 그가 죽은 후에는 “文忠”의 시호가 내려졌다. 사작은 비교적 많아 『六一詞』와 『醉翁琴趣外編』에 200여 수가 수록되어 있다. 문인 학사들의 한가로운 정취와 남녀 간의 애정, 이별 등의 제재가 대부분이다.

남편이 자기를 떠나 멀리 가 있는 여인의 심경을 표현하는 暮春閨怨(모춘규원)의 사,⁷⁹⁾ 전편에 정감과 경물이 융화되어 하나의 절묘한 경지를 이루고 있다. 완곡하고 섬세하게 쓰여져 슬프고도 감동적이다. ‘정원은 깊고 깊으니 그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庭院深深深幾許)’에서 ‘深’자 세 개로 하나의 의문을 나타낸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한 것은 깊이 격리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느낌은 독자에게는 여인이 접근할 수 없이 멀리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고 화자에게는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규방이 먼 곳에서 방황하는 남편과 아주 격리된 듯한 느낌을 줄 것이다.

홀로 깊은 규방 안에 있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펼쳐내고 있다. 정원의 깊이는 사실상 적막의 깊이이자 슬픔과 원망의 깊이이다. 깊이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정원의 깊이가 아니라 슬픔의 깊이를 묻는 것이다. 묻지만 대답이 없음은 헤아릴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확실한 감정을 묘사한 절묘한 시어이다.

<玉樓春>(옥루춘)-歐陽修

別後不知君遠近，觸目淒涼多少悶。漸行漸遠漸無書，水闊魚沉何處問？
夜深風竹敲秋韻，萬葉千聲皆是恨。故敝單枕夢中尋，夢又不成燈又燼。

헤어진 뒤 님 계신 곳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눈길 닿는 모든 것이 처량하여 어찌나 답답한지.

갈수록 멀어지고 점점 서신도 없네. 물길 아득한 데다 물고기는 깊이 잠겨 있으니 어느 곳에

79) 上疆村民, 앞의 『宋詞三百首』, p.50.

안부를 물으리오?

깊은 밤 바람은 대나무를 치니 가을 운치가 넘치는데, 얼마다 이는 온갖 소리 전부 시름이라.

홀 베개에 기대어 꿈속에서 찾으려 해봐도, 꿈은 또 못 이룬 채로 등불만 다시 재가 되었네.

이 사는 오대화간사의 영향을 받아 여성화자로서 여인의 이별의 한을 표현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이 사는 <萬葉千聲>이란 이름의 곡으로 대중가요로 유명한 가수인 鄧麗君이 불렀다.

첫 구절 ‘別後不知君遠近’은 한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연인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자신의 마음이 처량하고 울분함을 표현했다. ‘多少’는 한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3, 4구절은 이별의 상황과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漸行漸遠漸無書’는 한 구절 안에 ‘漸’ 글자를 세 번 반복해서 나타낸 것으로 여인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결국은 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

평범한 말이지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언어는 수수하지만 정취는 오히려 깊고 두텁다. ‘水闊’은 ‘遠’의 표현이며, ‘魚沉’는 ‘無書’의 표현이다. ‘何處問’이라는 글자는 임이 떠나간 곳을 알고자 함에도 알 수 없으며, 임에 대한 정을 하소연 할 대상이 없음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편은 여인의 마음속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잠 못 이루는 근심을 묘사한다. ‘風竹秋韻’은 원래 ‘尋常景物(보통경물)’인데 임과의 이별과 홀로이 밤을 지내는 여인의 안타까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萬葉千聲’은 여인의 무한한 근심을 표현한 것이다. 경치 묘사로서 정서를 나타냈다. 가을의 소리, 그리움의 한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운치를 더하여 유달리 사람을 감동시킨다.⁸⁰⁾

여인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려고 빨리 잠을 청하여 꿈속에서 임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꿈도 못 이룬 채 등불만 타들어갔다. ‘燈又燼’이라는 등불만 타들어 간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임과 만날 수 없는 여인의 처량한 운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꿈속에서 찾으려 하지만, 잠마저 이를 길 없어 외로운 등불만 타서 재가 되어버린다.⁸¹⁾

80) 魏冰戩, 《國學課堂: 宋詞(解讀版)》, 吉林大學出版社, 2015, p.16.

81) 魏冰戩, 위의 책, p.17.

사의 마지막 구절은 여인의 마음 속 깊은 한을 표현한 것이다. 이 사는 ‘恨’이라는 글자가 차차 번갈아 가면서 표현된 것으로 완곡하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홀로 보내는 여인이 임과의 이별 후에 처량한 마음과 소식이 없는 임에 대한 한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⁸²⁾

〈傷情怨〉-주방언

枝頭風勢漸小, 看暮鴉飛了. 又是黃昏, 閉門收返照.
江南人去路縵, 信未通·愁已先到. 怕見孤燈, 霜寒催睡早.

나뭇가지에 바람이 점점 잠잠해지고,
저녁 까마귀 나는 것을 보고 있다.
또 황혼이 드니,
실내에 들어와 문 닫고 석양을 막았다

강남으로 떠난 사람은 길이 멀어,
서신이 오지 않았는데 수심이 먼저 도착하네.
외로운 등불 보기가 두려운데,
차가운 서리가 잠을 재촉한다.

주방언(1056-1121)은 자가 美成이고 호가 清真居士이며, 첸탕(錢塘,浙江省)지역 사람이다. 元豐年間(1078~1085)에 수도로 올라가 汴都賦를 獻上하여 神宗으로부터 인정받고 太學正으로 승진하였다. 그 뒤 徽宗朝에 이르러 大晟府(궁중음악 담당)의 提舉에 오르고, 순창부(順昌府,安徽省) 처주(處州,浙江省) 知事を 역임하였다. 사집은 《片玉詞》, 《清真集》 등이 있다. 사는 주방언에 이르러 이미 ‘집대성’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칭해지는데 이것은 높은 평가라고 할 수 있다.⁸³⁾

이 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황혼 무렵에 한 여인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인하여 문을 닫아 실내로 들어오는 석양을 막아버린다. 또한 멀리 강남으로 떠난 임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서신은 오지 않고, 마음속에는 오히려 수심이 먼저 도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여인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82) 吳翠芬 等, 《唐宋詞鑒賞辭典(唐·五代·北宋)》, 上海辭書出版社, 1988, pp.480~481.

83) 양해명, 앞의 책, p.433.

은 문을 닫고 석양을 막아버린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외로운 등불 보기가 두려워 일찍 잠을 청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저녁의 까마귀(暮鴉), 황혼(黃昏), 외로운 등불(孤燈), 차가운 서리(霜寒)에 대한 묘사 속에 처량함을 느낄 수 있고, 한 여인의 입을 향한 그리움을 기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早梅芳>-周邦彥

花竹深，房櫳好，夜闌無人到。隔窓寒雨，向壁孤燈弄餘照。淚多羅袖重，意密鶯聲小。正魂驚夢怯，門外已知曉。

去難留，話未了，早促登長道。風披宿霧，露洗初陽射林表。亂愁迷遠覽，苦語縈懷抱。謾回頭，更堪歸路杳。

꽃과 대나무가 우거진 속에,
좋은 집 한 채 있으나,
깊은 밤에는 조용해 아무도 찾는 이 없다.
창밖은 찬비 내리고,
벽을 향한 외로운 등 마지막 불빛 반짝거린다.
많은 눈물 비단옷 소매로 닦아 무겁게 보이고,
나지막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마침내 그녀가 잠에서 깨어 놀라는 것은,
문밖의 날이 이미 밝았음을 알고 그러네.

머물 수 없어 떠나야 하는데,
다정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건만,
사람들은 멀리 떠나라 재촉하네.
젖저녁 안개 바람에 흩어지고,
이슬에 씻긴 듯한 막 떠오르는 해 숲 위를 비친다.
어지러운 수심이 멀리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이별할 때 괴로운 말들이 가슴속을 휘감는다.
부질없이 고개 돌려 바라보니,
더욱 돌아갈 길 아득하니 건딜 수가 없구나.

이 사도 이별의恨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날이 새자 떠나면서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묘사한 작품이다. 상편에서는 이별을 앞둔 여인의 심정을 잘 나타내었고, 하편에서는 여인을 버려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작자의 괴로운 심정과 앞으로 겪어야 하는 외로움에 대한 근심이 잘 나타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별 전날 밤, 꽃이 활짝 피어 있고 대나무가 무성하며 늦은 밤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외딴 집이 등장한다. 바깥은 차가운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실내는 외로운 등불이 마지막 빛을 뿜어내고 있다. 여인은 다정스럽게 속삭이지만 날이 새면 입을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눈물로써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다. 특히 눈물에 젖은 소매가 무겁게 보인다는 과장된 표현 속에서 여인에 대한 작자의 애처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마침내 날이 밝아서 그들은 서로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작자가 떠나가면서 이별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하늘은 선명하게 맑고 주위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수심이 앞을 가려 잘 보이지 않으며, 또 이별할 때의 고통스러운 말들이 머릿속을 휘감는다. 마지막에는 가야할 길은 아득하며 이에 따라 이별의 수심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 작품은 눈물을 매개체로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이별의 정경을 단계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남녀의 심리 상태를 매우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는 읽는 이로 하여금 그 당시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질 만큼 묘사가 섬세하고 감동적이다.⁸⁴⁾

그 다음에 이청조는 여성 사인으로서 여인이 이별과 그리움에 대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청조는 제남(濟南,山東省)에서 출생하였고, 호가 易安居士라고 하였다. 婉約詞派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중국에서는 ‘千古第一才女’라고 일컬어진다. 남편 조명성은 고고학자로, 두 사람은 금석 서화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생활은 풍요로웠다고 하지만 靖康의 난 때에 강남으로 피난을 하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귀중한 소장품을 모두 상실하였고 남편이 죽고 난 뒤부터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만년을 보내야 했다. 이 때의 사들은 대부분이 신세를 한탄한 것들로, 사구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음률의 조화가 뛰어나 더욱 아름다운 느낌을 가지게 한다. 저서로 《易安居士文集》, 《易安詞》 등이 있다.

84) 방지영, 「周邦彥愛情詞研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44.

<點絳脣>-이청조

寂寞深閨,柔腸一寸愁千縷.惜春春去,幾點催花雨.
倚遍闌幹,只是無情緒.人何處,連天衰草,望斷歸來路.

적막하고 깊은 규방에,
장은 한 치에 근심은 천 갈래.
봄을 아쉬워해도 봄은 지나가니,
꽃 지도록 재촉하는 몇 방울 비.

난간에 기대어 보지만
오직 무정함만 있어라!
그대는 어디 있나?
하늘과 맞닿은 시든 풀에
돌아올 길만 뚫어져라 바라보네.

이 사는 적막하고 깊은 규방에서 근심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다. ‘寂寞深閨, 柔腸一寸愁千縷’는 애수에 잠긴 외로운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惜春春去, 幾點催花雨’구절은 지나가는 봄을 아쉬워해도 봄은 떠나기 마련인데, 그마저도 비가 내려 꽃이 지도록 재촉한다고 하여 작자의 애수에 잠긴 마음을 일으킨 원인을 말한다. 한편에서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쓰고 있고 작자는 난간에 기대어 있다. ‘連天衰草, 望斷歸來路’구절은 그저 하늘까지 이어진 풀만 보이고 남편의 자취는 보이지 않고 작자는 떠나간 임이 돌아올 길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을 표현하였다. 수동적으로 그저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陸雲龍은 《詞菁》에서 “淚盡個中”⁸⁵⁾이라고 평하였다.

<一剪梅>-이청조

紅藕香殘玉簫秋.輕解羅裳,獨上蘭舟.雲中誰寄錦書來?月滿西樓.
花自飄零水自流.一種相思,兩處閑愁.此情無計可消除,才下眉頭,卻上心頭.

붉은 연꽃 향기 남은 곳 대자리의 가을.
비단 치마 살포시 들어,

85) 鄒德金, 『名家評注全宋詞』上卷, 天津古籍出版社, 2009, p.320.

홀로 고운 장식 배 위에 올랐네.
구름 가운데 누가 서신 부쳐오려나?
기러기 돌아올 때이건만,
서루에는 달빛만 가득하구나.

꽃도 절로 흘날려 물 따라 절로 흘러가는데.
한 가지 그리움으로,
두 곳에서 슬퍼하는 구나.
이 심정 깨끗이 씻을 길 없으니.
겨우 눈썹(미간)에서 내려오나 했건만,
다시 마음 위로 올라오네.

이 사는 이청조의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한 대표작이다. 이 사에 대해 胡仔는 《草堂詩餘》後集에서 “近時婦女能文詞者，如趙明誠之妻李易安，長於詞，有《漱玉集》三卷行於世。此詞頗盡離別之意，當爲拈出。(근대에서 여인 중에 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조명성의 부인인 이이안은 사에 능하여 수옥집(漱玉集) 3권을 남겼다. 이 사는 이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출한 작품이라 하겠다.)”⁸⁶⁾라고 평하였다.

이청조가 신혼 시절 남편이 변경으로 떠난 후에 지은 것이다.⁸⁷⁾ 상편에서 시각(연꽃), 후각(향기), 촉각(대자리의 찬 기운)을 통해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느껴지는 쓸쓸한 정감을 완곡하게 묘사한다. ‘輕解羅裳，獨上蘭舟.’라는 구절은 홀로 비단 치마 쥐고 배에 올라탔다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는 시적 화자가 홀로 있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雲中誰寄錦書來？雁字回時，月滿西樓.’라는 구절에서는 가을에 홀로 가을 나들이를 나온 여성은 오직 기러기가 전해줄 소식만을 기다린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기러기 떼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달빛만 누대에 가득하여 슬픔을 증가시킨다. ‘구름’, ‘기러기’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이별의 수심을 표현한다. 정과 경이 하나로 융합된 경지를 담담하게 보여준다. 후편에서 화자는 꽃도 물도 절로 흘러가는데 한 가지 그리움을 가진 채 헤어진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花自飄零水自流。一種相思，

86) 鄒德金, 앞의 『名家評注全宋詞』上卷, p.316.

87) 河姓延, 『이청조의 사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34.

兩處閑愁.’에서는 꽃처럼 쉬이 가 버리는 청춘과, 흐르는 물처럼 붙잡아 두기 어려운 세월의 덧없음을 탄식하며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비유하면서 남편과 몸은 떨어져 있으나 그리워하는 마음은 하나임을 함축하였다. 다음으로 ‘情無計可消除，纔下眉頭，卻上心頭’라는 구절은 이 사의 주제구로 이별의 수심으로 초췌해져가는 것을 표현한다. 이 구절은 천고의 명구라고 칭송을 받는다.

다음 주제로 남녀상열의 적극적 애정행위를 표현하는 사를 살펴보겠다.

일찍이 花間詞人들도 사랑을 노래한 詞 중 남녀 간의 향락을 추구하였는데 柳永에 이르러서는 남녀 간의 향락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 묘사가 아주 솔직하고도 노골적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대부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상당히 대담하고 자유롭게 통속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는 문인들에게 저속한 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유영의 사를 저속한 사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南宋의 王灼은 《碧雞漫志》에서 “聲態可憎(소리 내서 표현하는 태도는 저속하고 타락적인 것)”⁸⁸⁾ 라고 평하다. 심지어 현재 학자들 또한 유영의 사를 색정이나 여색으로 사를 지었다고 평하였다.⁸⁹⁾

하지만 이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유영은 景祐 元年(1034) 48세 나이에 비로소 진사에 합격하였다. 그 사이에 좌절과 실의에 빠져 하층사회에 떠돌면서 민간의 영향을 받아 민간에서 전래해 온 慢詞體를 운용하여 濃艷 通俗적인 대량의 만사를 창작하였다. 또한 사의 내용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사의 기법을 풍부하게 하였다. 특히 사대부의 정취와는 다른 시민 의식을 반영함으로써 사의 풍격을 일변시켰다.

재기에 가득 찼던 柳永은 여러 차례 科擧에서 낙방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러한 충격으로 그는 江南지방을 유랑하면서 詞 創作에 몰두하게 된다. 失意 속에서 방황하며 도시의 번영된 생활에 매혹되어 방탕하면서도 향락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고 벼슬길이 막힘으로 인해 상층사회를 벗어나 妓樓 등에 머물면서 통속적인 사 창작에 힘썼던 것이다.

88) 葉嘉瑩, 『柳永詞新釋輯評』, 中國書店, 2005, p.601.

89) 胡遂, 「論唐宋詞創作旨趣的發展演變」, (文學遺產), 1999年 第3期.

唐代 이래로 시인과 歌妓 간에 서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유영이 살던 시대적 배경은 앞에 언급했듯이 북송 전기 경제적인 변영을 바탕으로 한 향락적인 분위기였다. 송사에서는 이러한 남녀 간 정사를 묘사하는 작품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유영, 주방언뿐만 아니라 沈雄이 《古今詞話》에서 “江尚質曰：賢如寇准、晏殊、範仲淹、趙鼎，勳名重臣，不少豔詞.”라고 하였 듯 당시 존경받은 名臣들이나 宋 徽宗까지 남녀상열의 노골적인 염사를 지었다. 예를 들면 宋 徽宗의 <醉春風>에서는 “動動動，臂兒相兜，唇兒相湊，舌兒相弄”라는 俗語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구어화된 문장에서 직설적인 남녀의 정사를 묘사한 바 있다. 일단 유영의 남녀상열의 노골적인 사를 살펴보겠다.

<鬪百花-其三>

| | |
|---------|------------------------|
| 滿搦宮腰纖細。 | 한 손에 잡히는 부드럽고 가는 허리 |
| 年紀方當笄歲。 | 나이는 바야흐로 비녀를 꽂을 열다섯 |
| 剛被風流沾惹， | 이제 막 풍류 베어들어 |
| 與合垂楊雙髻。 | 그녀에겐 수양버들 쌍 쪽머리가 어울린다. |
| 初學嚴粧， | 처음으로 배운 화장에 |
| 如描似， | 그린 듯하고 |
| 削身材， | 깎은 듯한 몸매 |
| 怯雨羞雲情意。 | 정사 겁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

| | |
|---------|-----------------------|
| 舉措多嬌媚。 | 오히려 더욱 귀엽다. |
| 爭奈心性， | 어찌하나 그 마음은 |
| 未會先憐佳婿。 | 아직 남자 사랑하는 것을 몰라 |
| 長是夜深、 | 늘 밤이 깊도록 |
| 不肯便入鴛被、 | 원앙금침에 들지 않고 |
| 與解羅裳， | 비단치마 벗겨주자 |
| 盈盈背立銀缸， | 풍만하게 은등잔 안고 돌아서서 |
| 卻道你先睡。 | “당신 먼저 그냥 주무세요” 하는구나. |

위 작품은 柳永의 대표적인 俗詞로 평가되는 작품 중의 하나로, 나이 어린 옛된 妓女와의 性愛를 생생하고 대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前片에서는 妓女の 아리따운 容貌와 性品을 묘사하고, 그녀의 허리, 머리 장식, 화장한 얼굴, 몸매, 행동

을 자세하게 드러낸다. ‘怯雨羞雲’ 라는 구절에서의 ‘雲雨’는 고대 문인들이 성행위를 말할 때 표현하는 어휘이다. 유영의 사에서 남녀의 성애 장면에 대해 묘사하는 단어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風流’, ‘貪顛耍’, ‘鴛鴦繡被翻紅浪’, ‘雲雨’ 등이 있다. ‘雲雨’라는 단어는 사용 빈도가 가장 많고, ‘雲雨’는 <高唐賦>에서 “巫山雲雨”⁹⁰⁾라는 단어에서 가져왔다. 미모의 무녀에 관한 이야기이다. 유영은 ‘雲雨’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남녀 간 성의 다른 이름이다. 유영의 사중에서는 그 무녀의 미모로 기녀들의 미모를 빗대어 이야기하였다.⁹¹⁾ 처음 사랑을 나누는 나이 어린 소녀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後片에서는 기녀가 침실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與解羅裳，盈盈背立銀缸，卻道你但先睡’에서는 그녀가 밤이 깊도록 ‘雲雨之情’을 부끄러워하며 ‘與解羅裳’라고 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女人을 대신하여 치마를 벗겨주어도 여전히 부끄러워 그냥 주무시라는 대화체로 당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 작품은 처음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어린 妓女의 부끄러워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⁹²⁾

<菊花新>

| | |
|----------|-------------------------------|
| 欲掩香幃論繾綣、 | 휘장을 드리우고 깊은 정 나누려는데 |
| 先斂雙蛾愁夜短。 | 밤이 짧은 것에 마음 상하여 먼저 양 눈썹을 찡그리네 |
| 催促少年郎、 | 젊은 낭군 재촉하여 |
| 先去睡、 | 먼저 자라고 하네. |
| 鴛鴦圖暖。 | 원앙 이불 따뜻하게 하려고 |
| 須臾放了殘鍼線、 | 잠시 하던 바느질은 내려두고 |
| 脫羅裳、 | 비단치마 벗고는 |
| 恁情無限。 | 정에 말기는데 끝이 없구나. |
| 留取帳前燈、 | 휘장 앞 등불을 그대로 두어 |

90) 宋玉〈高唐賦〉序雲，楚懷王遊覽巫山，因倦極入夢。夢中一女子對其言：“我本巫山之女，聞道大王在此遊覽，我願與王同床共枕。”懷王於是同此女子成了露水夫妻。女子臨別時說：切在巫山之陽，高丘之阻，旦爲朝雲，暮爲行雨，朝朝暮暮，陽台之下。”懷王於晨昏觀巫山，果見雲雨。

91) “柳永詞中描繪男女交歡的詞語很多如風流 貪顛耍 鴛鴦繡被翻紅浪 雲雨等。雲雨一詞使用次數最爲頻繁。雲雨一詞 典出宋玉<高唐賦>的巫山雲雨，描寫了美貌無雙的巫山神女，柳永使用 雲雨作爲男女之歡的代稱。更以巫山女神的形象，爲其詞中歌姬的美色做了最佳的塑造” 陳姿羽，「論柳永詞中的娼妓書寫」，國立臺北教育大學，語文與創作學系 碩士學位論文，2013, p.15.

92) 李宥林， 앞의 「柳永의 艷情詞 研究」, p.52.

時時待、 때때로 보아야겠네
看伊嬌面。 아리따운 그녀의 얼굴을.

이 작품은 역대로 柳永 詞 중에서도 淫詞로 유명한 것으로 俗詞의 진면목이라 하겠다. 이 사에 대한 “柳永淫詞莫逾於《菊花新》一脞.”⁹³⁾ 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 작품의 표현들이 어떠한 象徵이나 比喻를 지니고 있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상편보다는 하편이 남녀 간 애정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더 잘 나타내고 있는데, 당시 보수적인 시대 상황과 결부시켜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불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에서는 그녀의 애교 어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先去睡’, ‘脫羅裳’, ‘看伊嬌面’라는 말이 대담하게 부끄러운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男女 간의 스스럼없는 행동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女人의 적극적인 언어와 행동이 전통적인 女人의 형상이 아닌 서로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晝夜樂〉其二

秀香家住桃花徑。算神仙、纔堪並。層波細擘明眸，膩玉圓搓素頸。愛把歌喉當筵逞。
遏天邊，亂雲愁凝。言語似嬌鶯，一聲聲堪聽。
洞房飲散簾帷靜。擁香衾、歡心稱。金鑪麝裊青煙，鳳帳燭搖紅影。無限狂心乘酒興。
這歡娛、漸入嘉景。猶自怨鄰雞，道秋宵不永。

수향의 집은 복숭아꽃 길가에 있는데
생각건대 신선이나 재능에 감히 맞설 수 있다.
층층의 쌍꺼풀에 가늘게 오린 아름다운 눈
윤기있는 옥으로 둥글게 만든 듯 한 흰 목
노랫소리를 술자리에서 뽐내기 좋아하여
하늘가를 막아
어지러운 구름 시름에 잠기게 하네.
말소리는 사랑스러운 피꼬리 소리 같아
한 마디 한 마디 들을 만하다.

동방은 술자리가 끝나 주렴을 내려 고요하여

93) 唐圭璋編,《詞話叢編》, 中華書局, 1986版,《雨村詞話》,卷一 第7頁, (全書1391頁) .

향기로운 이불을 덮으니
 좋아하는 마음 든다.
 금빛 향로에선 사향의 푸른 연기 아물거리고
 봉황 휘장엔 촛불의 붉은 그림자 흔들리네.
 끝없는 즐거움은 술기운을 타니
 이 즐거움
 점차 더해가네.
 오히려 이웃집 닭 원망하며
 가을밤이 길지 않다고 말하네.

이 詞는 柳永의 전형적인 俗詞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淸의 沈雄은 《古今詞話》에서 “此詞麗以淫，爲妓作也.”⁹⁴⁾ 라고 하였다. 이 사는 기녀를 위해서 지은 것이다. 前片은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노래 솜씨를 찬미하는 내용이지만, 後片은 이 여인과의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새벽닭이 울어 날이 밝아 오음을 알리니, 그 밤이 짧은 것이 원망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인과의 환락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前片에서 ‘層波細擘明眸，膩玉圓搓素頸’라고 여인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한 구절이나, 後片에서 ‘無限狂心乘酒興，這歡娛、漸入嘉景’라고 하여 여인과의 즐거운 때를 노골적으로 그리고 있는 구절에서는 심후하거나 함축적인 부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보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를 표현하여 그 정감 역시 심후하다고 볼 수 없다.

<浣溪沙>-歐陽迥

相見休言有淚珠，酒闌重得敘歡娛，鳳屏鴛枕宿金鋪。
 蘭麝細香聞喘息，綺羅纖縷見肌膚，此時還恨薄情無？

서로 만나 말없이 구슬 같은 눈물만
 술자리 깊어지니 기쁨을 다시 말하네.
 봉황 병풍, 원앙 베개, 황금 침상에 드니
 난초 사향 은은한 향기 속에 가쁜 숨소리 들리고
 가는 비단 옷에 살결 비쳐 보이네.
 이때에도 박정환 입이라고 원망할 것인가?

94) 淸, 沈熊, 《古今詞話·詞品》, 收入唐奎璋編, 《詞話叢編》, 冊1, 北京中華書局, 1990, p.875.

歐陽迥은 오대(五代)후촉(後蜀)에 이어서 송나라 초기까지 활동했던 사인이다. 그는 40여 수의 사를 전하였다. 《화간집》에서는 17수를 수록하였다. 구양형의 사는 艷情을 담은 것이 많은데 위의 사에 대한 況周頤가 “艷詞가 있어온 이래 이 작품보다 더 색정적인 것이 있을까. 그러나 화간사의 필법이 없었다면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⁹⁵⁾라고 평하였다.

상편은 남녀가 만난 후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감정을 억제하기 힘든 상태에서 잠자리의 장면을 드러낸다. 하편은 이에 더하여 잠자리에서의 ‘聞喘息’ 소리부터 ‘見肌膚’의 신체까지 노골적 남녀상열의 정사를 묘사한다.

2) 인생무상의 感傷

송사가 표현해낸 愁는 사인들 각자의 생활경험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인들은 매우 풍족하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했다. 예를 들면 벼슬길에 큰 풍파가 없었던 안수, 장선 등이 있다. 그들 사에서 愁는 애수에 잠기고 감상적인 閑愁였다. 안수가 비교적 많이 묘사한 것은 傷春悲秋(쓸쓸한 가을의 정경에 슬픔)를 느끼는 것, 괜한 걱정,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것에 대한 슬픔, 짧은 인생에 대한 슬픔이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감을 슬퍼하며 애석함을 서술하고 현재 직면한 현실에서 내가 앞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한껏 사와 술을 즐기며 즐겁게 노는 태도도 드러나고 있다.

<浣溪沙>-안수

一曲新詞酒一杯，去年天氣舊亭臺，夕陽西下幾時回？
無可奈何花落去，似曾相識燕歸來，小園香徑獨徘徊

새로운 사(詞) 한 곡조, 한 잔의 술, 지난 해 기운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옛 누대, 서쪽으로 지는 석양은 어느 때 다시 떠오르려나?

어찌 할 도리 없이 꽃은 지지만, 이전에 일찍이 나를 알기라도 한 것처럼 제비 다시 돌아오니, 향기 나는 작은 뜰의 오솔길을 나는 홀로 서성거린다.

95) 《花間集》歐陽炯〔浣溪沙〕雲：“‘蘭麝細香聞喘息。綺羅纖縷見肌膚。此時還恨薄情無’自有艷詞以來，殆莫豔於此矣。半塘僧鶯曰奚翅豔而已？直是大且重。”苟無《花間》詞筆孰敢爲斯語者。-況周頤，《蕙風詞話》，《詞話總編》本，中華書局，1986，p.4424.

‘人生無常’의 감상적 情緒의 상춘사이다. 이 사 속에는 세상의 변천을 경험한 지자(智者)의 노련한 감각이 표현되어 있어 생명이 확장되고 계속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사에 쓰인 것은 ‘太平宰相’⁹⁶⁾ 안수의 한적한 생활의 한 단편으로, 때는 늦은 봄이고, 그 장소는 정원의 정자 안이다. 사의 앞선 두 구절은 경치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아름다운 경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개탄이라 할 것이다.

그는 지금 마시는 술과 지금 듣는 노래로부터 작년에 마셨던 술과 작년에 들던 노래를 떠올리며, 시간이 흘러감을 슬퍼하며 ‘夕陽西下幾時回’ 라 탄식을 뱉어낸다. 작가는 인생의 황혼에 세월이 덧없이 흘러감을 슬퍼하며 애석함을 서술한다.

전체 가사가 나타내는 것은 꽃의 낙화와 봄의 귀환, 세월의 흐름에 대한 사인의 근심이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져 가는 슬픔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독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짧은 인생에 대한 다양한 연상을 불러일으키고 강렬한 공감을 만들어 낸다.⁹⁷⁾

‘어찌 할 도리 없이 꽃은 지지만, 이전에 일찍이 나를 알기라도 한 것처럼 제비 다시 돌아오네(無可奈何花落去, 似曾相識燕歸來)’ 라는 인생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부득이함과 어느 정도의 놀라움과 기쁨을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千古의 名句로 칭송 받을 만하다.⁹⁸⁾

<清平樂>-晏殊

春來秋去。往事知何處。燕子歸飛蘭泣露。光景千留不住。

酒闌人散忡忡。閑階獨倚梧桐。記得去年今日，依前黃葉西風。

봄이 가고 가을 다시 온다. 지난 일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는가? 제비 날고 난초에 이슬방울 맺혀 있네. 이 광경 오래도록 붙잡아 놓을 수 없을 테지.

술자리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구나. 한가로이 계단 옆 오동나무에 홀로 기대여 본다.

작년 오늘을 기억 하니, 낙엽이 서풍에 떨어지누나.

96) 양해명, 앞의 책, p.231. “그의 인생 경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盛世(仁宗朝)를 만나 太平宰相이라고 할 만하다.”

97) 黃澤芳, 「淺說宋詞的感傷性」-《科教文彙旬刊》, 2010.

98) 池娃延, 『宋詞三百首今譯: 北宋初中期詞 譯注』, 江陵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專攻, 2008, p.32.

봄의 찬란하고 충만한 경치를 마주보고서 맛있는 술이 함께하니, 괜한 걱정과 근심은 마음에 자리잡을 수 없다. 또 한 번의 술 모임이 끝이 나고서 혼자서 봄 풍경을 보자니, 작년의 오늘이 생각난다. 안수의 일생은 향락과 부귀만을 위한 것이었다. 아직까지도 가난으로 궁핍해지는 경험을 해 보지 못했으나 오히려 걱정과 근심은 끝이 없다.

‘光景千留不住(이 많은 광경을 다 담아 놓을 수 없다)’ 라는 말로써 탄식하며 아름다운 풍광 앞에서 근심하고 있다.

이 사인이 느낀 슬픔은 배가 고프지만 음식을 얻을 수 없고, 춥지만 입을 옷이 없으며,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죽은 이를 애도하는 이러한 슬픔의 감정과 달리 이런 슬픔은 생활의 넉넉함에도 깊은 감정을 부여잡고 삶을 걱정하고 세상을 우려하는 사인들이 새로운 현실세계의 시끄러운 번잡에서 떠나 마음 속 의식으로부터 오는 인간 존재의 비애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閑(한가로움)’에서 걱정이 생겨나며 ‘閑階獨倚時紛飛’라는 이러한 정서가 바로 시공의 경계를 뛰어넘어 현재까지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⁹⁹⁾

<浣溪沙>-晏殊

一向年光有限身，等閑離別易銷魂，酒筵歌席莫辭頻。

滿目山河空念遠，落花風雨更傷春，不如憐取眼前人。

세월은 쉬이 가고, 인생은 어찌나 짧은지! 예사로운 이별도 은근히 닳을 놓게 하니, 가무(歌舞) 즐기고, 연회자리 잦다고 잔소리 마소.

눈에 띄는 산천마다 부질없이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다가, 비바람에 꽃이 지니 더욱 봄을 가슴 아파하는데, 진실로 눈앞에 있는 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편만 못 하다네.

인생은 고되고도 짧고 이별의 슬픔은 극심하므로, 명랑한 태도는 필요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보낼 필요는 없다. 이 사의 내용은 두 입장 사이에 끼인 듯하다. 확 트인 측면이 있으며 동시에 또한 때에 맞춰 즐거움을 누리려는 측면도 있으니 마치 인생의 일종의 어찌 할 수 없음을 하소연하는 듯하다.

99) 賴曉君, 「“閑話覺忘憂”——北宋前期詞中“閑”的藝術探析」, 南昌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p.13.

작가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삶의 유한함, 청춘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이별의 아픔 등 현재 바라보는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상편은 ‘一向年光有限身’으로 시작하며, 어구는 간결하다. 봄이 지나감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면서 청춘은 되돌릴 수 없음을 탄식함으로써 인간의 공감을 일으키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사 중에서 서술하는 이별은 생이별이나 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보통의 남녀 간 이별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等閑’이라는 두 글자는 작가의 깊은 감정을 표현한다. 작가는 짧은 인생에서 한 번의 이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할 때마다 모든 이별은 전 생애에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긴다. ‘酒筵歌席莫辭頻’에서처럼 고통스러움을 나타내기보다는 술 마시며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 정상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보면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생각하고, 비바람에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봄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춘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작가는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함과 만물의 소멸에 대한 한탄을 표현하였다. ‘不如’라는 단어를 통해 말투를 전환하면서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사상을 표현하였으며, 멀리 떨어진 부모와 친구들에 대한 생각과 비바람에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감상에 빠지는 것에서 현재 보고 있는 친구들의 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이 또한 작가가 인생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이다.

작가는 여기에서 유한한 시간에 대한 슬픔과 세상만사의 무상함이라는 작가 자신의 인생관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것만 추구하며 찾는 것은 헛된 일이다. 따라서 현재 직면한 현실에서 자신이 앞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현실을 알아야 하고 직면한 현실에 순응하고 이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작가 자신의 인생철학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다.¹⁰⁰⁾

<天仙子>-張先

水調數聲持酒聽，午醉醒來愁未醒。送春春去幾時回，臨晚鏡，傷流景，往事後期空記省。

沙上禽池上暝，雲破月來花弄影。重重簾幕密遮燈，風不定，人初靜，明日落紅應滿徑。

100) 上疆村民, 앞의 『宋詞三百首』, p.28.

<水調> 몇 가락을 술잔 받치고 듣는다. 낮술은 깨었으나 슬픔은 아직 덜 깨었구나. 이 봄을 보내면 봄은 언제 다시 올까? 저녁 무렵 거울 앞에 서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서러워하니, 지난 일들, 나중을 기약했던 일들 왜 이토록 헛되이 기억나는지.

모래톱 위 나란히 앉은 새들은 연못위에서 잠들고, 그림 사이로 달 솟으니 꽃은 자기 그림자와 노닌다. 겹겹 주름발이 촘촘히 등불 가리운다. 바람 잦아들지 않고 사람들 겨우 잠잠해졌는데, 내일 아침이면 떨어진 빨간 꽃잎이 오솔길에 가득하리.

張先(990-1078)은 자는 子野이며, 湖州 烏程(지금의 浙江省 吳興縣) 출신이다. 1030년 진사가 되었고 이후 관직이 도관랑중(都官郎中)에 이르렀다. 만년에는 향리를 유람하다가 죽었다. 작품으로 문집 100권, 시집 20권, 사 1권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安陸集》 1권만이 전한다.

이 사는 張先이 나이 52세에 쓴 상춘작품이다. 작가는 노래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슬픔을 달랬으나 수심은 여전하다. 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슬픔이 달래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臨晚鏡’은 거울 속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니 그 슬픔이 더욱 깊어짐을 말한다. ‘傷流景’이라는 구절은 시간이 쉬이 가니 청춘은 되돌릴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슬픔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상춘과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애석함이며, 쉬이 늙어가는 인생에 대한 한탄이다. 王國維는 《人間詞話》에서 “雲破月來花弄影，著一‘弄’字而境界全出矣.¹⁰¹⁾ (‘雲破月來花弄影’의 ‘弄(弄)’자에 그 경계(意境)가 드러난다고)” 라고 말한다. 실재(實在)의 물상(物象)을 넘어선 그윽한 분위기가 농후하다. 이 ‘弄(弄)’자에서 진정한 의경(意境)의 참맛과 묘처(妙處)가 보인다.

송대 사인 중에 ‘인생무상’의 감상적 정서를 표현해내는 데 최고라고 꼽히는 자가 바로 ‘소식’이다. 소식의 인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사를 살펴보자.

世事一場大夢，人生幾度新涼。(《西江月》)

세상사란 한 바탕의 커다란 꿈이니, 평생에 몇 번이나 시원한 바람이 불까?

此生此夜不長好，明月明年何處看。<陽關曲>

우리네 삶에 이날 밤이 늘 좋지는 않을 터 명월을 내년에는 어디서 보게 될까?

101) 王國維, 『人間詞話』, 古吳軒出版社, 2012, p.8.

百年強半，來日苦無多……人生底事。來往如梭。 <滿庭芳>

인생 백 년 가운데 절반이 지나, 남은 날이 참으로 많지 않은데…… 인생은 무슨 일로
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與君各記少年時，須信人生如寄。 <西江月>

그대와 더불어 제각기 젊은 시절을 기억커니와, 인생이란 하숙생 같음을 믿어야만 되겠지요.
分攜如昨，人生到處萍漂泊。 <醉落魄>

우리 헤어졌던 것 어제 일만 같은데 인생이란 부평처럼 곳곳으로 떠돌아다니네.

人生如逆旅，我亦是行人。 <臨江仙>

인생은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과 같고 우리 또한 지나는 행인일 뿐.

明鏡惜紅顏。須著人間比夢間。 <南鄉子>

거울에 비친 홍안 슬프구나. 모름지기 인간 세상 꿈속에 비겨야 하리.

萬事到頭都是夢，休休。 <南鄉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은 꿈일지, 어슬렁어슬렁 느긋하게 지낼 일.

人生如夢。一樽還酌江月。 <念奴嬌>

인생은 꿈과 같은 것. 술통 들어 강에 비친 달에게 부어주노니.

소식(1036-1101)은 자는 子瞻, 和仲, 호는 東坡居士이다. 眉州眉山(지금의 四川省眉山市)사람이며 관리이자 문학가이다. 嘉祐 2년(1057)의 進士 출신으로 端明殿學士, 翰林院侍讀學士, 禮部尙書, 祠部員外郎을 지냈다. 1072년에 王安石的 新法을 반대하여 외직으로 나가 향주로 전출 되었다. 1094년에 유배되어 惠州, 해남도에서 7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徽宗의 즉위와 함께 귀양살이가 풀렸으나 돌아오던 도중 江蘇省의 常州에서 사망하였다. 시호는 文忠이다. 저서로 《東坡七集》, 《東坡易傳》, 《東坡樂府》 등이 있다.

위의 사 에서 나와 있듯이 소식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소식은 <西江月>에서 ‘世事一場大夢，人生幾度新涼’이라는 사를 지은 시기는 黃州로 좌천했던 시기였다.¹⁰²⁾ 인생에 대한 한 바탕의 커다란 꿈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인생은 짧고 덧없으며, 꿈과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알 수 있듯 소식의 사에는 인생의 괴로움과 헤어짐,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소식의 인생에 대한 思考이다. 위의 사 에서 나온 이런 철저한 깨달음은 바로 소식이 인생무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102) 白依淳, 「柳永詞與元祐詞壇之關係析論」,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系 碩士學位論文, 2012, p.134.

3) 타향살이·고향의 그리움·不遇

‘타향살이’는 중국문학에서 ‘羈旅’라고 한다. 羈旅의 ‘羈’는 ‘머물다, 체류하다’는 의미이고, ‘旅’는 ‘여행 중에 자주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고대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 혹은 의식주 해결 문제로 인해 외지로 나아가 관직을 구했기 때문에 자주 혼자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다. 일반적으로 羈旅는 타향에서 나그네로 지낸다는 의미이다.¹⁰³⁾ 이런 주제의 작품들은 주로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는 고생스러움과 고향이나 친인에 대한 그리움, 홀로 외롭고 쓸쓸해하는 불안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關河令>(관하령)-周邦彥

秋陰時晴漸向暝，變一庭淒冷。佇聽寒聲，雲深無雁影。

更深人去寂靜，但照壁、孤燈相映。酒已都醒，如何消夜永？

깊어가는 가을 밝은 날은 점차 어두워지고 정원 또한 쓸쓸히 변하고 차가움에 젖어드네. 서늘한 바람소리 우두커니 듣고 있는데 구름은 짙어가도 기러기는 오지를 않네.

밤은 또한 깊어 사람들은 돌아가고 고요한데, 다만 벽을 비추는 외로운 등불만이 내 그림자 비추네. 술은 이미 대충 깨어버렸으니 어찌 이 긴긴 밤을 보낼 수 있을까?

상편은 깊어가는 가을날의 처량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에서의 ‘秋陰’은 스산한 가을이 깊어지니 처량해지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佇聽寒聲(서늘한 바람소리 우두커니 듣고 있자니)’라는 구절은 깊어가는 가을에 만물이 소슬한 찬바람을 맞아 내는 소리를 가리킨다. 처량한 풍경과 쓸쓸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풍경 속에 드러나는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하편은 깊은 밤 인적이 드물 때 작자가 홀로 적막한 여관에서 등불을 마주한 채 느끼는 고독한 기분을 묘사하고 있다. ‘更深人去寂靜(밤이 깊어 사람들 돌아가니 쓸쓸하고 적막하구나.)’는 단짜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무상함을 의미한다. ‘人去’, ‘孤燈’, ‘酒醒’이라는 단어들은 서로 어우러져 있다. ‘人去’는 사람들이 모임이 끝나 모두 돌아가고 가족과 함께 하는데 자신만은 홀로 남겨진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량함을 표현한 것이다. ‘孤燈’은 혼자만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표현한

103) 김현주, 서진영, 「유형 기려주체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p.55.

것이다. ‘酒醒’은 술이 깬 후 홀로 외롭게 남겨진 상황에 있는 자신이 어떻게 기나긴 밤을 보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쓸쓸한 가을날 홀로 남겨진 나그네의 수심을 잘 표현하고 있다.

<蘇幕遮>-範仲淹

碧雲天，黃葉地，秋色連波。波上寒煙翠。山映斜陽天接水，芳草無情，更在斜陽外。
暗鄉魂，追旅思，夜夜除非。好夢留人睡。明月樓高休獨倚，酒入愁腸，化作相思淚。

푸른 구름 뜬 하늘, 누런 낙엽 쌓인 땅, 가을빛은 물결까지 이어졌는데. 물결 위에는 찬 안개 파르라니 깔렸구나. 산에는 석양 비치고 하늘은 물과 맞닿았는데. 향기로운 풀은 무정하게도 석양이 저쪽 편 더 먼 곳에 있구나.

암담한 고향 생각, 뒤따라 이는 여수, 밤마다 오로지 꿈길에서나 머물러 잠들 수 있다네. 달 밝은 밤, 누대에 홀로 기대서지 마라. 술이 수심 어린 가슴에 들면 그것이 그리움의 눈물로 변한단다.

範仲淹은 자는 希文이다. 사상가이자 정치가, 군사가, 문학가이다. 1015년에 進士로 급제했다. 1043년에 慶曆新政에 참여하였고, 1045년 新政이 실패하자 좌천되었다. 시호는 文正이고, 세인들은 ‘範文正公’이라고 불렀다. 저서로 《範文正公文集》이 있다.

이 사는 변경의 관문을 지키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천고의 절창이다.¹⁰⁴⁾ 당시 작가가 지키고 있는 변경 관문의 처량한 가을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작자의 시야에 들어온 雲天, 黃葉, 大地, 江波, 遠山, 斜陽에서 天涯까지 경물을 둘러보며 고향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밤에는 잠 못 이뤘 누각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랜다. 하지만 휘영청 밝은 달이 누각을 비추니 고향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술로서 그리움을 달래려고 하나 그리움은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작가는 그리움과 슬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애잔하고 절로 눈물이 난다.

104) 張旭, 「問君能有幾多愁——試論宋詞傷感基調的成因」, 《青春歲月》, 2012, p.66.

<漁家傲·寄仲高>-陸遊

東望山陰何處是？往來一萬三千裏。寫得家書空滿紙，流清淚，書回已是明年事。
寄語紅橋橋下水，扁舟何日尋兄弟？行遍天涯眞老矣。愁無寐，鬢絲幾縷茶煙裏。

동쪽으로 山陰을 바라보니 어디에 있는가? 왕복 일만 삼 천 리인데.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은 종이를 뽁뽁하게 메꾸었고, 맑은 눈물이 흐른다. 편지가 도착할 때는 내년이겠지.

흥고 아래 물에게 말을 전하니, 조각배 타고 어느 날 형제를 만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천하를 떠돌아다니다 나이만 들었구나.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귀밑머리에 섞인 흰머리 몇 가닥, 차를 끓이는 연기 속에 세월이 지난다.

陸遊(1125-1210)는 자가 務觀, 호는 放翁이다. 越州 山陰(지금의 浙江省紹興) 사람으로, 태어난 지 2년째 되던 해 금군의 침략으로 수도 汴京이 함락당하자, 부친을 따라 피난하였다. 벼슬길이 여의치 못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主和派와 대립하는 主戰論을 주장하였으며,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國恥의 설욕을 강조하였다. 南宋의 대표적 시인으로 현존하는 시는 10,000수에 가까우며, 주요 저서에는 《劍南詩稿》 등이 있다.

시작 부분에서 바로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깊은 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어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정을 기탁하고 있음을 쓰고 있다. 설령 편지 쓴 종이가 뽁뽁하게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그의 향수를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편지가 도착하는 때는 이미 그 다음 해가 아닌가. 그가 어떻게 슬피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아래의 두 구절은 고향으로 흐르는 물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한층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언제라야 배를 타고 흘러가는 물 따라 동쪽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언제 다시 형제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때의 작가는 이미 오십의 나이였다.¹⁰⁵⁾ 그 시절 작가는 난정, 성도 일대를 다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行遍天涯眞老矣’ 라고 하며 비탄에 젖어있는 것이다. 타향을 떠돌아다니다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다가 향수에 젖어 있으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한다. 그저 차 끓이는 연기를 마주한 채 보내기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있을 뿐이다.

105) 黃澤芳, 「淺說宋詞的感傷性」, 《科教文彙旬刊》, 2010(9), p.61.

다음으로 불우한 신세를 드러내는 사를 살펴보자.

不遇를 주제로 한 사에서는 능력과 재능을 갖추고 있어 상당한 포부를 품고 있으나 등용되어 출세하지 못하는 사인들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그들의 삶은 우여곡절 많고 벼슬길에 부침이 있으며, 벼슬을 잃고 좌천당하는 등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인들로는 歐陽修, 柳永, 辛棄疾 등이 있다 .

그래서 그들의 작품에는 변화무쌍한 인생과 운명, 벼슬길에서의 부침에 대해 근심스러워하며 마음속 깊이 사무치는 느낌이 드러난다.

중국의 많은 고대 문인들은 천하를 구하려는 이상을 갖고 있다. 그들은 “天下興亡, 匹夫有責(나라의 흥망은 필부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든가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¹⁰⁶⁾(나라의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고 고생스러운 일에는 자기가 앞장서고 즐거운 일에는 남보다 뒤에 서다)” 이라는 인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군왕의 곁에서 재능을 펼치고 포부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벼슬길에 올라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인들은 극히 적다.

백거이(白居易)는 “문인의 대다수는 기이한데, 특히 시인은 그 운명이 기구하다.”¹⁰⁷⁾라는 말을 통해서 고대 대다수의 문인들의 공통된 운명을 서술한다. 그래서 이 사대부 문인들은 자신의 마음 속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불우한 내용의 사를 썼다.

예를 들면 일찍이 西漢의 司馬遷은 《悲士不遇賦》에서, 董仲舒는 《士不遇賦》에서 자신이 당했던 불공평함을 한탄했다.

송대에 이르러 당쟁이 심해지고 “당쟁은 송대 사대부 정치문화에서 하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¹⁰⁸⁾라는 표현이 있듯이 당쟁으로 인해 많은 문인들이 배척을 당하면서, 이러한 주제가 송사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먼저 유영이 과거시험에서 떨어진 후 쓴 사를 살펴보자.

<鶴沖天>- 柳永

黃金榜上, 偶失龍頭望。明代暫遺賢, 如何向。未遂風雲便, 爭不恣遊狂蕩。何須論得喪?

106) 원문: “ 其必曰‘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 -宋, 範仲淹《嶽陽樓記》.

107) 郭常亮, “文人多數奇, 詩人尤命薄”-“詩人性格”與“懷才不遇”漫談, 江西省團校學報, 1999(4), p.38.

108) 餘英時, 《朱熹的曆史世界》,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1年, 第374頁.

才子詞人，自是白衣卿相。

煙花巷陌，依約丹青屏障。幸有意中人，堪尋訪。且恁偎紅倚翠，風流事，平生暢。

青春都一餉。忍把浮名，換了淺斟低唱！

황금의 과거 방위에, 우연히 그 장원의 희망을, 밝은 세상 이 잠시 어진 인재를 빠뜨렸으니 어디로 향해 가야하는가?

이루지 못한 風雲의 뜻 어떻게 제멋대로 방탕하지 않으리오? 어찌 득실을 따지겠는가? 재자 사인은 바로 당연히 白衣를 입은 公卿將相 이거늘

妓女들이 살고 있는 골목 단청 병풍 아직도 아련하다 다행히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감히 방문할 수 있었네

잠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기대니 풍류 생활은 평생 즐거운 일이네 청춘이란 모두 다 잠시 동안이지 헛된 명예는 꼭 참고 술 마시며 노래나 부르는 즐거움과 바꿔야지.

이것은 유영이 진사시험에 참가했다가 떨어진 후 푸념을 토로하며 탄식한 작품이다, 전편은 현실좌절과 도피적 생각을 나타낸다.

진사시험에 떨어진 것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준 일이었으나, 그는 오히려 “何須論得喪，才子詞人，自是白衣卿相”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멧쩍음을 감추기 위해 한 말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과 뜻을 이루지 못함에 대한 비통함을 표현한다.¹⁰⁹⁾

과거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것은 연애의 성공으로써 보상받고 있다. ‘未遂風雲便，怎不恣狂蕩’，‘偎紅倚翠’，‘淺斟低唱’ 와 같은 구절에서는 자유롭게 방탕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一餉’，‘青春’의 호의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인은 ‘把浮名換了淺斟低唱’을 원했던 것이다. 또한, ‘忍’ 이라는 이 한 글자가 어쩔 도리가 없었던 해탈의 한 종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가 관직에 대한 열망을 던지시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과 뜻을 이루지 못함에 대한 깊은 상심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踏莎行>-秦觀

霧失樓台，月迷津渡，桃源望斷無尋處。可堪孤館閉春寒，杜鵑聲裏斜陽暮。

109) 張旭, 「問君能有幾多愁——試論宋詞傷感基調的成因」, 《青春歲月》, 2012年08期.

驛寄梅花，魚傳尺素，砌成此恨無重數。郴江幸自繞郴山，爲誰流下瀟湘去。

자욱한 안개로 누대 회미하고, 어스름한 달빛에 나루터 어렴풋하네. 하늘 끝 바라다보며 이상 속 도화원을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구나. 적막한 객잔에 홀로 거하니 스산한 이른 봄추위 견디기 어렵구나. 석양은 서산으로 저무는데 두견새 소리 구슬프다.

옛 친구가 나에게 매화를 부쳐주고, 정겨운 편지도 보내어 주매. 이내 한은 더욱 쌓여 몇 겹인지 모르겠네. 郴江(침강)은 본래 郴山(침산)을 끼고 흐르거늘 어찌하여 瀟湘까지 흘러가려 하는가.

秦觀(1049-1100)은 자는 少游 또는 太虛이고, 호는 淮海居士이다. 젊어서 蘇軾을 좇아 배웠다. 1085년에 進士 출신으로 벼슬은 太學博士, 國史館編修를 지냈다. 黃庭堅, 晁補之, 張耒와 더불어 ‘蘇門四學士’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淮海集》 40권과 《後集》 6권, 詞集으로 《淮海長短句》 3권 등이 있다.

이 작품은 진관이 郴州(지금의 湖南省)에서 유배 당시에 쓴 작품¹¹⁰⁾이다.

상편에서는 추운 겨울날 저녁 외롭게 여관에 있는 사인의 쓸쓸함과 고독함을 묘사하였다. 달힌 문, 추운 봄날, 삐꾸기 소리, 석양이 지는 것을 통해 파면을 당한 사람의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와 불만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의 내심과 실의에 빠져 멍하게 있는 감정을 혼미하고 쓸쓸한 상황 안에서 녹여내고 있다.

하편은 파면의 한을 서술하였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의 쓸쓸하고 애달프고 슬피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작가의 불만을 표현하였다. 앞 세 구절은 典故를 사용하여 ‘驛寄梅花’라고 하여 먼 곳으로부터 온 안부 인사를 나타내고 있다. ‘魚傳尺素’은 친구에게 받은 선물과 편지가 그를 위로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수심을 더하게 함을 표현하고 있다.

뒤의 두 구절은 자신의 감정을 ‘郴江’과 ‘湘江’ 위에 실어 놓고 있다. ‘郴江’의 물에 그의 파면 유배의 근심을 흘러들어가게 하며 자신의 불공평한 운명에 대해 외치고 있다. 작품 전체의 분위기는 쓸쓸하고 우아하다. 봉건사회 사대부들이 유배를 당한 실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110) 黃澤芳, 「淺說宋詞的感傷性」, 《科教文彙旬刊》, 2010(9). p.61.

<訴衷情>-陸遊

當年萬裏覓封侯，匹馬戍梁州。關河夢斷何處？塵暗舊貂裘。
胡未滅，鬢先秋，淚空流。此生誰料，心在天山，身老滄州。

그 당시 드넓은 만 리 변강에서 공적을 세우고 홀몸으로 량주에 뛰어들었지. 변방의 꿈, 어디에서 끊겼나? 낡고 허름한 모피 만든 갓옷만 덩그러니 남았구나.

오랑캐는 아직도 멸하지 못했거늘 내 귀밑머리는 이미 세었으니 덧없는 눈물만이 흐를 뿐. 인생이 무상하니 마음은 땅 끝 저 멀리에서 외적을 무찌르고 있지만 몸은 이 창주 땅에서 늙어가고 있구나.

육유는 66세에 관직에서 쫓겨나고, 오랜 기간 동안 소흥의 경호구 쪽의 삼산에 머물렀다. 이 문장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¹¹¹⁾

그 당시를 생각하면, ‘匹馬戍梁州(양주에 말을 타고 전쟁에 참가했다)’ 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塵暗舊貂裘(과거 전쟁에서 입었던 군복을 보면서 그 당시를 회상하다)’이다. 마음은 아직도 금나라에 저항하는 전쟁의 전선에 있으나, 몸은 오히려 황량하고 외진 산촌에 있다. 현재와 과거의 비교, 이상과 현실의 모순, 강렬한 감정 차이로 인해 그는 울적하고 의기소침해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소충정>이라는 詞調의 내용은 핍박과 억압으로 인해 나라에 충성할 수 없는 사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이다.

육유가 출생한 두 번째 해에 송나라가 금에 의해 멸망당하고 육유도 중년에 침범당한 고국을 수복하기 위하여 전장에 참전하였으나 자신의 이상처럼 되지 않았다. 이 시는 말년에 육유가 은거한 뒤 이전의 그런 기개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원통해하는 심정을 담은 작품이다. 작가의 일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시간을 묘사하였으며, 현재와 과거의 비교를 통해 애국자의 우여곡절과 불행한 경력을 반영하였다. 큰 뜻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해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는 작가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상편 첫 구절은 작가가 과거 전쟁터에서 말 타고 싸우는 멋진 장면들을 그리워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들은 현실이 아닌 작가의 꿈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에

111) 黃澤芳, 「淺說宋詞的感傷性」, 《科教文彙旬刊》, 2010(9). p.62.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하편은 오랑캐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세의 영웅인 작가는 이미 늙어 버렸다는 한탄을 노래하고 있다.

4) 愛國憂民의 현실적 문제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북송이 멸망 후 남도하니 강남은 편안해졌으나 국세가 미약해졌고, 중원은 질서를 잃어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 가장 비분강개하고 격앙된 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온몸에 뜨거운 피가 들끓어 올라 이를 사로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사에서도 호방파가 출연하게 되었다. 더욱 많은 것이 애국 사인의 작품인데, 나라의 미래와 민족의 명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대한 것들이다.

먼저 대표적 애국사인 신기질의 사를 살펴보자.

신기질(1140-1207)은 남송을 대표하는 사인이다. 자가 幼安, 호는 稼軒이다. 역성(歷城, 山東省濟南)사람으로, 출생했을 때에는 금이 이미 북방을 차지한 상태였다. 그는 누구보다 애국심이 투철하여 성장한 뒤에는 耿京이 영도하는 義軍에 참가, 금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하였다. 실패한 뒤에도 호남, 호북, 강서, 복건 등에서 按撫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¹¹²⁾

재임하여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북벌하여 실지 회복을 건의하였으나 주화파(主和派)의 득세로 그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 중용하지 않아 벽지의 한직에서 20여 년을 보냈다. 사풍은 호방하기로 소식과 이 몸을 나란히 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세칭 소(蘇)·신(辛)이라고 하였다. 신기질의 사집으로 『가현장단구(稼軒長短句)』가 있다.

그의 사는 처량하고 激壯하며 감정이 응어리진 듯 沈鬱하며 고통에 괴로워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영웅의 감정을 절절히 표현한 것에 대해 후인들은 그를 평하기를 “橫絕萬古，別有天地”라고 하였다. 그의 업적은 호방파의 여러 사람들을 능가한다. 신기질의 사는 호방할 뿐만 아니라 침울하다. 晩年에는 剛으로 柔를 표현하여 강함과 부드러움이 작품에서 서로 어울린다. 소위 “강철을 수없이 담금질해 손가락에 두를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었다. (百煉鋼化爲繞指柔)”가

112) 周篤文, (鄭惠璟, 河炘心畬건), 『宋代의 詞』, 學古房, 2013, p.158.

바로 그 말이다.¹¹³⁾

<永遇樂>(영우악)-京口北固亭懷古

千古江山，英雄無覓，孫仲謀處。舞榭歌台，風流總被，雨打風吹去。斜陽草樹，尋常巷陌，人道寄奴曾住。想當年、金戈鐵馬，氣吞萬裏如虎。

元嘉草草，封狼居胥，贏得倉皇北顧。四十三年，望中猶記，烽火揚州路。可堪回首，佛狸祠下，一片神鴉社鼓！憑誰問、廉頗老矣，尙能飯否？

천고 강산에 손권 같은 영웅을 찾을 곳이 없네. 춤을 추면 노래하고 놀던 누대에 풍류는 모두 비바람에 씻기어 사라졌네. 초목을 비추는 석양의 거리는 일찍이 기노(寄奴 송나라武帝 劉裕의 字)가 살던 곳이라 하네. 당시 일을 생각하면 번쩍이는 금빛 창과 무장한 말로 기운이 호랑이처럼 만리를 삼키네.

元嘉 시절에 경솔히도 狼居胥 산에서 감사제를 지내려다 창황하게 북쪽을 바라보는 꼴이 됐네. 사십 삼 년 전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 양주로에 봉화가 오르던 일을 어찌 고개 돌려 쳐다볼 수 있으랴? 佛狸祠 아래에서 울어대는 까마귀와 사당의 북소리 누구에게 물어보리? 廉頗는 비록 늙었으나 아직까지 밥은 잘 먹으며 지내는지?

신기질의 수심은 파괴된 山河를 떠돌아다니며 전전하는 생활 속에서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훈과 업적을 이루지 못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는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느끼는 슬픔이며 나라를 위한 걱정이다. 우국의 정서, 고고한 절개를 표현한다.

이 사는 작가가 66세에 지은 것이다. 신기질은 68세에 사망하였으니 영웅 만년의 심정을 이 작품에서 보는 듯하다. 작자가 嘉泰 4년(1205) 경 鎮江知府로 있을 때 지은 것이다. 남송이 금을 치기 위해 북벌을 준비하던 시절 당시 작자는 韓侂胄의 북벌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한타주는 왕실의 外戚으로 대권을 장악한 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北伐을 서두르며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때문에 신기질은 한타주의 경솔한 北伐策을 반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신기질은 배척을 받게 되었다.¹¹⁴⁾

113) 이경규, 『당송사』, 제이앤씨, 2007, p.213.

114) 李東鄉, 『辛棄疾詞의 用典』, 『中國語文論叢』, 중국어문연구회, 2001, p.230.

상편에서는 경구에서 활약했던 孫權과 劉裕를 회고하였다. 삼국시대 손권은 경구를 근거로 북쪽에서 침략해오는 조조를 맞아 싸워 나라를 지켰다. 그 다음 역사적 인물인 유유를 서술한다. 유유는 북벌을 했으며, 황하 이남의 대규모 지역을 수복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을 찬양하는 이면에는 당시 남송에는 이들과 같은 영웅 인물이 없는 것을 개탄하고, 유약하고 부패한 남송의 조정을 비판하는 뜻이 담긴 것이다.

작가는 현실에 대해 한탄하며, 손권과 유유 모두 전쟁 중에 업적을 이뤘으며 나라를 세웠는데 남송의 왕실은 일부 지역만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과거와 현실을 비교하여 남송 왕실의 약세를 더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하편의 앞선 세 구절은 유유의 아들인 劉義隆을 풍자하고자 宋 文帝의 북벌 실패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면서 남송 왕실에게 토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금나라 토벌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실 작가의 예견은 역사로 증명되고 있다. 韓侂胄는 경고를 무시하고 北伐을 서두르며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고 그 결과 誅殺 당하였다.

佛狸祠는 격과당한 후 瓜步山(지금의 江蘇省 六合縣)위에 지은 사당이였다. 佛狸祠가 실패의 상징이다. 하지만 작가는 지금 백성들이 옛날의 일을 알지 못해 佛狸祠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보며, 국세가 기운 것을 한탄하였다.

끝으로 작가는 자신을 전국시대의 명장 廉頗에 비유하면서, 중원을 수복할 수 있는 재략을 지니고 있지만 배척을 받아 쓰이지 못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말한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금나라에 저항하는 웅대한 마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의 <水龍吟>(登建康賞心亭)에서는 悲秋의 분위기에서 세월의 흐름과 인생 수유를 표현하고, 자신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없는 현실과 큰 뜻을 펼칠 수 없음에 대한 울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水龍吟>(수룡음)-신기질

楚天千里清秋， 水隨天去秋無際。遙岑遠目， 獻愁供恨， 玉簪螺髻。落日樓頭， 斷鴻聲裏，江南遊子， 把吳鉤看了，闌幹拍遍， 無人會， 登臨意。

休說鱸魚堪膾，儘西風、季鷹歸未。求田問舍，怕應羞見，劉郎才氣。可惜流年，憂愁風雨，樹猶如此。倩何人，喚取，紅巾翠袖，搵英雄淚。

초(楚)나라의 하늘은 천리까지 뻗어 맑은 가을이 펼쳐지고, 강물은 하늘을 따라 흘러가니 가을은 끝이 없네. 아득하게 높이 솟은 재를 멀리서 바라보니, 수심과 원망이 일어나는데 봉우리는 옥비녀 꽃고 소라처럼 상투를 틀어 올린 모양이네. 석양이 누대 위에 드리우자, 무리를 잃은 기러기는 울고 나는 그 소리를 듣는다. 강남에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오(吳)나라의 창과 칼을 보고 난간을 두드리니 누구도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며 느끼는 감회를 모를 것이라네.

농어의 회 맛이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서풍이 분다해도 나는 장한(張翰)처럼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네. 전답을 구하고 거처를 묻는 이들(許汜)은 아마도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니 유비(劉備)의 재기가 돋보이네. 흐르는 세월을 슬퍼하니 근심과 비바람 속에서도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네. 아름다운 누군가를 불러서 붉은 수건과 푸른 소매로 영웅의 눈물을 닦게 하고 싶네.

이 시기는 南渡한 지 이미 8, 9년이 지났을 때로, 그가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있으나 이를 수 없는 때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위의 사에서 산에 올라 주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가슴에 맺힌 울분의 정서를 쏟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였다. 인생에 대한 실망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거대한 포부가 방향성과 목표를 상실하자, 기탁할 곳이 없어 배회하고 있는데, 이런 작가의 아득하고 막연한 심리가 진지하게 드러난다. 특히 고통스러운 심정을 ‘수심과 원망’, ‘무리를 잃은 기러기’, ‘근심과 비바람’ 등을 통해 세밀하게 호소한다.

사의 상편은 작자가 상심정(賞心亭) 위에서 바라다 본 가을 강의 정경이다. 賞心亭에 오른 후 경치를 보면서 작자 자신은 경치를 통해 가득 찬 근심을 표현한다. ‘楚天千裏清秋，水隨天去秋無際’ 라고 한 부분은 작자가 賞心亭 위에서 바라다 본 가을 강의 정경이다. 이는 ‘초나라의 하늘은 천리여서 아득하고 광활하며 가을 분위기가 끝없이 펼쳐지고, 큰 강은 하늘을 향해 흘러가는데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여 산천의 광활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 같은 가을 강의 광활함은 다음 구인 ‘遙岑遠目，獻愁共恨.(아득한 산을 멀리 바라보면, 시름과 한을

자아내네.)’에서 작자의 시름과 한이 깊고 광활함을 두드러지게 표현 해 준다.

‘把吳鉤看聊’ 중 ‘看’, ‘拍’ 는 보고, 치고 라는 동작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가득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원래 전장에서 적을 죽이는 무기인 오구(吳鉤)는 현재 쓰이지 않는데, 이러한 사물에 빗대어 슬픔을 유추하게 하고 있다.¹¹⁵⁾ ‘關幹拍徧’는 난간을 치면서 작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해소하고, 자신이 재락을 지니고 있음에도 배척을 받아 쓰이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無人會 登臨意’ 는 그가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있으나 남송 조정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아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편에서는 주변 경치의 묘사를 통해 자신의 報國할 길이 없음과 원대한 뜻을 펼칠 수 없는 데서 오는 울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하편에서는 직접적으로 중원회복의 뜻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한 작가의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하편은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세 개의 典故를 사용하였다. 첫째 전고는 고향의 맛있는 회를 먹기 위해 몸담고 있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계웅(季鷹, 晉朝)처럼 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둘째, 셋째 전고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만의 안위를 찾는 허사(許汜, 三國時代)에 대해 작가인 신기질은 같은 민족으로서 치욕적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나라가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등용하지 않고 세월을 허송케 하는 것(樹猶如此¹¹⁶⁾)을 한탄하였다. 이 부분은 전체의 最高潮이다.

그 다음으로 금나라에 대항한 남송의 명장인 악비가 북벌할 때를 다룬 유명한 작품 <滿江紅·怒發沖冠>을 살펴보자.

<滿江紅>-악비

怒發沖冠，憑欄處、瀟瀟雨歇。抬望眼、仰天長嘯，壯懷激烈。三十功名塵與土，
八千裏路雲和月。莫等閑、白了少年頭，空悲切。
靖康恥，猶未雪。臣子恨，何時滅？駕長車，踏破賀蘭山缺。壯志饑餐胡虜肉，
笑談渴飲匈奴血。待從頭，收拾舊山河，朝天闕。

성난 머리칼은 관을 뚫을 정도 인데,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니 쓸쓸히 내리던 비가 그치네.

115) 上疆村民, 앞의 책, p.264.

116) “樹猶如此”: “桓公(桓溫)北伐,經金城,見前爲琅琊時種柳皆已十圍,慨然曰“木猶如此,人何以堪!” -劉義慶,《世說新語言語》. 此三句歎時光流逝、功名未就,而國事飄搖。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소리 지르니, 장사의 감회가 끊어오른다. 삼십 년 간 쌓은 공명이 먼지에 불과하고, 팔천 리 내달렸던 길도 그저 구름과 달빛처럼 흔적이 없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젊었던 머리카락은 어느새 희어졌으니, 그저 비감한 마음에 애절할 뿐.

정강의 치욕은 아직 씻지 못했으니 신하로서의 한을 언제쯤이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전차를 몰고, 하란산을 짓밟아 무너뜨리리라. 배고프면 오랑캐의 살로 배를 채우며, 목마르면 흉노의 피를 마시리라. 옛 산하를 다시 되찾은 후에 황제를 만나러 가리라.

상편에서는¹¹⁷⁾ 작가가 나라를 위해 공로를 세우려는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노발충관’의 네 글자는 사마천이 인상여의 기묘함을 묘사한 ‘怒發上冲冠(노발상충관)’에서 온 것이며 과장법으로 불공대천의 깊은 원한을 표현한 것이다. ‘三十功名塵與土’는 공명을 세우기를 갈망하고 열심히 싸우려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옛사람은 삼십 세의 장년기에는 공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악비는 자신의 공명은 먼지와도 같아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八千裏路雲和月’은 맑은 날 흐린 날 가리지 않고 남북으로 전전하며 중원 땅을 수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이다. ‘젊은 시절을 되는대로 보내고 늙어서 후회하지 말라’는 구절은 작가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당시 금나라 병사를 타격하고 중원 땅을 수복하는 투쟁 중에 투지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는 화의를 주장하며 강남에 안주하여 원하는 투항과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하편에서는 세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다. 금나라 약탈자에 대한 깊은 원한과 조국통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조정에 충실하고 조국에 충실한 적심이다. ‘정강’은 송 흠종 조환의 연호이다. ‘猶未雪’은 아직 복수를 하지 못하고 원한도 풀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강’의 치욕을 씻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악비는 심중의 한을 언제서야 없앨 수 있겠느냐는 “신하의 한, 언제 소멸되리” 라는 한탄을 나타냈다. 이는 그가 ‘駕長車踏破賀蘭山缺’한 원인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전차를 ‘장차’라고 하였다.

하란산은 오늘의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寧夏回族自治區)의 서북변이다. 《서청시화(西淸詩話)》에는 요사종(姚嗣宗)의 《공동산(崆峒山)》시가 실려 있다. ‘踏碎賀蘭

117) 唐圭璋 等, 《唐宋詞鑒賞辭典》, (南宋·遼·金卷), 上海辭書出版社, 1988, pp.1297~1299.

石, 掃清西海塵'의 이 두 시구는 서하국을 말한 것인데 “하란석”이라고 쓰여 있다. 요사종은 북송 사람인데 악비는 이 시구를 빌어 또 요사종이 서하국을 물리치려는 큰 뜻으로 자신이 금나라 병사를 물리치려는 호기를 나타내고 있다. ‘壯志饑餐胡虜肉, 笑談渴飲匈奴血’에서는 작가가 적군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원한과 복수를 하여 치욕을 씻으려는 결심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胡虜’는 옛날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에 대한 모욕적인 칭호이다. ‘호로’, ‘흉노’는 금나라 약탈자를 가리킨다. 마지막 두 구절인 ‘待從頭、收拾舊山河, 朝天闕’에서는 중원 땅을 수복하고 조국을 통일한 후, 승리의 소식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舊山河’는 함락된 지역을 말하고 ‘天闕’은 조정을 말한다. 고대에는 진보적인 지식인이 조정에 충실한 것이 곧 애국이라고 생각했다. ‘조정에 충실한 것’과 애국은 늘 연결되어 있었다. 때문에 악비가 이 사에서 표현한 조정에 충실한 사상과 적군을 물리치고 조국 땅을 보위하려는 웅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예술적으로 볼 때 이 사는 氣勢가 드높고 풍격이 호방하며 구성이 빈틈없고 감화력이 강하다.

다음으로는 우민 정서를 표현하는 주제를 살펴보자.

신기질의 사에는 애국뿐만 아니라 憂民 의식도 조금 드러난다. 일반 백성에 대한 동정과 관심도 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玉樓春(옥루춘)의 “靑山不會乘雲去. 怕有愚公驚著汝. 人間踏地出租錢, 借使移將無著處. (청산은 구름 타고 옮겨 갈 줄 몰라, 우공이 산 옮기는 것을 보고 놀랐겠지. 인간세상에선 땅만 밟아도 세금이니, 옮겨가려 해도 정착할 곳 없다네)”에서 ‘人間踏地出租錢(땅만 밟아도 세금을 낸다네)’라는 구절은 원래 소식의 <魚蠻子(어만자)>시의 ‘人間行路難, 踏地出賦租(세상길 험난해, 땅만 밟아도 세금을 낸다네)’라는 詩句에서 온 것이다¹¹⁸⁾. 그 당시에는 밭만 딛어도 세금을 부과했으니 백성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는 浣溪沙(완계사)의 “父老爭言雨水勻. 眉頭不似去年顰. 殷勤謝卻甌中塵.(노인들 한 마디씩 떠드네. 비가 알맞게 내려 작년처럼 미간 찌푸릴 일 없겠다고. 정성스레 시루 속 먼지를 터네.)”에서는 지난해에는 가뭄이 들어서 민생이 살기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 미간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궁핍한 농촌 생활을 엿볼 수 있다.

118) 周篤文, 앞의 책, p.163.

신기질은 남송의 애국 시인으로 유명하고, 육유는 남송의 애국 시인으로 유명하다. 육유는 남송의 애국우민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육유의 호는 방옹(放翁)이며, ‘소 이백(小李白)’이라 불렸다. 육유의 시 중에는 애국우민의 주제가 많으며, 청나라의 애국자 양계초(梁啓超)는 육유의 시집을 본 후 <讀陸放翁集>이라는 한 수를 지었는데, 이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인 “集中十九從軍樂，亘古男兒一放翁!”¹¹⁹⁾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육유의 시 대부분이 나라를 위한 종군이 갈망과 쾌락임을 묘사하면서, 예로부터 현재까지의 시인 중에서 육유야말로 진정한 사내대장부라고 칭송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도 육유의 애국우민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육유의 사보다 한시 속에서 그의 강렬한 애국심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秋夜將曉出籬門迎涼有感>에서 “遺民淚盡胡塵裏，南望王師又一年(금나라 침입 속 눈물 마른 유민들, 남쪽 왕의 군대를 기다리며 또 한 해를 보내네.)”라는 詩句에서부터 絶筆詩 <示兒>에서 “王師北定中原日，家祭無忘告乃翁(천자의 군대가 북에서 중원을 되찾는 날, 제사 지낼 때 나에게 알리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시구까지 육유의 평생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 이는 바로 抗金과 북방 땅의 수복이다. 이 몇 마디의 시문을 통해서도 육유의 애국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遺民淚盡胡塵裏’에서의 우민의 정서와 유사한 내용의 시문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다음은 고통 받는 농민을 동정한 시:

<寄朱元晦提學>

| | |
|-------|------------------------|
| 市聚蕭條極 | 상업 중심지에는 불황이 극에 달하고 |
| 村墟凍餒稠 | 농촌에는 춥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네. |
| 勸分無積粟 | 나눠 먹을 것을 권하나 쌓아둔 양식 없고 |
| 告糴未通流 | 유통금지법 때문에 식량이 유통되지 않네. |
| 民望甚饑渴 | 백성들은 기근으로 심하게 고통 받는데 |
| 公行胡滯留 | 그대는 어찌하여 행정에 융통성이 없는가? |
| 征科得寬否 | 征科의 기한을 늦춰줄 순 없는지? |
| 尙及麥禾秋 | 가을에 보리·벼의 추수가 끝난 후에라도. |

119) 詩界千年靡靡風，兵魂銷盡國魂空。集中十九從軍樂，亘古男兒一放翁。 - 清，梁啓超，《讀陸放翁集四首》其一。

시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육유는 이 시를 통해 주희에게 민생을 구휼해 달라는 자신의 뜻을 제시하면서 주희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시의 앞 두 구절은 불황에 휩쓸려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의 불쌍함을 표현한 것이며, ‘極’ 와 ‘稠’는 걱정과 자신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은 기근과 타 지방에서의 부족한 식량을 도움받을 수 없는 유통금지법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의 절망감을 묘사한 것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절은 유통성 없는 법 적용을 일삼는 행정 관료들을 꾸짖고, 이런 태도의 행정 관료들이 이재민을 구제할 수 없음을 책망하는 것으로 작가가 행정 관료들에게 느끼는 원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두 구절은 문답 형식으로 이재민들이 추수 후 내는 세금을 후에 지급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으로써 유통성 없는 관료들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관료들은 이재민의 삶과 죽음에는 도통 관심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육유는 이 시를 주희에게 보내 조세의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당시 浙東 지방에 가뭄으로 기근이 들었는데도, 유통금지법 때문에 타지방에서 곡식을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세금까지 평소와 같이 부과하니, 농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 법을 집행하는 지방 관리들은 원칙만을 고수하자 시인은 농민들에 대한 연민이 더욱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때 다행히 지인인 주희가 파견되자 서찰을 보내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였다. 중앙관료들은 탁상행정으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가 없었고, 지방 관리들은 무사안일로 원칙만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공과만을 생각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았다. 주희에게 법을 유통성 있게 집행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를 권했던 것이다.¹²⁰⁾

다음은 과중한 조세와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한 시

<秋獲歌>

牆頭累累柿子黃 담장 위에 주렁주렁 단감이 노랗게 열리고,

120) 문관수, 『南宋四大家의 애국우민사상 비교: 전원시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31집, (2005.12), p.123.

人家秋獲爭登場 집집마다 벼를 탈곡하려고 탈곡장에 다투어 선다.
 長碓搗珠照地光 긴 공이로 절구질하니 옥 같은 쌀알이 땅에서 빛나고,
 大甌炊玉連村香 큰 솥으로 밥 지으니 햅쌀 향기가 온 마을에 그윽하다
 萬人牆進輸官倉 많은 사람이 담장으로 들어와 관창에 조세를 납부하고,
 倉吏炙冷不暇嘗 창고 관리는 바빠서 구운 고기 먹을 시간조차 없네.
 訟事散去喜若狂 일이 닳치자 흩어져 가서는 미친 듯이 기뻐하고.
 醉臥相枕官道傍 취해서 관청으로 가는 길가에서 서로 베고 잠을 잔다.
 數年斯民厄凶荒 수년 간 이곳의 주민들은 흉년으로 고생하여
 轉徙溝壑殍相望 수렁을 전진하며 굶어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縣吏亭長如餓狼 현청의 관리와 亭長은 굶주린 늑대와 같아.
 婦女怖死兒童僵 부녀자들은 공포에 떨다 죽고 아이들은 자빠져 죽었다.
 豈知皇天賜豐穰 하늘에서 풍년을 내려줄지 어떻게 알았으랴,
 畝收一鍾富萬箱 一畝의 논에서 一鍾을 수확하니 뒤주마다 가득하다.
 我願鄰曲謹蓋藏 내가 바라건대 이웃들이 식량을 잘 보관하여,
 縮衣節食勤耕桑 근심절약하고 농사일에 힘쓰길 바랄 뿐이다.
 追思食不饜糟糠 쪽정이라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던 때를 유념해서,
 勿使水旱憂堯湯 堯때 수재와 湯王 때처럼 가뭄이 와도 근심하지 않게 하라.

이 시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수년 간 계속되어 기아에 죽어간 이들을 애도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방 관리들을 굶주린 늑대에 비유하는 것으로 탐관오리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구에서는 올해에는 풍년이 들어 굶어 죽을 염려가 없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요나라 우임금 때의 9년 간의 수재나 湯王 때의 7년 간의 가뭄이 닳쳐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충고하고 있다. 관청에서는 수리시설을 잘 보수하여 수재와 가뭄을 당하지 않게 하고, 백성들은 근검절약하여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시에서는 풍년이 들어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현실과 과거 지방 관리의 황포에 죽어간 천지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참담한 농촌의 현실을 부각시켰다. 육유 본인도 지방 관리이지만 당시 지방 관리들의 만행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대변한 것이다.

<四時田園雜興>-範成大

采菱辛苦廢犁鋤 마름 풀 따느라 고생스러워 쟁기·호미도 버리고

血指流丹鬼質枯 손가락에는 피가 흐르고 앙상하여 귀신물골이라
 無力買田聊種水 논밭 살 돈 없어 수면에 의지하는데
 近來湖面亦收租 요사이는 수면에도 조세를 내야하는가

範成大는 위대한 전원시의 집대성자로 작품 속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많이 반영하였다. 그 시대에 당시 농민들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지방관리가 부당하게 징수하는 세금이었다. 앞에서는 힘든 농사일을 하는 농민의 삶을 알려주고 ‘近來湖面亦收租(요사이 수면에도 조세를 내야하는가)’ 라는 구절에서는 법에도 없는 세금까지 거두는 것을 풍자하였다. 과중한 조세의 부당함과 관리의 비행을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위에서 살펴본 듯 송사에서는 봉건사회의 현실 문제 갈등이 많이 보이지 않고 이는 송사에서 많이 드러난다. 문인들이 시와 사의 기능을 나누어 생각했기 때문이다. 송대의 문인들은 시를 통해서 정치, 사회의 비판과 우환 의식을 표현하고, 사를 통해서 개인의 정서와 호방한 감정을 표현하였다.¹²¹⁾ 이런 차별화는 대학자 구양수가 쓴 艷詞와 한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구양수의 염사와 한시를 읽으면 마치 두 사람이 쓴 작품인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송대의 문인들이 이를 ‘文以載道(문장으로 도리를 싣고 표현한다)’, ‘詩以言志(시로써 뜻을 나타내다.)’라고 하였다. 시, 문장, 사의 기능을 나누어 생각했기 때문에 사를 통해 송대 문인들의 가면을 벗게 하고 진실한 감정을 표출하게 하였다. 명나라의 陳子龍은 “宋人不知詩而強作詩. 其爲詩也, 言理而不言情, 故終宋之世無詩焉. 然宋人歡愉愁怨之致, 動於中而不能抑者, 類發於詩餘, 故其所造獨工.”¹²²⁾ 라고 하여 송대의 문인들은 ‘言理而不言情(이치를 말하고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시의 특성 때문에, 시 속에서 토로할 수 없는 감정은 사를 통해 표현이 이루어 졌다. 이는 사의 서정성과婉約한 유희적 주제의 풍격을 형성 시켰다.¹²³⁾

121) “宋代文人大以詩文來表現對於政治、社會的批判與憂患意識，詞則用來書寫個人的幽約情愫或萬千豪情故詩文和詞自北宋起有明確的分工：詩文述志、詞以娛情。此種情形，尤以北宋最爲明顯；一代儒宗歐陽修的豔詞寫得纏綿綺麗，與其詩文如出二手。宋朝士大夫既有豐富的聲色享受，又有細膩溫婉的審美觀點，詞便成爲最適合他們宣洩內心衷曲的管道。” 陳姿羽，「論柳永詞中的娼妓書寫」，國立臺北教育大學 語文與創作學系，碩士學位論文，2013, p.5.

122) 清,王奕清等, 撰 《禦選歷代詩餘 詞話》, 據《詞話叢編》, p.1335.

123) “正因‘文以載道’, ‘詩以言志’的文體分工的觀念普遍存在於宋代文人心中, 所以詞得以成爲宋人卸下

3. 총괄적 논의

위의 1절과 2절에서 고려속요와 송사의 주제의식을 각각 분류하고 남녀상열 및 이별과 그리움의 감상적 주제의식에 따른 인생의 비애 또는 현실적인 주제의식에 대해서 분류해 보았다. 송사에 대한 남녀상열, 이별과 그리움의 감상적 주제의식, 인생무상의 비애, 不遇·타향살이·고향의 그리움, 愛國憂民의 현실적 주제의식 등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송사에서 나온 주제의식은 현실적인 애국사 이외에도 인생무상의 비애나 벼슬길의 不遇·타향살이·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려속요의 내용 주제보다 더 다양하지만 사랑과 이별, 그리움의 감상적 주제는 작품의 대부분에 나타나 있다. 이는 중국 고전시가에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예를 들면 규원, 그리움, 이별, 회고, 가을철을 쓸쓸하게 여겨 슬퍼함, 봄날의 경치에 끌려 마음 속에 일어나는 情恨 등 기본적인 주제들이 예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진다.

고려속요에서 나온 남녀상열, 이별, 그리움 주제 내용인 임의 부재로 그리움의 슬픔을 표현하는 <동동>, 임과의 이별로 인한 견딜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가시리>, ‘역설적 과장’으로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면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정석가>, ‘질삼뱀’을 버리고 사랑하는 임을 따르겠다는 <서경별곡> 등을 살펴봤다. 또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기다림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정읍사>,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고단했던 삶을 버텨내고 자기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상곡>,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과 동시에 임을 원망하면서도 그에 따른 갈등과 고뇌를 극복하고 긍정적 지향을 표현하는 <만전춘별사>, 그리고 고려시대 시대상황과 성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面具의言情之作，成爲宋人宣泄情緒的肺腑之言。明代陳子龍說：“宋人不知詩而強作詩。其爲詩也，言理而不言情，故終宋之世無詩焉。然宋人歡愉愁怨之致，動於中而不能抑者，類發於詩餘，故其所造獨工。”也就是說，宋人淤積於胸的感情，因宋詩的‘言理而不言情’的特色，在詩中無處宣泄，所以全部湧向詞中，於是‘遣興娛賓’的消極詞論在這裏轉化成早就詞體狹深抒情性和婉約唯美主題風格形成的積極動力，爲詞的抒情提供了求真，求美而不必求善的條件。”林燕始， 앞의 논문, p.9.

<쌍화점>도 분석하였다.

고려속요와 송사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송사가 고려속요보다 주제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속요와 송사의 공통적인 주제는 사랑, 이별, 그리움, 인생비애로 나눌 수 있다.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라면 송사에서의 不遇·타향살이·고향의 그리움에 대한 주제는 고려속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속요의 번역인 소악부에서 보이는 봉건사회의 현실 문제이자 기본적인 모순인 농민과 지주 사이의 갈등이 송사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점도 내용적 특징 중 하나였다.

고려속요 14편 중에서 <사모곡>은 사친의 정을 이야기하고, <상저가>는 효도의 뜻을 이야기한다. <정과정>은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의 내용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청산별곡>은 인생 고뇌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구분되어지며, <유구곡>은 워낙 짧아서 주제를 잡기 어렵다.

고려속요와 송사 전체를 논의할 때 이 다섯 곡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동류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류향이란 ‘사랑’을 이야기한다. 사랑의 노래를 여성으로 보아도 별로 무리가 없는 화자의 입장에서 여러 단계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 단계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도 역시 쉽게 눈에 띄는 현상이다.¹²⁴⁾ ‘임에 대한 사랑’과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슬픔’을 노래한 작품의 대부분은 고려속요에 속한다.

사랑은 오랜 기간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문학 주제이며, 언제나 다양한 시대의 문인들에게 총애를 받는 주제이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 또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항상 이별의 아픔을 겪는다. 특히, 불안정한 고대 사회 환경에서 사람들은 생활, 공명을 위해서 자주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벼슬길에 나서기도 한다. 또 변방 국경을 위해 군에 끌려가거나, 떠돌아다니다 정치투쟁으로 인해 유배를 당하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좋은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부재로 이별기간 중에 서로 연락이 힘들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기간이 사랑하는 기간보다 길다. 남녀상열지정은 항상 이별의 아픔을 감내하고 심지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이별하는 사람의

124)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p.21.

마음속 그리움에 대한 고통을 상상할 수 있다.

바로 ‘多情自古傷別離(다정한 사람은 예부터 이별을 슬퍼하는 법인데)’, 다양한 이별을 경험한 작가들은 대량의 작품을 통해서 사랑과 이별의 고통을 표현했으며, 오랫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것 또한 한·중 문학에서 공통의 주제가 되었다.

임과 헤어지겠다는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삼아 남녀 간 변함없는 사랑을 전달한 <정석가>와 거의 비슷한 표현방식의 漢樂府民歌로 樂府詩集에 실려 있는 <上邪>를 보자.

| | |
|---------|-----------------------------|
| 上邪, | 하늘이시여 |
| 我欲與君相知, | 내가 당신과 서로 알게 되고부터는 |
| 長命無絕衰。 | 오래 살며 언제까지나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
| 山無陵, |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
| 江水爲竭。 | 강물이 말라 없어지고 |
| 冬雷震震, | 겨울에 우레가 우르르 치고 |
| 夏雨雪。 | 여름에 눈이 내린다든지 |
| 天地合, | 하늘과 땅이 붙는 변고가 생기면 |
| 乃敢與君絕。 | 그제서야 할 수 없이 그대와 헤어지리다. |

불가능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 영원을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마지막 대목에 임과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헤어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과 기상이변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 가지도 일어나기 어려운데, 이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야 임과 헤어질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는가. 역시 불가능한 사항을 전제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러한 노래가 이어지며 한국에도 어떤 영향을 주었던 듯하며 그 후 이러한 표현적 특징이 고려 말 시가의 한 흐름이 된 듯하다.¹²⁵⁾

또는 송사에 영향을 미친 ‘돈황곡자사’ 중의 <菩薩蠻(보살만)>¹²⁶⁾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25) 허남춘, 『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사, 2010, p.107.

126) 王重民, 『敦煌曲子詞集』, 學古房, 2012, p.33.

枕前發盡千般願，要休且待青山爛。水面上秤錘浮，直待黃河徹底枯。

白日參辰現，北門回南面。休即未能休，且待三更見日頭。

베갯머리서 천만 번 맹세하길. 이 사랑, 청산이 문드러져야 끝나리, 물위로 저울추 떠오르고, 황하가 물이 완전히 말라야 끝나리.

대낮에 삼별, 진별이 함께 뜨고, 북 두성이 남쪽으로 돌아야 끝나리. 그래도 아직은 못 끝나니, 한밤중에 햇님이 보여야 끝나리.

이 사는 민간 애정사로 사랑의 맹세를 굳은 신념과 열정으로 잘 드러낸다. ‘청산이 문드러’ ‘저울추 떠오르고’ ‘황하가 말라야’ ‘대낮에 삼별, 진별이 함께 뜨고’ ‘북 두성이 남쪽으로 돌아야’ ‘한밤중에 햇님이 보여야.’ 이 여섯까지 절대 실현 불가능 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임과 떠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한다. 정석가에서 ‘삭삭기 세물에 별헤 나난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有德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라는 불가능의 역설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송사에 기록된 주제를 세밀하게 구분하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별의 슬픔·국가의 원한·세상살이의 험난함·영웅의 늙어감·국가에 보답할 길이 없는 충정의 보은 및 청춘은 묶어 둘 수 없고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¹²⁷⁾ 등 고려속요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송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많지만 정리를 하면 위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표현하는 주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우울하고 슬픈 일의 내용들이다.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이별에 그리움을 호소하는 남녀이거나 실의에 차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길 잃은 호걸들이다. 이들은 외롭고 적막한 생활에 煩惱하며 傷心하고 사랑에 대해 呻吟한다. 이런 비극성과 감상성¹²⁸⁾은 바로 양해명의 <당송사사> 에서 말하는 송사의 총체적인 특색이다.

고려속요의 경우 남녀 간의 애정 또는 그에 따른 이별의 애뜻함을 담은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동>·<만전춘>·<이상곡>·<서경별곡>·<정석가>·<가시리> 등은 임을 향한 기다림과 그리움, 이별의 정서를 주된 소재로 하고 있다. 속요는 그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다양하긴 하나 남녀상열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노래들은 참담한 삶에서 비롯된 아픔을

127) 양해명, 앞의 책, p.23.

128) 양해명, 앞의 책, p.23.

노래하거나 사랑하는 입과 이별함에서 오는 고통을 노래하는데, 모두가 비극성을 갖고 있다. 암울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 비극적인 면모가 두드러짐이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비극성과 감상성의 주제의식은 고려속요와 송사의 공통된 점이다.

고려속요에 등장하는 화자 중 <만전춘별사>에 등장하는 화자는 마지막 연에 따라 남성화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작품인 <가시리>·<동동>·<이상곡>·<서경별곡>·<정읍사>·<쌍화점> 등을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작품 속 화자를 모두 여성으로 보았다. 송사에서 화간사의 영향으로 인해 남성 작자가 작품 속 화자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면, 송사는 속요에서 볼 수 없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영, 주방연, 안기도 등은 사에서 남성화자가 여성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안기도의 <臨江仙>에서는 歌妓 중 蘋을 그리워하며 지은 사를 볼 수 있고, 周邦彦의 <早梅芳>에서는 사랑하는 여인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여인을 버려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작자의 괴로운 심정을 느낄 수 있다. 또 유영의 <雨林鈴>에서는 남성화자가 배를 타고 떠나며 느끼는 이별의 서글픔과 남성의 입장에서 앞으로 맞이할 旅路, 이별 후에 겪게 될 고독의 상심, 그리움의 悲感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화자의 입장에서 여성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려속요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이다. 아울러 <雨林鈴>에서 배를 타서 떠나기 전 이별을 앞둔 심정은 <서경별곡>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송사에서 여성사인 이청조의 사에서 여성 화자로서 남성 작자보다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수 있다. ‘此情無計可消除, 才下眉頭, 卻上心頭(그리운 이 마음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네, 겨우 눈썹에서 내려오나 했건만, 다시 마음 위로 올라오네)’에서 세밀한 묘사를 통해 그리움의 근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섬세한 묘사는 고려속요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고려속요의 화자의 태도를 보면 이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고독과 불안으로 나눌 수 있다. <동동>·<가시리>·<만전춘별사>·<이상곡>에서는 화자의 고독을, <서경별곡>·<정읍사>에서는 화자의 불안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고독 또는 불안의 반응은 화자의 상태가 이미 혼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즉 이별의 순간이 갈등으로 구성된 것은 질투와 인내로 반응이 각기 달리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듯 갈등의 존재는 임 또는 사랑이며, 화자의 상태는 <쌍화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혼자의 상태이거나 혼자가 되는 순간이다.¹²⁹⁾

<정읍사>에는 이러한 여성화자의 불안한 심리가 잘 나타나고 있다. 여성화자는 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으며 다독이고 있다.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그 불안을 표출하고 앓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달에게 기원함으로써 기다림의 애절한 마음이 더욱 진실하게 드러난다. 감정의 절제와 표현에 대해 비교해 보면 <정읍사>가 <가시리>보다는 적극적이고, <서경별곡> 보다는 소극적인 작품이다. 돌아오실까 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는 <가시리>의 여성보다는 돌아올 것을 믿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달에게 기원하는 기다림의 자세는 좀 더 의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질삼뵈까지 버리며 떠나는 임을 울면서 쫓는 <서경별곡> 여성보다는 소극적이다.

이와 비슷한 점은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한 송사에서 ‘相見休言有淚珠，酒闌重得敘歡娛 (서로 만나 말없이 구슬 같은 눈물만, 술자리 깊어지니 기쁨을 다시 말하네)’와 같은 만나는 장면을 표현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랑하고 있지만 이별하게 된 상황 속에 혼자 남은 고독과 원망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周邦彥의 ‘江南人去路緲，信未通·愁已先到’，歐陽修的 ‘別後不知君遠近，觸目淒涼多少悶’에서 근심과 고독을 잘 표현하고 있다. 송사에 나오는 여성 모습이 거의 다 ‘淚，怨，愁，恨，嘆’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모습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송사의 이별, 그리움의 내용에서 자신을 떠나간 임을 못 잊어하면서 괴로워하는 심정은 <가시리>·<동동> 등 이별의 한과 수심을 노래하는 속요와 같다. 하지만 <가시리>·<동동>의 화자는 한이나 수심을 승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면도 보인다. 그러나 애절함은 덜하다. 이런 반면에 송사에서는 원망과 슬픔을 강조한다. 안기도의 ‘淚彈不盡臨窗滴’，이청조의 ‘寂寞深閨，柔腸一寸愁千縷’ 같은 슬픔과 ‘萬葉千聲皆是恨’ 같은 원망은 송사에서 주로 나타나고 많이 쓰인다.

고려속요에 나타내는 남녀 연정과 이별의 주제로 편향된 점은 송사에서도 보인다. 송사에서 화간사의 영향을 받고 북송 시기의 작품이 춘원과 연정을 그렸으며, 작자의 작품이 남녀상열적이며 환락과 성색에 관계되는 것이 많다.

129) 최미정, 앞의 책, p.27.

이런 공통성을 지니는 속요와 송사의 영향관계에 대해 김쾌덕은 송의 사문학이 일반 시와 다른 내용적 특성, 즉 춘원이나 규정이 많은 사의 성향에 속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리라 여겼다. 그리하여 속가 향유자들의 취향과 시대적 상황이 부가적으로 작용하여 송사의 내용이 속가의 내용형성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¹³⁰⁾

<만전춘별사>는 이런 영향관계를 잘 묘사하였다. 제목인 <만전춘>은 ‘궁전에 서 가득 찬 봄’이라는 뜻이다. 내용 전체 흐름이 후반부에 와서 마침내 임과 화자와의 화합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만전춘>이라는 밝은 색조의 이름에 非議되었을 것이라는 주장¹³¹⁾이 있지만 이 제목은 송사의 詞調와 흡사하다. 사조는 내용과 관련이 없고 ‘樂譜’라고 한다. 송사 詞調 중 유사한 이름은 ‘<漢宮春>,<帝台春>,<慶宮春>,<武陵春>,<滿庭芳>,<沁園春>’ 등이 있다. 『고려사』악지 당악조에 나온 구양수, 이갑이 지은 <洛陽春>,<帝台春>가 실려 있다. 또는 ‘별사’라는 ‘사’가 가사라는 사실이 학계의 상식으로 송사의 “사”와 비슷한 성격이 가지고 있다. 속요 내용을 보면 다른 속요에는 없는 자연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와 송사의 내용상 자연 경물을 묘사하면서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 매우 흡사하다. 더하여 5연에서 나온 내용은 『고려사』 당악조에 나온 송사 <千秋歲令>과 아주 흡사한 부분이 보인다. 대단히 육감적이기까지 하다.¹³²⁾

想風流態，種種般般媚。恨別離時太容易。香箋欲寫相思意，相思淚滴香箋字。
 畫堂深，銀燭暗，重門閉。
 似當日歡娛何日遂。願早早相逢重設誓。美景良辰莫輕拌，鴛鴦帳裏鴛鴦被，鴛鴦枕上鴛鴦睡
 似恁地，長恁地，千秋歲。

풍류로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 모로 아름다웠네.
 당시에 너무 쉽게 헤어진 것이 한스러워
 향기로운 종이에 사모하는 뜻을 적으려 하네.
 그리워하는 눈물이 향기로운 종이에 적힌 글자를 적시는데

130) 김쾌덕, 앞의 『고려속가의 연구』, p.62.

131) 박노준, 「<만전춘별사>의 제명과 작품의 구조적 이해」,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p.243.

132) 김쾌덕, 앞의 『고려속가의 연구』, p.108.

색칠한 대청은 깊고
 은빛 촛불은 어둡고
 겹문은 닫혔네.
 그때 같은 즐거움을 어느 때에나 이루게 될까?
 일찍히 만나 거듭 맹세하게 되기 바라며
 아름다운 경치 좋은 때를 소홀하게 보내버리지 않으리라
 원앙 방장 안에 원앙 베개 위에 원앙이 잔다
 그와 같이 늘 천년토록 살고 파라

마지막의 ‘그와 같이 늘 천년토록 살고 파라’는 ‘아소님하 遠代平生에 여힐슬 모르옵새’와 의미도 같다.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말할 수 없지만 당악을 수입해서 속요를 창작하거나 민요를 취택하여 궁중악으로 사용할 때 송사의 내용과 주제와 전혀 무관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만전춘별사> 마지막 연의 “南山에 자리보와 玉山을 버여누어 錦繡山 니블안해 麝香각시를 아나누어”라는 구절에서 ‘南山’과 ‘玉山’ 그리고 ‘錦繡山’은 각각 ‘따뜻한 아랫목’과 ‘옥 베개’, ‘금수비단 이불’을 상징한다. 이 표현은 <浣溪沙>-歐陽迥 ‘鳳屏鴛枕宿金鋪’에서 ‘봉황 병풍’, ‘원앙 베개’, ‘황금 침상’ 라는 표현, 그리고 ‘麝香각시’ ‘蘭麝細香(난초 사향 은은한 향기)’ 등과 매우 흡사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연결해 결론을 내리면 <만전춘 별사>와 송사의 영향관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송나라 북송 말기 황제 宋 徽宗이 <醉春風> 라는 사를 지은 것과 충혜왕이 <후전진작> 이라는 음사를 노래한 것도 굉장히 흡사하다.

송사의 남녀상열, 이별, 그리움의 주제내용은 안수, 안기도, 구양수, 유명, 주방언, 이청조의 주제를 대표하는 작품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청조는 북송, 남송 두 시기를 거쳤고 그 이외에는 다 송나라 초기의 사인으로 이 시기의 詞壇에는 만당오대의 詞風을 이어받아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별, 情을 노래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표현수법에 있어서는 直敍와 鋪敍는 크게 없고 대부분 綺麗한 언어로 婉曲하고 함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¹³³⁾ 분석했던 사에서 보면 <踏莎行> · <臨江仙> · <雨林鈴> · <清平樂> · <水龍吟> 사조 이름이 『고려사』악지 당악조

133) 金寶羅, 『柳永의 愛情詞研究』, 全北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7, p.19.

에서도 나왔다. 『고려사』악지 당악조에 나오는 당악정재는 북송시대의 사람으로 사 제작에 15수가 들어 있는데 그 중 유명작품이 8수이고 안수, 구양수, 소식 등의 작품도 각 1수가 들어 있다. 위의 작가들은 가히 북송시대 사문학의 최고의 작가이며, 위의 작가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송대 사의 내용은 본질적인 縮圖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북송사는 『고려사』악지 당악조의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이 순순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⁴⁾

고려속요의 내용을 보면 <동동>에서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통해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비유의 표현방법은 속요와 송사, 한시에서 잘 활용된 수사법이다. 예를 들면 <秋獲歌>에서는 지방 관리들을 굶주린 늑대에 비유하는 것으로 탐관오리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재현이 <사리화>에서 부과하는 조세가 많고 무거워 관의 수탈이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에 비유한 것도 있다. 하지만 송사에서는 ‘雨’, ‘落花’, ‘葉’, ‘燕子’, ‘雲’, ‘雁’, ‘殘月’, ‘孤燈’ 등 意象¹³⁵⁾을 통해서 이별과 그리움의 감상적 정서를 심화시켰다. 위에서 분석했던 사에서 안수의 ‘梧桐葉上瀟瀟雨(오동나무 잎새 위에 빗방울만 소소하네)’, 晏幾道 ‘落花人獨立(낙화에 나 홀로 섰는데)’, ‘紅葉黃花秋意曉(붉은 잎 노란 꽃에 가을기운 저물어 가는데)’, ‘飛雲過盡(흐르는 구름은 지나가 버렸고)’, 李清照의 ‘雁字回時(기러기 돌아올 때이건만)’, 柳永 ‘曉風殘月(새벽바람 불고 조각달 걸려있는)’, 周邦彥의 ‘怕見孤燈(외로운 등불 보기가 두려운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에 나오는 송사의 표현은 ‘마음속에 지닌 뜻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대상에 意象(의상)을 입혀 우리에게서 感傷的 정서를 이끌어낸다. 사의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미지와 감성이 서로 이어진다.

송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차경서정(借景抒情)’ 기법이다. 景物을 통해서 정서를 그려낸다. 주로 감정을 주위의 景物과 함께 엮어서 묘사하고 있다. 이는 ‘경물은 감정과 융합된다(情景交融)’는 말 그대로를 나타낸다. 歐陽修의 <玉樓春>에서 ‘夜深風竹敲秋韻, 萬葉千聲皆是恨(깊은 밤 바람이 대나무를 치니 가을

134) 이명구, 『고려가요의 연구』, 新雅社, 1974, p.172.

135) 의상(意象)이란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상을 세워 자신의 생각을 온전하게 표현한다(立象以盡意)’는 구절에서 따온 말로 이미지에 대응하는 중국 전통 미학 용어다. 원문 “夫象者, 出意者也; 言者, 明象者也. 盡意莫若象, 盡象莫若言. 言生於象, 故可以尋言以觀象; 象生於意, 故可以尋象以觀意. 意以象盡, 象以言著.” -周易.

운치가 넘치는데, 앞마다 이는 온갖 소리 전부 시름이라)’이라는 구절이나 ‘雨橫風狂三月暮(비바람 사나운 삼월 저물녘)’라는 구절, 유영의 ‘今宵酒醒何處, 楊柳岸, 曉風殘月(오늘 밤 술 깨면 어디에 거하리오 수양버들 늘어선 물가에 새벽바람 불고 조각달 걸려있는)’ 등 이러한 구절에서 표현하 듯이 경물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자신의 근심과 쓸쓸함을 토로한다.

이런 표현 기법이 <만전춘별사>에서

‘耿耿孤枕上에 어느즈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흐니 桃花 | 發호두다
桃花는 시름업서 笑春風호는다 笑春風호는다’

西窓의 桃花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고독감을 표현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런 표현 기법은 속요에서 드물다. 이외의 속요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桃花笑春風’이라는 구절은 중국 시나 사 중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시나 사 중 흔히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桃花가 여성을 비유한다는 것이다. ‘人面’과 ‘桃花’는 동시에 나타난다.

人面桃花는 원래 唐代의 시인 崔護의 명구(名句) ‘그리운 님 어디로 가셨을꼬? 복사꽃만 봄바람 속에 웃고 있네.(人面不知何處去, 桃花依舊笑春風)¹³⁶⁾’에서 유래 하였다. 이 시의 영향을 받고 송사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人面不知何處, 綠波依舊東流。(晏殊<清平樂>)
(그리운 님은 어디로 가셨을꼬, 푸른 파도는 여전히 동으로 흐르는데.)
落花猶在, 香屏空掩, 人面知何處? (晏幾道<禦街行>)
(떨어지는 꽃잎은 그대로이고 그 향기 온통 가득한데 그리운 님은 어디로 가셨을꼬?)
縱收香藏鏡, 他年重到, 人面桃花在否.(袁去華<瑞鶴仙>)
(향기를 거두어 거울에 감추어도, 다른 해는 다시 오나니, 그리운 님 도화 꽃에 있을까?)

한편으로 고려 중기 이후 대거 수용된 艷詞 위주의 唐樂(송사)의 분위기에 영

136) 去年今日此門中, 人面桃花相映紅。人面不知何處去, 桃花依舊笑春風。 - 《題都城南莊》, 崔護.

향을 받은 바도 적지 않을 것이다.¹³⁷⁾ 둘은 노래 부르는 장르로서의 공통점을 많이 가진다고 하겠다. 둘은 시적 화자인 ‘나’가 시적 청자인 ‘임’에게 호소하고 그리움을 표현하는 동질성이 크다.

고려속요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임’을 노래하는 것이다. 모든 노래의 시적 자아는 숭고한 임을 그리워하고, 임을 기다리며 원망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몸부림 치고, 임과의 달콤한 밤을 환상으로 그리며, 영원한 임과의 화합을 최고의 행복으로 구하고 있다. 때로는 외설에 가까운 肉慾的 사랑을 謳歌하기도 하며, 어떤 윤리나 도덕률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인간의 진솔한 정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속성이 조선 초기에 옛 음악을 정리하던 고루한 유학자들에 의해 남녀상열지사 또는 음사로 지탄 받는 이유가 되었다.

송사에서 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유영, 주방언, 심지어 宋 徽宗의 艷詞에서 염정적인 농지거리를 늘어놓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과 유사한 분위기를 가진 작품으로 <쌍화점>처럼 속어와 직설적 표현법을 사용하며 음설스러운 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역대 사 평가자와 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고려속요 내용을 보면 남녀 간의 노골적인 애욕을 비교적 잘 드러내고 있는 <만전춘별사>에서도 첫째 연 ‘땃넙자리보와’ 넷째 연의 ‘소해 자라 온다’라는 구절, 5연 ‘麝香각시를 아나누어 藥든 가슴을 맛초읍사이다’ 등 관련 구절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쌍화점에서 ‘내 손모글 주여이다’와 후렴구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그 잔 더ᄃ티 뵈거츠니 업다’ 등 이들 어휘가 드러나는 정서는 일반 민중들의 호응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속요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송사에서 일찍이 오대말기에서 송나라 초기의 화간사 사인 歐陽迥의 <浣溪沙>에서 나오는 ‘蘭麝細香聞喘息, 綺羅纖縷見肌膚, 此時還恨薄情無?’(난초 사향은 은은한 향기 속에 가쁜 숨소리 들리고, 가는 비단 옷에 살결 비쳐 보이네, 이때도 박정한 님 이라고 원망할 것인가?)라는 구절로 화간사의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영<晝夜樂>에서 ‘無限狂心乘酒興. 這歡娛、漸入嘉景 끝없는 즐거움은 술기운을 타니, 이 즐거움, 점차 더해가네)’라는 구절과 <菊花新>‘脫羅裳 恣情無

137) 성호주, 『고려속요의 재조명과 연구사의 반성』, 수련어문논집, 12권, 1985, p.17.

限. 비단치마 벗고는, 정에 말기는데 끝이 없구나), ‘看伊嬌面(아리따운 그녀의 얼굴을)’에서 나온 구절, <鬪百花-其三>의 ‘怯雨羞雲情意.(정사 겁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與解羅裳, 盈盈背立銀扛, 卻道你但先睡.(비단치마 벗겨주자 풍만하게 은 등잔 안고 돌아서서 ‘당신 먼저 그냥 주무세요’ 하는 구나)’에서 나온 구절은 생생하게 남녀 간 애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송사의 艷情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런 성격이 속요와 유사하다.

고려궁중에서 이런 노래가 선택적으로 많이 수용된 데에는 향락에 젖어 있던 왕실과 관료층의 의식 구조와 생활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남녀의 연정은 쉽게 충신연군지사로 寓喩될 수 있는 속성 때문인 것도 있지만, 남녀의 사랑과 이별, 그리움이라는 주제는 범세계적인 민요의 전형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행하는 대중가요의 주제와도 같이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유행하는 주제인 것이다.

속요와 송사에서 드러나는 肉慾적 사랑은 성을 통해서 획득되는 긴장과 쾌락 등 우주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문학의 일반 주제가 되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하게 풀고 넘어야 할 문학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는 이런 종류의 쾌락적 심리는 인간 공통의 보편적 관심과 흥밋거리이기도 하며, 누구에게도 별 저항감 없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로 어떤 정서보다 민중들의 호응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남녀의 적극적 애정행위 또는 성애를 드러내는 내용은 바로 송사에서 艷情적 성격을 말한다. 인류가 생활을 영위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매우 생명력 넘치는 감정이다. 일찍이 ‘食色性也(食欲과 色欲은 본성이다)’¹³⁸⁾라고 한 바와 같이 孟子마저도 이런 성애는 인류의 “본성” 중 하나이며 남녀 간의 육욕적 사랑과 남녀 간의 혼인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 조건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문학은 우리의 생활에서 유래한다. 이런 성애에 대한 작품들도 작자의 진실한 감정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 가장 진실한 감정을 즐겁되 음란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과 성애의 묘사는 문학창작에 있어서 불가결한 관계이다. 문학에 있어서 감정이 주식이라 한다면 성애의 묘사는 반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38) 《孟子·告子上》

이는 상부상조의 관계이다.

인간의 생활은 회노애락의 연속이다. 이는 우리의 생활이고 삶이다. 삶에 있어 개개인의 지위가 서로 다르고 개개인이 소유한 부귀영화 또한 저마다의 인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이라면 태어나 장성하고 짝을 만나 자손을 번성시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불행이란 무엇인가? 살아가는 삶이 모두 같을 수는 없어도 이 땅에 태어나 어려서는 친구와 놀며 친구를 통해 배우고 커서는 이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이성을 통해 사랑의 아픔과 괴로움의 이별,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저마다 사랑의 느낌과 그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 이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봄에 싹을 틔울 때의 시작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모진 비바람과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린 땅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색과 크기의 꽃을 피우게 된다. 가을 들판에 오곡이 풍성하게 저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이치와 같이 인간도 저마다 태어난 환경과 문화와 역사 국가는 다르지만, 사랑을 하고 행복을 지향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고 삶의 경험 속에서 저 마다의 인생의 열매는 맺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 모든 근본은 사랑이고 그것은 인간의 성이며 이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문학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속에 등장하는 성이란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이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묘사이다. 삶이 존속하는 기본 단위이고 삶에 깊숙이 관련된 부분이며, 그러므로 인간의 성을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배려하고 표현해야 한다. 성이 은폐되지 않고 개방되는 사회문화가 오히려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고¹³⁹⁾ 문학은 꽃 피우지 않을까?

한편으로 고려속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고뇌에 대한 주제의식을 보면 <청산별곡>에서는 속세를 떠나 청산에 머물고자 한다. 그러나 청산에서도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화자는 다시 새로운 도피처인 바다로 떠나지만, 자신의 제약된 운명을 확인하고는 결국 현실 세계로 돌아와 술로 마음을 달래며 인생에 순응한다. 이러한 의식은 송사에서 안수의 ‘酒筵歌席莫辭頻 (연회자리 잦다고 잔소리마소), 不如憐取眼前人 (진실로 눈앞에 있는 이를 아

139) 허남춘, 『한국문학개론』, 앞의 책, p.86.

끼고 사랑하는 편만 못 하다네)’에서처럼 현재 바라보는 현실을 파악해야 하고 직면한 현실에 순응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인생에 대한 관점과 유사한다.

송사에 볼 수 있는 不遇·타향살이·고향의 그리움에 대한 주제의식은 속요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不遇한 사람이 거의 다 사대부 문인들과 관련이 있고 큰 포부를 품고 있지만, 등용되어 출세하지 못하는 사인들의 여의치 못한 생활은 많은 우여곡절을 품고 있고 이를 하소연하는 내용이 많다. 타향살이는 생활을 위해 혹은 의식주의 해결 때문에 외지로 나아가 관직을 구하게 된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파면을 당하고 유배까지 되면서 외로이 이곳저곳으로 자주 떠돌아다니게 되고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 고려속요는 거의 다 작자와 창작년대 미상이며, 형성 초기 일반 민중들이 불렀기 때문에 벼슬길에까지 전파될 리가 없었다. 이런 영향으로 고려속요에서는 이런 주제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송사에서 나타나는 不遇·타향살이·고향의 그리움은 많이 등장하는 주제이다.

송사에서 봉건사회의 현실 문제이자 기본적 모순인 농민과 지주 사이에 갈등이 많이 보이지 않은 점도 속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의 특징이다. 현실적 문제에 관한 이제현이 고려속요를 한역시로 쓴 내용을 보면 민간 생활과 민생고(<長岩>, <沙裏花>, <北風船>), 불교의 부패와 승려들의 破戒 행위를 풍자한 <水精寺>에서 현실적 주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대 현실적 민중의 삶을 반영하는 작품을 더 보충하려고 동시대 이규보의 한시 <代農夫吟二首>·<聞達旦入江南>를 더 살펴보았다. <代農夫吟二首>에 官의 수탈을 표현하는 구절 ‘新穀青青猶在畝, 縣胥官吏已徵租(시퍼런 새 곡식 아직도 채 밭에 있는데 현의 서리들은 벌써 조세를 징수하는구나)’가 있다. 신기질의 <玉樓春>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절 ‘人間踏地出租錢, 借使移將無著處(인간세상에선 땅만 밟아도 세금이니, 옮겨가려 해도 정착할 곳 없다네)’가 나온다. 이제현의 <사리화>에서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표현하는 주제가 같으며 두 나라 당대 백성의 비슷한 시대상황을 반영한다.

민중의 삶을 반영하는 현실적 주제가 반영된 작품은 송사보다 한시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문인들의 ‘詩莊詞媚’¹⁴⁰⁾라는 관념에 영향을 받아 사보다 시가 더 莊嚴하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민중의 삶을 다루며 무거운 현실적

140) 於溟躍, 「也談“詩莊詞媚”」, 《光明日報》, 2014年10月25日09版. “詩莊詞媚”: 莊者, 莊嚴也. 媚者, 婉媚也.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표현하는 사보다는 시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였다. 사에는 주로 ‘꽃 사이 (花間)’, ‘술 옆(酒邊)’과 같이 마음속 감정을 드러내는 서정적인 문자들에 중점을 두어 썼고 의론 논리와 같은 내용은 시속에서 표현해. ‘송사는 감정을 말하고 (宋詞言情)’, ‘송시는 이치를 말하는(宋詩言理)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점차 하나의 전통을 이루었다. 북송 이전의 사 작가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와 사의 기능을 나누어 생각하였다.¹⁴¹⁾

육유의 <寄朱元晦提舉>와 <秋獲歌>라는 한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한시 속에는 현실적인 민중의 삶이 많이 반영되었고, 이런 점은 한중 양국이 같다.

주로 송사와 속요에서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고, 이제현의 한역시과 이규보의 한시 속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도 한시에서 주로 반영이 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런 특징은 양국 문학에서 보이는 같은 성격이다. 사도 노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의 초기에는 노래와 분리할 수 없었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를 발전시켰다. 사는 책상머리에서 읽는 안두문학(案頭文學)같은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음악문학의 한 종류였다. 송대의 사는 가사 자체였고,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학의 음악적 특성은 사와 다른 문학 양식의 큰 차이점으로 구별된다. 서정성 이외의 오락성 기능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생초기 사의 사교성과 오락성은 서정성보다 더욱 뚜렷하다.¹⁴²⁾ 속요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노래를 부르며 전달하며 유희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송사에서는 이런 민중의 삶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주제의식은 많이 나타나지 않으며 현실반영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이 있다. 역사변혁의 중요한 순간을 반영하는 작품이 송사에는 많지 않으며, 시대정신을 체험하는 작품 또한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학이란 그 시대의 생활과 정서의 역사이다. 시대성이란 일상의 생활을 포함하는 것이고, 정서란 위대함과 평범함에 상관없이 국가와 가정에 대한 정 및 남녀 간의 정은 다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141) 周篤文, 앞의 책, p.31.

142) 詞的產生從發展初期便與歌唱無法分離, 藉由演唱而推動了詞的發展, 詞在宋代并非案頭文學, 而是音樂文學, 寫在紙上的歌詞, 只有当他配樂演唱時, 才能通過聲樂工作者的歌喉傳達到接受者-觀衆或聽衆那里。這種音樂文學的特性, 造成詞和其他文學樣式最大的不同-除了抒情功能外, 更具有十分明顯的娛樂功能。尤其是在詞產生的初期, 他的社交, 娛樂功能, 甚至較其抒情功能更加明顯. 林燕始, 앞의 논문, p.31.

봤을 때 송사는 특정 역사상황의 현실에 대한 반영과 당대 생활과 정서의 반영에 대해 특수한 공헌이 있다.¹⁴³⁾

고려 문학도 중국 문학에서 지니는 특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속요에서 현실문제의 반영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는 고려시대의 한시에서 현실문제의 반영이 많이 드러나는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송사에서는 북송의 멸망에 따라 나타나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애국사가 많이 차지한다. 앞에 나오는 신기질, 악비, 육유 등은 사인이지만 다들 그 당시의 抗金 애국인물이었다. 시대적 배경 때문에 현실적 애국 주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속요에서는 이런 애국정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규보의 한시 ‘報國壯心長凜凜, 夢中鳴鑼射戍王(국가에 보답하려는 장한 마음 길이 늠름하여 꿈에서도 활 쏘아 오랑캐 두목 맞춘다네)’에서 조금 드러난다. 이런 애국심에서 나타나는 애국정서는 나라를 위해 보답하려는 내용의 사로 악비의 ‘駕長車, 踏破賀蘭山缺(전차를 몰고, 하란산을 짓밟아 무너뜨리리라)’에서도 나타난다. 애국심에 의한 애국정서를 사로 표현하여 자신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크고 웅대한 뜻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신기질의 사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흔히 볼 수 있다.

<聞達旦入江南>

一時墮胡頭 일시에 오랑캐들 머리를 지를까
今隨白刃落 날카로운 칼날로 모조리 떨어뜨려
跳轉如圓毬 둥근 공을 차듯이 굴러 버릴까
不然大海水 아니면 대해의 물을
傾注使漂流 갖다 대어 떠내려 가게 하고
化爲魚與鱉 고기와 자라가 되게 하여
化膾我民喉 회 만들어 우리 백성들 먹게나 할까?

위의 이규보의 시에서 표현한 오랑캐에 대한 증오심은 악비의 ‘壯志饑餐胡虜肉, 笑談渴飲匈奴血(배고프면 오랑캐의 살로 배를 채우며, 목마르면 흉노의 피를

143)“宋詞在反映現實的廣闊度上確實有一定的局限性，宋詞中缺少反映重大曆史變革，體驗時代精神的作品也是事實，但‘文學是時代生活和情緒的曆史’，而人類社會生活豐富多彩，思想情緒千變萬化，所謂時代的生活並不排除日常的生活，情緒更無關係大與平常，家國之情與男女情愛同屬人類情緒的一部分。從這個角度來看，宋詞在特定的曆史條件下，在反映現實，體現當代的生活和情緒方面，仍是具有特殊貢獻的。”林燕始，「柳永詞對都會描寫的開拓」，南華大學文學研究所碩士論文，2003，p.9.

마시리라)’에서 표현된 오랑캐에 대한 증오의식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시중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표현한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속요에서 애국정서를 주제로 한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정과정>에서 충군의 정서가 나온다. 송사중 악비의 ‘待從頭，收拾舊山河，朝天闕.(옛 산하를 다시 되찾은 후에 황제를 만나러 가리라.)’라는 구절에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표현했던 것처럼, 정서의 <정과정>에서 나오는 충군의식은 왕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봉건사회의 사대부는 왕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이라고 생각하였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고려속요와 송사의 주제의식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시대적 민중의식을 찾아냄으로써 고려속요와 송사의 유사성과 보편성 그리고 차이점을 도출하였고,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 속에서 송사가 유입되어 고려속요에 어느 정도의 영향도 주었다는 사실 또한 도출하였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를 볼 때 고려속요와 송사를 비교 분석한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루어진 부분 또한 매우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속요와 송사의 주제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II장에서 사회적 배경과 형성과정, III장 1절에서 고려속요에서 나온 주제와 구체적 내용을, III장 2절에서는 송사에서 나온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III장 3절에서는 1절과 2절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려속요와 송사가 보이는 주제의 공통점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하였다.

II장에서 고려시대와 송대의 사회적 배경과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의 사회적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속요의 시대적 배경인 중세 암흑기의 고려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빈번한 외침과 무신의 난에 이어 거

란과 여진의 침략에 이은 몽고군의 침입은 큰 재앙 이었다.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포로가 되어 노비로 전락하지 않으면 관리들의 피고름까지 쥐어짜는 수탈에 자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 고려속요의 내용은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보다 많았다. 창작자는 일반 민중이고 민요는 삶의 체험으로써 창작되는 것이다. 빈번한 외세침입과 지배층의 극심한 수탈로 떠돌아 다녀야했던 유민들, 공녀제도의 비인간적 행위로 인한 이별 속에서 고려속요에 나오는 남녀상열은 헤어진 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고 그 내용의 소재는 애정 편향적 내용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려속요의 사랑, 이별, 그리움에 대한 주제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고려는 건국 이후 오대(五代)로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왕조와의 대해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송나라와 문화적·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대를 맺었다. 송과 고려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안 일반 문물은 물론 많은 서적류를 비롯한 송의 문물들은 고려에 꾸준히 들어오게 되었으니 송의 사문학도 자연스레 많이 유입되었다.

송대의 사회배경을 보면 북송과 남송으로 나누어지고 북송의 초기는 사회가 안정되고 중앙집권에 의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거기에 송태조는 무인을 억압하고 문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문인 사대부들에게 비교적 넉넉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는 다양한 사문학의 발전 토대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사는 많은 艷情的인 사랑과 이별 그리움 등 인생무상의 閑愁의 주제의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발전은 100년 간 지속된 후 북송은 내외외환에 시달렸다. 1127년 ‘정강의 변’으로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시대가 열리게 된다. 북송의 멸망은 사인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는 사인들 사이에 애국사가 많이 창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사에서 그들은 집과 나라를 잃었을 때 불행한 신세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는 나라의 망함에 대한 비통,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感傷에 더 깊게 빠져들게 하였다.

형성과정에서 속요가 민요에서 형성되어 운율이 아름답고 아무런 허식이나 과장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의 애환과 심혼이 솔직담백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 월천이 민요에 있으므로 본래의 작자 층은 민중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바탕

으로 재창작하여 향유한 왕실과 그 주변인물인 권문세족은 수용자인 셈이다. 따라서 민중에서부터 상류층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흐름을 보면 속요의 시작인 민요는 고려조로부터 시작되어 조선조에는 궁중 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송사는 민간에서 유래되어 다양화된 형식으로 발전하고 농촌이나 산촌 등 지방적인 특색을 갖고 지방의 여러 곳에서 유행했던 것이다. 후에 점차 작가들의 주의를 끌게 된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에서 문인 사까지 건너가게 된다. 이는 속요가 대개 여러 지방의 유행 민요이었을 것이라는 점과 상당히 통한다고 하겠다. 민간가요를 채집하여 궁중악에 맞게 재편하는 측면에서 들은 상통한다. 민요가 악장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김원상·오잠 등 행신들이 내용과 형식 등의 변조에 깊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이후 어느 정도 유사성이 보인다.

그 다음 III장에서 고려속요와 송사의 주제의식 내용 비교는 1절의 고려속요에서 나온 주제의식과 2절의 송사에서 나온 주제의식과 3절의 총괄적 논의로 분류해서 비교하였다. 1절은 고려속요의 주제의식을 남녀상열 및 이별 그리움의 감상적 주제, 인생의 비애, 우민층군의 현실적 주제로 나뉜다. 2절은 송사의 주제의식을 남녀상열 및 이별 그리움의 감상적 주제, 인생무상의 감상, 불우, 타향살이, 고향을 그리는 감상적 주제, 애국우민의 현실적 주제로 나뉜다.

3절의 총괄적 논의는 III의 1절과 2절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고려속요와 송사에서 보이는 주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보면 송사의 주제는 고려속요의 주제보다 다양하고 풍부하며, 공통적 주제로 사랑·이별·그리움 그리고 인생의 비애이며, 속요 중에 입을 향한 기다림과 그리움, 이별의 感傷的 정서를 드러낸 주제로 <동동>·<만전춘>·<이상곡>·<서경별곡>·<정석가>·<가시리> 등이 있고 이런 주제는 송사에서 특히 북송 전기 詞壇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閨怨을 중심으로 이별 그리움의 감상적 정서를 표현하는 주제로는 안수, 안기도, 구양수, 유영 등의 사에서 나타나고 이런 공통적인 주제는 속요와 송사의 특징이 되었다.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김쾌덕은 속요와 송사의 영향관계에 대해 고려속요와 송사는 남녀 연정과 이별을 주제로 편향하는 공통성을 지니며, 이는 송의 사문학이 일반 시와 다른 내용적 특성이며, 사의 성향에 속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아 춘원이나 규정이 많아 졌으리라 여겼다. 결론을 도출하면 속요 향유자들의 취향과 시대적 상황이 부가적으로 작용

하여 송사의 내용이 속가의 내용형성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송사의 타향살이·고향의 그리움·不遇에 대한 주제인데 이는 고려속요에서는 찾을 수 없다. 송사에서 不遇한 사람이 거의 다 사대부 문인들과 관련이 있고 큰 포부를 품고 있지만, 출세하지 못하는 사대부들의 우여곡절을 겪고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타향살이는 생활을 위해 혹은 의식주의 해결 때문에 외지로 나아가 관직을 구하게 된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파면을 당하고 유배까지 되면서 외로이 이곳저곳으로 자주 떠돌아다니게 되고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 고려속요는 거의 다 작자와 창작 연대 미상이며, 속요 창작 초기 하층 민중들이 불렀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었다. 이런 영향으로 타향살이·고향의 그리움·不遇에 대한주제는 고려속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또한 송사에서 봉건사회의 현실 문제이자 기본적 모순인 농민과 지주 사이의 갈등이 많이 보이지 않은 점도 속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상의 특징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송대의 문인들은 시와 사의 기능을 나누어 생각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정치, 사회에 대한 비판과 우환의식을 표현하고 사를 통해서 개인의 정서와 호방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송대의 문인들은 ‘言理而不言情(이치를 말하고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송시의 특성 때문에, 시 속에서 토로할 수 없는 감정은 사를 통해 표현이 이루어졌다. 사를 통해 송대 문인들의 가면을 벗게 하고 진실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다. 중국 문학에 ‘詩文述志、詞以娛情(시와 문장으로써 뜻을 나타낸다. 사로써 정을 즐긴다)’는 사와 시의 기능이 차별화된 특성으로 인해 송사에서는 민중의 삶을 반영하는 현실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특징은 송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는 고려속요가 노래 부르는 유희성 때문에 민중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이제현과 이규보의 한시에서 많이 보이는 점과 유사하다. 이러한 특징은 양국 문학의 공통점이 되었다.

그리고 송사와 속요 모두 주로 상류층에서 노래로 자주 불렀기 때문에 사랑, 그리움, 忠君의 주제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漢譯詩에는 현실비판의식이 강화되어 드러난다. 하층민의 노래인 민요에는 현실비판의 주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민요를 저본으로 한 경우 현실비판의 주제를 다룬 작품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익재소악부에는 속요를 번역한 것과 민요를 번역한

것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차이점은 고려속요에서 나타나지 않는 애국의 현실적 주제의식이 송사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북송 멸망에 따라 현실적 어려움 속에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애국사가 나타난다. 시대적 배경 때문에 송사에서 현실적 애국 주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속요에서 직접적 애국정서를 표출하는 내용이 없지만 <정과정>에서 충군의 정서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 본 고려속요와 송사의 공통점을 분석하면 명확히 나타나는 부분은 감상적 내용의 사랑·이별·그리움 그리고 인생의 비애이며, 삶과 인생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성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속요와 송사의 사랑·이별·그리움의 공통적 주제는 마치 지금의 대중가요에서 유행하는 주제와 같다. 그리고 남녀상열의 성애 장면을 드러내는 점도 공통점이다. 고려속요는 송사가 민간에서 발생되어 사랑과 이별, 그리움을 주로 노래한 것과 통하게 된다.

고려속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정석가>와 漢樂府民歌 <上邪> 또는 돈황곡자사 <菩薩蠻>의 흡사한 내용을 보고 한국문학에 분명히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진춘별사>의 제목부터 내용까지 분석한 결과, 속요와 송사의 영향관계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양국 문학교류 속에 송사가 고려속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속요에는 <쌍화점>, <만진춘별사>에서 보이는 외설에 가까운 肉慾的 사랑을 구가하기도 하며, 어떤 윤리나 도덕률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인간의 진솔한 정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송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비롯된 유영, 주방언, 심지어 宋徽宗의 사에 염적인 농지거리를 늘어놓은 내용이 있다. 속어를 사용하고 직설적 표현법을 사용하여 표현도 거의 비슷하다. 사랑은 문학에서 영원한 주제이다. 문학에 있어서 사랑은 남녀의 肉慾的 사랑을 포함하고 이런 肉慾的 사랑은 인류가 생활을 영위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매우 생명력 넘치는 감정이다. 성은 폐되지 않고 孟子의 ‘食色性也’라는 말 같이 성애는 인류의 ‘본성’ 중 하나이며 남녀 간의 육욕적 사랑과 남녀 간의 혼인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 조건임을 인정해야 된다.

속요의 ‘속(俗)’과 송사의 ‘염(艷)’은 그동안 부정적 인식으로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오늘 날에는 속요와 송사를 감상하면서 속요와 송사의 眞과 美를 새롭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

본고에서 고려속요와 송사에 대하여 나름대로 작품을 연구하며 분석하였지만 이는 부분적인 내용의 해석에 불과하다. 논의 범위 또한 깊이가 부족하고 비교연구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參考文獻>

1. 자료

『高麗史』

최철,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출판부, 1996.

唐圭璋, 『全宋詞』, 中華書局出版社, 2013.

鄒德金, 『名家評注全宋詞』, 上,下 卷, 天津古籍出版社, 2009.

양해명 저, 송용준 류종목 공역, 『唐宋詞史』, 신아사, 2007.

2. 논문, 단행본, 기타

김쾌덕, 『고려속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6.

김쾌덕,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金承璨, 金竣五외, 『韓國文學概論』(第2版), 三知院, 2012.

김수희, 「고전시가에 나타난 달의 의미」,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현주, 서진영, 「유영 기려주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김상우, 「고려속요 화자 연구 : 화자 태도 유형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나정순, 「고려가요에 나타난성과 사회적성격」, 박노준외, 고전시가 읽어읽기, 태학사, 2003.

문관수, 「南宋四大家의애국우민사상 비교 : 전원시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31집, 2005.

방지영, 「周邦彦愛情詞研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노준, 「청산별곡의 재조명」,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박병채,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국학자료원, 1994.

신은경, 「서경별곡과 정석가의 공통 삼입가요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1986.

서수생,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79.

성호주, 『고려속요의 재조명과 연구사의 반성』, 수련어문논집 ,12권, 1985.

이승재, 「향가와 속요 기원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창환, 「고려속요에 나타난 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1984.

이승명, 「靑山別曲研究」,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1.

안상렬, 「고려속요의 지향공간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楊蔭瀏, 『중국고대음악사』, 솔, 1999.

윤성현, 『속요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7.

李宥林, 「柳永의 艷情詞 研究」, 東國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석사학위논문, 2008.

정자중, 「고려가요에 나타난 화자 인식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조규익 , 허남춘외, 『한국문학개론』, 새문사, 2015.

조연숙, 『고려속요 연구』, 국학자료원, 2004.

정병욱, 『韓國古典詩歌論』, 신구문화사, 1980.

정태성, 「고려속요에 나타난 여성화자의 의식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3.

조수현,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연구: 표현 방법과 정서 표출방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자중, 「고려속요에서 나타난 화자 인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池姓延, 『宋詞三百首今譯：北宋初中期詞 譯注』, 江陵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專攻, 2008.

차주원, 「고려속요의 정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허남춘, 『황조가에서 창산별곡 너머』, 보고사, 2010.

허남춘,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 1999.

한국여성연구회편, 『여성학 강의』, 동녘출판사, 1993.

- 황영미, 「고속요의 여성화자 연구-님의 부재에 대한 반응 양상을 중심으로」, 부산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河姓延, 『이청조의 사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E R 힐가드, 『고려가요의 정서』, 개문사, 1993.
- 王國維, 《宋元戲曲史》自序. 《20世紀國學叢書》本,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 王國維, 『人間詞話』, 古吳軒出版社, 2012.
- 況周頤, 《蕙風詞話》, 《詞話總編》本, 中華書局, 1986.
- 唐圭璋, 《唐宋詞簡釋》, 中華書局, 1987.
- 唐圭璋 等, 《唐宋詞鑒賞辭典》, (南宋·遼·金卷), 上海辭書出版社, 1988.
- 葉嘉瑩, 『柳永詞新釋輯評』, 中國書店, 2005.
- 上疆村民, 『宋詞三百首』, 雲南出版社集團, 2014.
- 王重民, 『敦煌曲子詞集』, 學古房, 2012.
- 張福洲, 「“花間”對宋詞的影響」,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 村上哲見, 『唐五代北宋詞研究』, 陝西人民出版社, 1987.
- 旌蟄存, 『詞籍序跋萃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文珍, 「小山詞夢意象淺說」, 《瓊州學院學報》, 2002.
- 陳姿羽, 「論柳永詞中的娼妓書寫」, 國立臺北教育大學, 語文與創作學系 碩士學位論文, 2013.
- 白依淳, 「柳永詞與元祐詞壇之關係析論」,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系 碩士學位論文, 2012.
- 林燕始, 「柳永詞對都會描寫的開拓」, 南華大學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3.
- 胡遂, 「論唐宋詞創作旨趣的發展演變」, (文學遺產), 1999年 第3期.
- 梁麗芳, 《柳永及其詞之研究》, 三聯書店, 1985.
- 金寶羅, 「柳永의 愛情詞研究」, 全北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7.
- 賴曉君, 「“閑話覺忘憂”-北宋前期詞中“閑”的藝術探析」, 南昌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黃澤芳, 「淺說宋詞的感傷性」, 《科教文彙旬刊》, 2010(9).
- 郭常亮, 「文人多數奇,詩人尤命薄」-“詩人性格”與“懷才不遇”漫談, 江西省團校學報, 1999 (4).

- 餘英時, 《朱熹的曆史世界》, 生活. 讀書. 新知三聯書店, 2011.
- 張旭, 「問君能有幾多愁——試論宋詞傷感基調的成因」, 《青春歲月》, 2012年08期.
- 周篤文, (鄭惠璟, 河炘心畬진), 『宋代的 詞』, 學古房, 2013.
- 李東鄉, 「辛棄疾詞의 用典」, 『中國語文論叢』, 중국어문연구회, 2001.
- 於溟躍, 「也談“詩莊詞媚”」, 《光明日報》, 2014年10月25日09版.

中文提要

高麗俗謠和 宋詞的 主題意識 比較研究

張維維

本論文通過對高麗俗謠和宋詞的主題意識的比較研究，找出兩國人民時代性的民眾意識，導出高麗俗謠和宋詞的相似性，普遍性以及差異性，還有高麗和宋朝兩國往來交流中，隨著文物的流入，宋詞傳入到高麗後，對高麗俗謠也不可避免的產生一些影響。下面是本論文的概要。

先從先行研究史看的話，可以發現還沒有關於俗謠和宋詞的比較研究，即便涉及到的也只是有一部分研究，非常有限。

爲了高麗俗謠和宋詞的主題意識的比較，在 2 章中先考察了高麗和宋朝的社會背景以及俗謠和宋詞的形成過程，在 3 章 1 節中考察了高麗俗謠中的主題和內容，在 3 章 2 節中考察了宋詞中的主題和內容。3 章 3 節中在 1 節和 2 節分析的內容爲基礎上，導出了高麗俗謠和宋詞中呈現出的主題的共同性和差異性。

先看一下 2 章中的高麗和宋朝的社會背景及俗謠和的形成過程的內容。高麗俗謠大多是創作年代和作者未詳，但是研究資料中大多的考察是認爲在高麗末期被創作的。高麗末期是一個內憂外患的多災多難的時期。高麗國王的政權被國內武臣削弱，造成國內階級矛盾和統治階級內部矛盾的同趨激化，社會的政治、經濟、生活都處於極度混亂之中，官吏的剝削，過重的賦稅，在加上女真和蒙古外民族的侵略，百姓生活在水深火熱之中，流離失所，餓死，或成爲俘虜，奴婢。受現實的影響造成了俗謠的內容否定面的內容較多，特別當時貢女制非人性的行爲，造成了俗謠的主題偏向於離別，相思，愛情的表達。

高麗建國以後從中國的五代到宋朝，跟中國的曆代王朝一直保持著親善關係。特別跟宋朝的文化，經濟上有著密切的關聯。和宋朝積極的往來交流中，宋朝的很多文物包括書籍等持續不斷的流入高麗王朝，其中宋詞自然而然的也就傳入到高麗。

分析宋朝社會背景的話，宋朝分爲北宋和南宋，北宋初期社會安定，實行中央集權制，經濟得到持續發展，宋太祖趙匡胤 鑒於自己發動兵變的曆史教訓，實行崇文抑武的基本國策，文人地位前所未有的得到肯定與提升，爲文人士大夫提供了優裕的環境，能夠全身心投入到詞文學的創作中。這個時期的詞多體現爲豔情性的愛，離別，相思和對於人生無常 閑愁的感歎等主題內容。

但是這種安定的氛圍只持續了 100 多年，之後一直受到內憂外亂的困擾。1127 年史上的‘靖康之變’後，北宋滅亡，南宋開始。北宋的滅亡給文人們帶來巨大的傷痛，在詞中，他們不僅抒發了失去家國時身世飄搖的一己之愁，更多地含著亡國之痛、鄉關之思和報國無門的愁情。這也使得詞作中的‘愁情’有了更深的社會內涵和更高的思想價值。

形成過程的分析中，可以知道俗謠是從民謠發展而來，韻律很美，沒有任何虛設和誇張。是平民百姓的悲歡和心聲最直白的表現方式。因爲來源於民謠，所以原創作群體是一般民眾。在原

基礎上經過加工創作再發展到王室及周邊權貴享有層。因此通過俗謠可以觀察到從民眾到上層社會不同的社會樣相。從俗謠的發展過程看的話，俗謠從民謠開始，高麗王朝到朝鮮王朝的宮中音樂的發展過程。宋詞也是從民間開始經過各種形式的發展，具有農村和山村等地方特色，在各個地方流行。發展過程中逐漸受到文人的注意，是從民間詞到文人詞的發展過程。正如民謠到樂章的發展過程中金元祥 吳潛等倖臣參與到對俗謠的內容和形式的變革中相類似。

接下來是3章的高麗俗謠和宋詞的主題意識的比較內容，第1節中是分析高麗俗謠中的主題，分為男女相悅及離別相思的感傷性主題，人生的悲哀，憂民忠君的現實性主題。第2節中是分析宋詞的主題，分為男女相悅及離別相思的感傷性主題，人生無常的感傷，不遇羈旅思鄉，愛國憂民的現實性主題。3節是在第1節和第2節的內容分析基礎上進行了綜合性概論，導出了高麗俗謠和宋詞主題上呈現的相似性和差異性。從分析的內容上看的話，宋詞中的主題比高麗俗謠的主題豐富的多，共同性的主題是愛·離別·相思還有人生的悲哀，俗謠中表現對‘君’的等待，思念，離別的感傷之情 主題的作品有<動動><滿殿春><履霜曲><西京別曲> <鄭石歌>等，這樣的主題在宋詞中，特別是北宋前期的詞壇中所表現最多的其中一個主題。以閨怨，戀情為中心，表達離別相思的感傷之情主題的晏殊，晏幾道，歐陽修，柳永等詞人的詞作當中呈現的這種共同主題成為俗謠和宋詞的特征。金快德對於俗謠和宋詞的影響關係的分析中，認為高麗俗謠和宋詞，共同偏向於 男女戀情和離別的主題，這是宋詞文學和詩文學所不同的內容上的特性，詞的這種傾向給了俗謠很大的影響。

差異性是宋詞中的不遇·羈旅·思鄉的主題，這是在俗謠中所沒有的主題。宋詞中懷才不遇的主要是文人士大夫，胸懷才學，有著一腔抱負卻不被賞識重用，對自己不平身事發泄在詞中。羈旅主要是因為生存，在外地求官，或被貶謫，流配，因為到處漂泊 而對故鄉產生思念。高麗俗謠 大多是一般平民百姓創作，沒有官場浮沉的可能，因此不遇·羈旅·思鄉的主題在俗謠中查找不到。

還有在宋詞中沒能看到的反應封建社會現實問題的農民和地主基本矛盾的主題，在俗謠中也沒有看到。這也是俗謠和宋詞文化上的共同點。

在中國古代文人的思想裏一直秉承著‘文以載道’‘詩以言志’的思想，所以宋朝的文人也繼承這樣的的思想，“詩文述志、詞以娛情”把詩和詞的功能區分開來。也形成了自古以來的‘詩莊詞媚’的觀念。正如明朝的陳子龍所言“宋人不知詩而強作詩。其為詩也，言理而不言情，故終宋之世無詩焉。然宋人歡愉愁怨之致，動於中而不能抑者，類發於詩餘，故其所造獨工。”，宋人淤積於胸的感情，因宋詩的‘言理而不言情’的特性，在詩中無處宣泄的感情，全部湧向詞中，把感情通過詞完全的抒發出來。所以反應民眾現實的問題在宋詞中明顯查找不到，而在詩中卻能查找到。俗謠也因為它的娛樂性，所以注定了它也無法反應現實問題，而在李齊賢漢譯詩和李奎報的漢詩中卻能發現很多。這也成文兩國文化上的共同點。

還有的不同點是，俗謠中沒有反應到的愛國主題在宋詞中有很多。這是因為宋朝時代性的背景造成的，隨著北宋國家的滅亡，所以表現對於國家滅亡帶來的傷痛的詞便在這一時期出現。俗謠中雖然沒有直接抒發愛國之情的內容，不過<鄭瓜亭>作為忠君戀主之詞反應了對於王的忠誠之心。

總體來看的話，俗謠和宋詞的共同點，明確的部分是感傷性內容的愛，離別，相思和對於人生的悲哀感，正如和現在的我們在生活中所能感受和經歷的情感問題，沒有多大的差別。也像我們這個時代裏流行歌曲中經常出現的主題一樣。還有共同的一點是男女相悅中關於性場面的描寫。

這是俗謠和宋詞從民間發展起來後所形成的共同的一面。

在詳細分析俗謠的內容過程中我們還發現<鄭石歌>和中國的樂府民歌<上邪>和敦煌曲子詞<菩薩蠻>的內容非常的類似,應該可以看作是中國的這類歌曲在發展過程中,對於韓國文化所造成的影響。<滿殿春別詞>從題目到內容分析的結果來看,也可以看出是宋詞傳入高麗以後,對於俗謠也產生了一定的影響。

俗謠中的<霜花店><滿殿春別詞>所呈現的關於肉欲方面的愛的描寫,反應了當時社會,不束縛於道德和倫理,自由奔放真摯的一面。宋詞中,不僅包括柳永,周邦彥,甚至還有當時受人尊敬的寇准,歐陽修,晏殊等重臣,上到皇帝宋徽宗,在他們的詞中都能看到很多豔詞的內容。使用俗語俚語,大膽直接的表現方法,也成為兩國文化的一個共同點。愛情一直是千古不變永恒的一個主題,而肉欲之愛也是愛情的一個方面,是人類生活和發展中必不可少的重要的一部分。正如中國的聖人孟子所言,“食色性也”性愛是人的本性之一,就像吃飯那般平常事情一樣。應該正確的看待性愛在文學中的作用,不應該去避諱,而是健康正確的去認識。

從古到現在俗謠和宋詞,因為他們本身‘俗’和‘豔’的特性,很長一段時間內受到了不公平的批判,到了今天,我們在欣賞俗謠和宋詞時,應該更多是感受和認識到它們所帶來的真和美。

本論文中對於俗謠和宋詞的研究中,只是對於相關主題的一部分進行了分析,所以局限於一部分的內容之內。議論的範圍和深度存在很多的不足之處,對於比較研究來說有些欠缺,有疏漏,謬誤之處,請多多指正。

關鍵詞：高麗俗謠，宋詞，詩,主題，共同性，差異性，感傷性，影響，男女相悅之詞，俗，豔

